금주의 법구–〈대길상경〉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하지 말라.
슬기로운 이와 가까이 지내라.
그리하여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섬겨라.

#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52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8월 6일)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3000여 포교사들 "자비 등불 밝히겠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영석)은 9월 9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제19회 팔재계수계대법회를 봉행하고 전법의지를 다졌다. 3000여 명의 포교사들은 한목소리로 "이웃과 사회를 위한 자비의 등불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2003년부터 시작된 팔재계수계대법회는 1년에 한 번이라도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업을 참회하고 8가지 계율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발원의 장이다. 무박 2일 8재계를 수지하며 철야정진하고 포교 원력을 견고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날 법회에서는 활동 우수 포교사 시상과 제1회 포교활동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신규 포교사와 전문포교사 품수식도 이어졌다. 올해 품수대상자는 신규 398명, 전문 7명이다.

글= 임은호 기자, 사진제공=포교사단

# '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 격론 끝 이월

## 조계종 중앙종회 제228회 임시회서 찬반 갈려

**개정 취지 "종단 인재 풀 확대"**
**만당 스님 외 38인 발의했지만**
**"삼권분립 훼손" 등 반대의견도**
**의결정족수 '52명' 부담 큰 듯**

**교구장 권한 축소 법안도 이월**
**"본사주지 의견 더 들어보기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의 총무원 교역직 종무원 겸직금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헌 개정안이 격론 끝에 이월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는 9월 12일 개원한 제228회 임시회에서 만당 스님 외 38인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종헌 개정안을 이월키로 했다. 대표 발의자 만당 스님은 "중앙종회의원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종무행정에 적극 활용해 종단 발전에 도움이 되자는 취지"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회의에서는 의원스님들 간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가장 먼저 진화 스님은 1994년 개혁 당시의 삼권분립 의미를 짚으며 "종회의원이 사서실장을 비롯해 웬만한 부실장을 다 맡을 수 있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에 만당 스님은 "부실국장 임명권은 총무원장에게 있고, 종회의원 일색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지만 장관이 되면 국회활동을 알아서 자제한다"고 설명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오심 스님은 "이번 분한신고에서 스님들이 2000명이 줄었다. 출가자가 줄고 고령화되는데 30년 전 개혁을 지금 논하는 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종헌종법특위 위원인 현무 스님은 "이 법으로 인해 얻을 효과와 반대급부를 잘 생각해야 한다"며 "기우일 수도 있지만 미래에 과오가 발생할 수 있다면 다시 생각해볼 일"이라고 반대 의견을 전했다.

도성 스님은 종헌 개정안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종단 행정에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정범 스님은 반대로 "수십 년간 이어온 견제와 균형이라는 종법 체계를 한두 조항만 고쳐 무너뜨려선 안 된다"고 말하며 찬반이 계속됐다.

이처럼 회의에서는 1994년 개혁 당시의 삼권분립 의미, 중앙종회의원의 과대한 권한 확대라는 반대 의견과 시대 변화에 따른 인재풀 확대, 교역직 겸직으로 얻는 시너지라는 찬성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혔다.

이에 따라 대표 발의자 만당 스님은 종헌 개정안의 이월을 요청했고, 중앙종회는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이월키로 했다. 종헌 개정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회의 분위기상 반대의견이 적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적의원 77명 중 52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출석의원이 68명에 불과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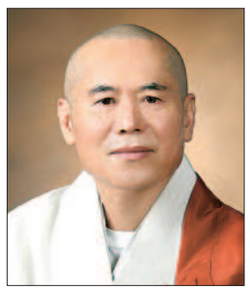
본사주지의 임기를 3선으로 제한하는 지방종정법 개정안,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집권자가 산중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소집요구자들이 산중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산중총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이월됐다.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회의에선 종회의원 권한 확대 요소가 담긴 종헌 개정안을 다루면서 본사주지의 권한은 축소하는 법안들이 연달아 나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주요 인사안에서는 새 중앙선관위원장에 추천된 직할교구 태성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재심호계위원인 화엄사 진만 · 봉선사 인묵 스님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으로는 각각 두 스님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또한 중앙선관위원으로는 용주사 탄정 스님, 종립학교관리위원에는 봉선사 환풍 · 용주사 탄원 스님이 선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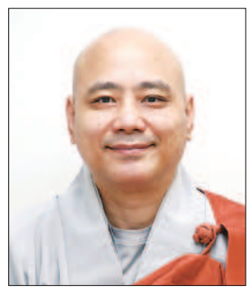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후보자로 복수 추천된 백양사 원철 · 화엄사 영일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후보자로 복수 추천된 은해사 돈관 · 성원 스님은 모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중앙종회는 이어 종정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은 무량회 회장 일화 스님을 선출했다. 한편 이날 모든 안건을 처리한 중앙종회는 5일간의 회기를 앞당겨 개원 하루 만에 폐회했다. 〈관련 기사 2면〉

# 조계종 교육원장 범해 스님
#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

## 중앙종회 임시회서 만장일치로 선출



범해 스님



선업 스님

조계종 신임 교육원장에 범해 스님, 포교원장에 선업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는 9월 12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에서 이같이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교육원장은 혜일 스님이 지난 2월 사직하면서 현재까지 공석이 이어졌다. 또한 포교원장은 범해 스님이 교육원장에 추천되면서 포교부장인 선업 스님이 추천됐다.

범해 스님은 제10대 교육원장으로 선출된 뒤 "종회의원스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종단 교육, 스님 교육에 한 치도 소홀함이 없게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이어 제9대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포교 원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하겠다. 종회의원스님들 말씀을 잘 새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범해 스님은 성원 스님을 은사로 1980년 수계했다. 해남사 · 무룡사 주지, 총무원 문화부 문화국장을 거쳐 제14 · 15 · 16 · 17대 종회의원과 제17대 중앙종회의장을 지냈다. 제8대 포교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약사사 주지를 맡고 있다.

선업 스님은 진철 스님을 은사로 1989년 수계했다. 황룡사 · 통담선원 주지, 포교원 포교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충정사 주지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 모로코 강진에 불교계 애도 · 구호 손길

## 진우 스님, 9월 11일 애도 메시지
## "국민 구호 · 지원 적극 나서겠다"
## 상진 스님도 극락왕생 발원 위로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강타한 지진으로 사상자가 수천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불교계에서 애도와 지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11일 '모로코 강진 피해 애도 및 지원 성명'을 내고 "강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로코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9월 8일 120년 만에 모로코를 덮친 진도 6.8의 지진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사를 달리 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면서 "아직도 잔해에 갇혀 계신 실종자 분들이 무탈하게 생환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도 같은 날 "태고종 사부대중은 불의의 강진으로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과 극락왕생을 빌며, 부상자들도 하루 속히 치유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아름다운동행은 회의를 통해 선발대를 급파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지진 재난과 관련, 긴급모금도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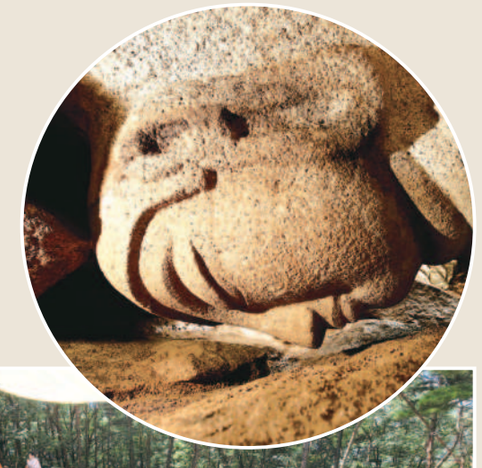
모로코 긴급모금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하나은행 271-910006-64104)과 더프라미스(하나은행 105-910014-80104)에 후원할 수 있다. 두 곳 모두 삶의 터전을 잃은 모로코 국민을 위해 식량과 의료물품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임은호 · 김내영 기자

**알립니다** 제1453호(9월 27일자)는 특집호 제작과 추석 연휴로 인해 배송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혜량을 바랍니다.

천년을 세우다

# 열암곡 마애부처님 친견 순례기도 안내



매일 사시에 기도법사 스님이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천일기도 및 축원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첫째주 토요일 전국교구본사 주지스님을 법사로 모시어 다라니 108독송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스님과 불자들의 순례기도를 통해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불교중흥, 국운융창을 발원하는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순례안내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게시판 (QR코드 참조)
문 의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02-737-0862 / 010-9454-0862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기도 접수 안내

- 천 일 기 도 : 2023. 4. 28(금) ~ 2026. 1. 21(수)
- 기 도 법 사 : 환풍스님·선우스님
- 기 도 신 청 : 전국 사찰 종무소(수시접수)
- 기도동참비 : 100일 10만원 / 1년 30만원 / 1000일 100만원
  - 매일 동참자 축원기도 올립니다

※ 열암곡 다라니 108독송 기도 : 매월 첫째주 토요일 사시에 교구본사 주지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다라니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천년을 세우다」 후원동참 : 농협 301-0248-0882-41 (예금주 : 아름다운 동행)
ARS : 060-700-0012 (한통화 3천원) 문의 : 02-6273-0108(아름다운 동행)



「천년을 세우다」 주요사업 :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명상센터 건립 / 미래세대 인재양성 / 교구(지역불교) 활성화 / 출가장려위원회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

# 종단·사찰 종무행정 편의성 개선

## 228회 임시회 조계종 종법 이렇게 바뀝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회 제228회 임시회서는 총 11개의 종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종헌 개정안 연동법인 중앙종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교구본사주지와 관련된 지방종정법·산중총회법 개정안은 이월됐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많은 종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변화된 종법 내용을 정리했다.

###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상시'로

연 2회(2월·8월)로 규정하고 있는 중앙종회의원의 보궐선거와 재선거를 상시적으로 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됐다. 의정활동의 장기간 공백을 막기 위해 중앙종회의원 궐위 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궐위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 말사주지 품신권 악용 불가

그동안 사설사암 주지후보자는 창건주 권리자가 교구본사주지에게 추천서를 보내면 본사주지가 총무원장에게 품신해야 했다. 특히 말사 주지가 궐위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말사주지를 품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이유로 주지 품신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더 이상 말사주지 품신권을 악용할 수 없도록 사찰법과 지방종정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구본사주지가 말사주지 품신 신청을 접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총무원장에게 품신하지 않은 경우, 사설사암 창건주 권리자는 교구본사를 거치지 않고 총무원 총무부에 말사주지 품신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찰 특별회계 타회계로 전출 가능

사찰의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는 전출할 수 없었다. 특히 직영상가, 템플스테이, 영구위패 사업 등에 관련된 특별회계는 매년 수익금이 적립되면서도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출이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찰예산회계법이 개정됐다. 이제는 종령에서 정한 특별회계는 타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또한 사찰등급 8등급 이상인 경우 종무 및 경리·회계담당 종무원을 둬야 한다.

### 불가피한 은사 이연 가능하게

은사가 환계 또는 탈종한 경우 도제가 은사로부터 지도와 교육,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기존 종법에선 '퇴속'이라는 불분명한 용어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승려법이 개정됐다. 이제는 사미·사미니의 경우 사승이 사망, 환속, 환계, 탈종, 제적, 멸빈으로 인해 승려의 분한을 상실했을 때는 다른 사승을 정할 수 있다. 또한 비구·비구니는 사승이 환속, 환계, 탈종, 멸빈으로 분한 상실했을 때 새로운 사승을 정하고 사승의 재적본사로 이적할 수 있다.

### 문화재구역입장료 감면에 따른 변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문화재보유사찰 대부분이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감면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기 위해 법안들이 개정됐다. 감면에 대한 보조금은 '불교문화유산 지원금'으로 명명했으며, 관람료분담금은 '문화유산분담금'으로 변경됐다.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에는 문화재구역 입장료 감면(제17조) 부분을 신설하고 교육불사 지원금 등을 명기했다. 더불어 연동되는 분담금납부에관한법·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에 우봉 스님

## 총무원장 진우 스님 "대소사 해박한 경험 갖춰"



조계종 총무원 신임 기획실장에 前중앙종회 사무처장 우봉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이로써 제37대 집행부 2기 부실장 진용은 모두 갖춰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우봉 스님에게 기획실장 임명장을 전달하고, 종단 발전을 위한 역량 발휘를 주문했다.

진우 스님은 "우봉 스님이 종단 각 주요 소임을 봐왔고, 종책 입법에도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며 "직할사찰 주지로서 종단의 행정과 포교 등 여러 면에서 능력을 보여 기획실장 소임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누구보다 종단 대소사에 해박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만큼 종단의 내실을 탄탄하게 만드는 데 능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우봉 스님은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역량을 다해서 종단과 총무원장스님, 종도들을 모시고 살겠다"고 다짐했다.

우봉 스님은 법장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4년 수계했다.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과 호법국장, 사서실 사서국장, 기획실 감사국장, 영랑사·문수사·호압사 주지를 역임했다. 제16·17·18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제17·18대 중앙종회사무처장을 지냈다. 현재 화계사 주지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 "200명 출가 시대 열겠다"…출가장려위 출범

## 진우 스님, 9월 8일 위촉장 수여
## 위원장 혜일 스님 등 10명 위촉
## 종단적 대중 공의 형성 등 추진


출가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종단 기구인 '조계종 출가장려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현재 불교는 '출가 절벽 시대'를 맞이했다. 조계종 출가자 수는 2000년 528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 지난해는 61명만이 출가했다.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연간 출가자 100명 선이 붕괴된 것이다.

사실 조계종은 2010년대에 들어서며 출가 홍보 사업을 진행해왔다. 출가 홍보 홈페이지 신설부터 출가상담사 운영, 청년출가학교, 출가콘서트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했지만 출가가 확대로 이어지진 못했다.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출가 장려 사업에 대한 책임이 승가교육 행정 기구인 교육원에 집중돼 있었던 점도 큰 문제 중 하나였다. 출가 장려 대상은 재가 청년불자이기 때문에 포교 사업과의 연계가 필수였지만, 이 같은 연계가 눈에 띄게 이뤄진 적은 없었다. 그렇기에 출가자 확대를 위한 종단적 '출가 TF' 구성이 제안돼 왔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는 '발등의 불'이 된 출가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종단적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출가장려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장 혜일 스님을 비롯한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37대 집행부 핵심 종책을 다루는 미래본부 산하로 구성되는 출가장려위원회 위원으로는 △군종특별교구장 능원 스님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장 덕현 스님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장 정운 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성화 스님 △교육원 교육부장 지우 스님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명 스님 △쌍계총림 쌍계사 율감 승덕 스님 △전국비구니회 문화포교부장 동환 스님이 참여한다.

출가장려위원회는 출가자 감소의 위험성을 알리고 출가 장려를 위한 대중공의 형성, 관련 종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원·포교원·군종교구·한국불교문화사업단 등 각 종무기관 출가 관련 사업 공유와 협의도 진행한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출가장려위원회를 오래 전에 구상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진용을 갖춰 공식 출범하게 됐다"면서 "출가자 확대는 정말 필요한 종책 과제임에도 이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위기 속에서 지혜의 방안을 찾아야 하는 만큼 위원들이 합심해 대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가장려위원장 혜일 스님(해인사 주지)은 "교육원장으로 재직 당시 출가 장려 정책을 최우선 종책으로 상정해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자리를 옮기게 됐다"면서 "여러 위원스님들과 함께 총무원장스님의 뜻을 받들어 출가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교육원장에 취임하면서 '5년 내 연간 출가자 200명 시대를 열겠다'고 발원했다. 출가장려위원장으로서도 '연간 출가자 200명 시대'를 5년 내로 열겠다는 발원을 다시 세우고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위원스님들도 출가 장려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군종특별교구장 능원 스님은 "군종병 출가자들도 적지 않다. 이를 감안하면 군포교는 출가의 황금어장이기도 하다. 이를 감안해 출가 장려 정책을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장 덕현 스님은 "출가 장려 정책에 대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포교분과위원장 정운 스님은 "30년 동안 청소년 포교를 하며 생긴 노하우를 위원회 활동에 접목해 종단 출가 장려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은 '천년을 세우다' 기금 5000만원을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다. 신중일 기자

# 남북 불교문화유산 연구에 박차

##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교류연구위원회 발족

### 최태선 등 전문가 10명 위촉
### 北 8대 본산 등 콘텐츠 연구


남북 불교문화유산 교류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학계 전문가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가 남북 불교문화유산 관련 콘텐츠 발굴·개발을 위해 교류연구위원회를 발족했다. 민추본은 9월 13일 서울 전법회관 3층 보리수 회의실에서 '남북 불교문화유산 교류연구위원회'를 발족,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불교미술, 불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학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민추본의 2021~2022년 금강산 평화순례길 연구사업과 2022 남북 결연사찰 연구조사를 함께 진행한 연구진이기도 하다. 위원으로 강호선 성신여대 사학과 부교수,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박순 경북불교문화원 상임이사, 천명희 국립안동대 국문학과 교수, 최태선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문화재전공 교수, 김성연 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 초빙교수, 유근자 동국대 미술학부 초빙교수, 이경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이현수 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 허정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초빙교수가 참여한다.

이들은 향후 남북 불교문화재 교류, 사찰 간 교류 협력 등 유무형의 다양한 남북 불교문화유산 교류 콘텐츠 연구한다. 특히 북한의 8대 본산을 포함한 주요 사찰을 중심으로 남북한 불교계가 함께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축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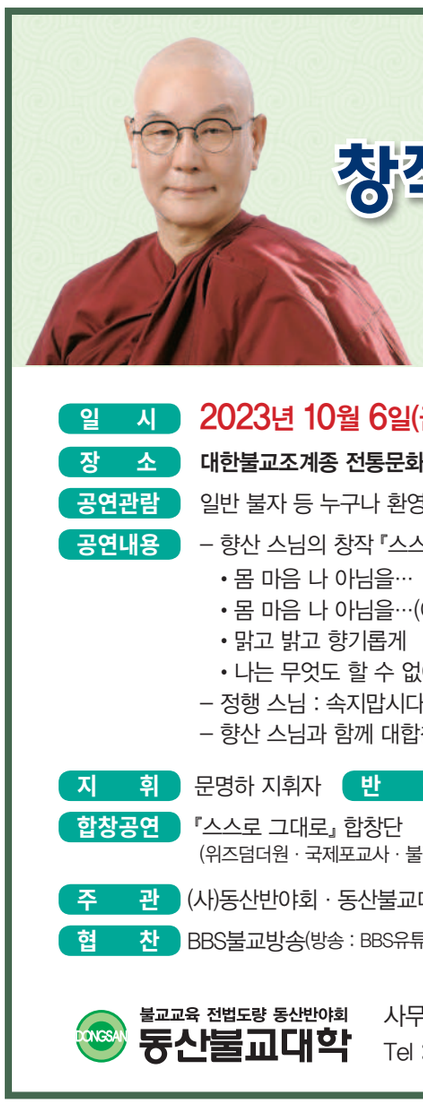
이날 민추본 사무총장 덕유 스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본부장 태효 스님을 대신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김용태 교수는 "조선시대 불교사를 전공했는데, 북한의 불서 조사가 평생의 꿈이다. 교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깊이 있는 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유근자 동국대 교수는 "신계사 복원 당시 지표조사부터 함께했다. 금강산 불교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다"고, 허정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는 "금강산 관련 연구를 통해 북한 불교와 사찰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위원 위촉식에 이어 1차 위원회 회의가 비공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최태선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올 하반기와 내년 연구 주제 및 향후 위원회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김내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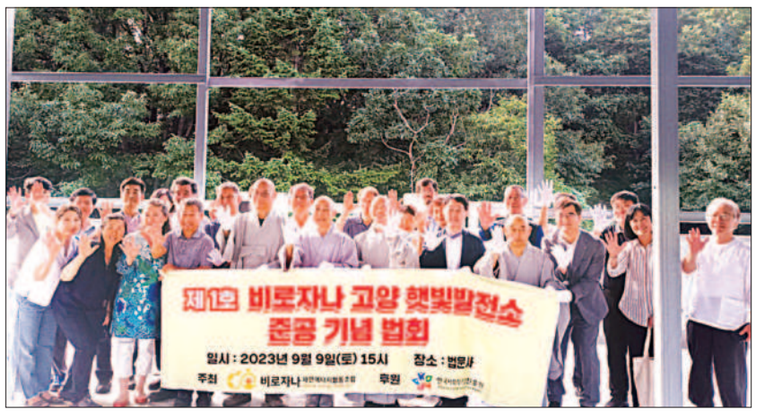


# 제1호 '불교 햇빛발전소' 탄생

## 비로자나자연에너지협동조합, 고양 법문사에 건립

**9월 9일 사찰 옥상서 준공식**
**1년에 5만7000㎾ 생산 기대**
**탄소 71t 절감·2호기 추진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고양 법문사 옥상에 설치된 불교계 제1호 햇빛발전소 아래서 조합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연에너지 생산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불교계 최초 햇빛발전소가 고양 법문사에 건립됐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부설 비로자나자연에너지협동조합(이사장 종범)은 9월 9일 고양 법문사에서 '제1호 비로자나고양햇빛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비로자나자연에너지협동조합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 조합활동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고자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이후 고양시 법문사에 제1호 발전소 설치를 계획하고 발전사업 허가, 시공 등을 거쳐 이날 준공식을 했다.

발전소 건립은 65명의 조합원이 마련한 6500여만원의 출자금으로 이뤄졌다. 제1호 발전기는 법문사 건물 옥상에 설비용량 42.42㎾로 건립됐다. 1년에 약 5만7000㎾의 전기를 생산하며, 이는 71t의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양이다.

준공식은 개회사, 내빈소개, 경과보고, 축사, 감사장 전달, 발전소 소개,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의 '기후위기시대 태양광 산업의 전망과 과제' 강의, 축하공연, 발전소 테이프 커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비로자나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종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법문사 주지 일문, 삼천사 동출 스님과 김회철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송원근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해 제1호 발전기 건립을 축하했다.

조합 이사장 종범 스님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10월에 창립총회를 하고 11월에 설립등기를 낼 때는 13명의 조합원, 출자금 2100만원으로 출발했는데 어느덧 65명의 조합원이 출자금을 모아 부채 없이 제1호 발전소를 건립하게 됐다"며 "규모는 크지 않지만 불교계 최초로 사찰에 태양광발전소가 세워졌다는 데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이미 개발된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앞으로도 햇빛발전소를 통해 에너지전환에 기여하면서 사회적 공익활동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은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조합들 중에는 아직 부지도 마련하지 못한 곳이 있다는데 우리는 벌써 1호기를 준공하고 2호기 부지까지 마련했다"며 "2호기, 3호기로 거듭 발전소를 늘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면서 부처님 평등과 무소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모델로 우뚝 설 수 있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원불교에 기반을 둔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송원근 이사장도 "불교계에 에너지협동조합이 없어서 늘 아쉬움이 있었다"며 "비로자나에너지협동조합이 빈 곳을 채워 부처님의 생명존중 사상을 널리 펼쳐갈 수 있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제1호 햇빛발전소를 위해 흔쾌히 법문사 옥상을 내어준 주지 일문 스님에게는 감사장이 수여됐다. 일문 스님은 "1기 발전소 건립을 시작으로 많은 발전소가 세워져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참석자들은 발전소가 설치된 옥상으로 자리를 옮겨 기념 커팅식을 한 후 행사를 마무리했다.

비로자나에너지협동조합은 안산 화림선원 주차장을 이용해 45.45㎾ 용량의 제2호 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이다. 9월 중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고 올해 안에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 불교방송 사장 선임 보류…안건 상정 안해

**9월 13일 제120차 이사회**
**"종단과 숙의 필요" 이유로**
**천태종 시용 스님 이사 선임**



BBS불교방송(이하 불교방송) 신임 사장 선출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보류됐다. 불교방송 사장 선임에 대해 종단 등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불교방송 이사회(이사장 덕문)는 9월 13일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제120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이사회는 이사장 덕문 스님과 상임이사 현민 스님을 비롯해 주경 · 수불 · 월우 · 성행 · 향성 스님, 도진 · 능원 · 우인 정사, 이한구 · 노부호 · 정주교 · 박기동 · 엄상호 이사 등 재적 이사 21명 중 18명이 참여해 성원됐다.

회의에서는 △임원 선임의 건 △불교방송 사장 선임의 건 △2023년도 상반기 감사결과 보고의 건이 올라왔으나 '불교방송 사장 선임의 건' 안건 상정에는 제동이 걸렸다.

이사 주경 스님은 "불교방송 사장 후보에 대해 종단 안팎에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안건을 상정해 혹시 부결되면 후보자들에게도 실례다. 좀 더 논의를 거치고 숙의한 뒤 안건을 상정했으면 한다"면서 사장 선임에 대한 안건을 보류할 것을 제안했다.

주경 스님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힌 성행 스님은 "대한불교진흥원에서 추천한 사장 후보들에 대한 종단적 교분이 없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안건을 상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님 · 정사 이사들의 동의로 '불교방송 사장 선임의 건'은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사회 회의 안건으로는 △임원 선임의 건 △2023년도 상반기 감사결과 보고의 건만 상정됐다.

신규 임원으로는 지난 8월 천태종 총무부장으로 임명된 시용 스님이 이사로 선임됐다. 시용 스님은 1984년 대충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한 뒤 천태종 총무원과 전국 주요 사찰의 주지 소임을 맡아 종단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 3급 중대사(重大師) 법계를 품수했다.

또한 이사회는 임기가 만료되는 김문석 감사의 재임을 의결했으며, 상반기 감사 보고를 받고 회향했다.

신중일 기자

# "젊은 세대 맞춘 친숙한 불교 만들어야"

**동국대 건학위, 9월 12일**
**건학이념구현 교수 간담회**
**불교학부 등 5개 학과 참여**
**대학생전법 위한 의견 나눠**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는 9월 12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건학이념구현 관련학과 교수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국대 건학이념구현 관련학과 교수들이 대학생 전법 등 청년불자 양성을 위한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이하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9월 12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건학이념구현 관련학과 교수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학이념구현 관련학과는 불교학부, 문화재학과, 사회복지학과, 불교미술전공, 한국음악과 등 총 5개 학과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캠퍼스 내 다양한 학과 중 불교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학과 교수진들이 모여 현재 한국불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불자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각 학과별 주요 현안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은 "상월결사가 한국불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 아홉스님의 결사를 시작으로 올해 43일간 1167㎞의 부처님 성지순례를 마쳤다"며 "그 어느 때보다 청년불자를 양성하기 위한 전법과 포교가 매우 중요하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 교수님들의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으고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건학이념과 관련된 학과 교수님들이 모두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다"며 "건학이념 구현과 관련한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불교중흥과 동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건학이념구현 관련학과의 교육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학과 교수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도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교수들은 공통적으로 경험과 체험을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에 맞춰 불교와 관련한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친숙한 불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돈관 스님은 "건학이념 구현 관련학과 교수님들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린다. 현실화될 수 있는 의견들을 잘 다듬어 최근 한국불교의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인 '대학생 전법'을 위한 실천적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건학이념구현 관련학과 교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신중일 기자

#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천년을 세우다' 동참

## 지원장 혜도 스님 · 신도회 1000만원 기탁

**진우 스님 "따뜻한 마음에 큰 힘"**
**혜도 스님 "원력 동참 기회 삼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 신도회 임원들과 기념촬영 하는 모습.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이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천년을 세우다' 불사 원만 회향을 기원하며 정성을 보탰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9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현대불교신문사 사장)과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 이동진 부산지원 신도회장 및 신도회 임원 등이 함께했다.

혜도 스님은 "법당 내 모금함을 통해 신도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기금"이라며 "총무원장 스님께서 열암곡 부처님을 바로 세우겠다는 뜻을 세우시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에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따뜻한 마음을 내주셔서 큰 힘이 된다"며 "불교가 지금까지 유구한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분들과 같은 불자들이 함께해 준 덕분"이라고 치하했다. 스님은 이어 "불교가 번성했던 통일신라 때에는 나라와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했었다"며 "열암곡 부처님을 바로 세워 다시금 불교가 융성하고 나라에도 평온이 꽃피울 수 있길 기원하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우주생명을 살리는 사찰음식

2023 제14차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은 자연의 맛과 나눔의 마음을 함께 하는 축제입니다.
올해는 '우주생명을 살리는 사찰음식'이라는 주제로 현대의 화두인 환경문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준비하여 자연과 생태, 우주의 생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찰음식의 이익을 대중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모든 생명이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한 축제의 마당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23년 10월 6일(금요일) ~ 10월 7일(토요일)
▶장 소 : 수원 봉녕사 경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6-54)



YouTube 봉녕사
※ 본 행사는 봉녕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시 간 | 10월 6일(금) | 10월 7일(토) |
|---|---|---|
| 07:00~09:00 | 사찰음식 전시 및 경연대회 세팅 | |
| 09:00~09:30 |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식 및 평가 09:00~10:10 육화당 | 금비라 졸업식 09:00~09:30 대적광전 |
| 09:30~10:00 | | 차명상 09:30~10:30 부도탑 앞 |
| 10:00~10:30 | 두부 만들기 시연 퍼포먼스 10:20~11:00 대적광전 앞 | |
| 10:30~11:00 | | 육법공양 10:30~11:00 불탑 앞 |
| 11:00~11:30 | 차명상 11:00~12:00 도서관 2층 | 선재스님 사찰음식 특강 11:00~12:00 야외무대 |
| 11:30~12:00 | | 탁발시연 12:00~12:30 도량 내 |
| 12:00~12:30 | 육법공양 12:00~12:30 금탑 앞 | |
| 12:30~13:00 | 사찰음식 실습강좌 법송스님(더덕대추전, 우엉찹쌀전) 12:40~13:30 야외무대 | 사찰음식 실습강좌 선재스님(배추김치, 좁쌀알타리) 12:40~13:30 야외무대 |
| 13:00~13:30 | | |
| 13:30~14:00 | 탁발순례 13:40~14:20 도량 내 | 조선마술패, 우담화합창단 리허설 시상식 준비 13:30~14:20 야외무대 |
| 14:00~14:30 | | |
| 14:30~15:00 | 무아(無我)차회 (헌다와 나눔 찻자리) 14:30~15:30 금탑 앞 | 1부 :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상식 신도회 공덕상 시상식 2부 : 조선마술패 공연 우담화합창단 공연 14:30~16:30 야외무대 |
| 15:00~15:30 | | |
| 15:30~16:00 | | |
| 16:00~16:30 | | |
| 16:30~17:00 | 판매 종료 | 행사 · 판매 종료 |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주관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 운영위원회 후원 경기도 수원시 SUWON CITY

# “웃음·감동 있는 템플스테이 여정, 드라마로 만나요”

## ‘4기 불교크리에이터’를 만나다 ⑤차준호 감독

**‘불교’ 대한 다양한 궁금증 풀어내**
**포스터·OST 제작·시사회도 계획**
**딱딱·어려운 불교 이미지 바꿔줄**
**인간미 넘치는 영상 심혈 기울여**
**“출가 장려 다큐도 기대해달라”**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최근 10분 이내의 짧은 스토리로 구성된 영상들이 유튜브 등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스토리에 정보를 담고 감동과 메시지까지 전달하기에 최적 콘텐츠죠. 불교 철학이나 사상, 삶의 방식 등을 콘텐츠화해 자연스럽게 노출하면 불교도 더욱 대중들에게 친숙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불교 크리에이터 4기 차준호 감독의 웹드라마 ‘템플스테이(가제)’의 탄생은 넷플릭스의 한 인기 드라마에서 시작됐다. 차준호 감독은 ‘더 글로리’에서 청주 용화사가 배경으로 나온 모습을 보고 처음 웹드라마 ‘템플스테이’를 구상했다. 최근 들어 인기 영화나 예능 콘텐츠에 불교가 소재로 다수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차 감독은 때마침 불교 크리에이터 4기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이거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웹드라마 ‘템플스테이’는 여자 주인공 희진이 여름휴가를 맞아 떠난 사찰에서의 1박 2일 여정을 담았다. 새벽예불과 공양, 사찰 생활 등 평소 차 감독이 가졌던 ‘불교’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이야기로 풀어냈다. 8월 말, 남양주 봉선사에서 촬영을 마쳤고 현재 편집과 음악 작업에 한창이다. 드라마 종합편 1편과, 출연진 인터뷰와 제작 과정 등이 담긴 메이킹 필름 1편 등 총 2편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차 감독은 ‘템플스테이’가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길 기대한다. 크리에이터로서 의무적으로 만든 작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유튜브와 포털사이트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 마포에 위치한 한국영상자료원 상영관에서 시사회를 개최하고 포스터와 OST 제작, 음원 출시 등 체계적으로 마케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그야말로 ‘찐’ 드라마 제작 방식 그대로다.


차준호 감독의 웹드라마 ‘템플스테이’ 장면 中.

차 감독은 “어린이, 청소년, 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콘텐츠 보급과 활용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불교계에서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불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영화감독을 꿈꿨다는 차준호 감독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영화연출을 전공했다. 학부시절부터 다양한 영화제와 영상공모전에 응모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이력도 화려하다.

학생 때부터 홍보영상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졸업 후에는 프로덕션 등을 거치며 단편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왔다. 별개로 개인 유튜브 채널인 ‘차씨네 픽쳐스’를 운영하며 짧은 인터뷰와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기도 하다. 센스 있는 연출로 입소문이 나면서 다양한 기관에서 콘텐츠 제작과 관련 강의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30여 년 가까이 다양한 영상물을 만들어 왔지만 차 감독은 여전히 하고 싶은 작업들이 많다. 현재 장편영화를 준비 중으로, 시나리오 작업 마치고 현재 캐스팅 작업에 한창이다. 따뜻한 웃음과 감동의 눈물이 있는 휴먼코미디 영화를 만드는 것이 꿈이다.


작업실에서 편집작업에 한창인 차준호 감독.

**차준호 감독의 차씨네 픽쳐스**
https://www.youtube.com/channel/UCNyC8GWececlgt2yPHSvwHw

이번 ‘템플스테이’에도 웃음과 감동이 있는 인간미 넘치는 영상을 선보이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차 감독은 “딱딱하고 어려운 불교 이미지를 바꿀 뿐 아니라 포교콘텐츠 활성화에도 이번 웹드라마 템플스테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불교 관련 콘텐츠는 처음이기에 개인적으로도 좋은 경험”이라고 기대했다.

차 감독은 ‘출가’ 이야기에도 관심을 보였다. 불교크리에이터 4기로 함께 선발된 현밀 스님을 만나고 나서 “스님을 준비하는 과정을 다큐로 만들면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차 감독은 “출가를 주제로 한 다큐가 출가 장려에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라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출가 다큐도 기대해 달라”며 웃었다.

# 정승윤 공불련 회장 “부처님 가르침으로 국민 행복 증진”

**9월 9일, 조계사서 회장 취임식**
**“공불련 새로운 도약에 최선”**
**진우 스님 “사회 밝게 비추길”**

“나랏일을 부처님같이, 국민을 부처님같이, 우리도 부처님같이!”

제13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 회장으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취임했다. 공불련은 9월 9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13대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정승윤 회장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듬고 자신의 성불은 물론 나라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취임사에서 ‘발심(發心)의 중요성을 강조한 정승윤 회장은 “발심하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실 것이고, 저 또한 용기를 얻어 공불련 발전에 매진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윤 공불련 회장 취임법회가 9월 9일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그러면서 회장으로서 공무원 불자 조직의 재건과 활성화를 목표로 △불법 가르침 배우고 실천 △많은 공불련 회원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 전개 △행정기관 불자 조직 확대와 불자 공무원 수 늘리기 △부처님 가르침을 국민 위한 정책으로 반영 등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국 공불련 회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공불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정승윤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각가와 국민들을 위해 묵묵히 공무를 수행해온 공무원 불자들을 격려했다. 진우 스님은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되새기며 동체대비의 대자비를 실천해 나가야 할 때”라면서 공무원불자들에게 “발고여락(拔苦與樂)만이 불제자들 소명임을 바로 알아 고통에 빠진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적극적인 전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각계각층에서 정승윤 회장의 취임을 축하는 축사도 이어졌다. 이진복 대통령실불자회장은 “국회 정각회와 대통령실 불자회, 군불자 조직 등과 연대해 함께 신행활동 하자”면서 “불교를 넘어 국민이 원하는 바를 함께 실천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공무원 불자들은 임란희 행정안전부 불자회원이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깨달으며 ‘나랏일을 즐겁게, 국민에게 기쁨을’이라는 공불련의 목표를 다시 되새기겠다”면서 “공무를 성실히 수행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나라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발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가호를 내려달라”고 발원했다.

임은호 기자

# “생명나눔 가치 널리 알릴게요”

**생명나눔, 9월 12일 가수 진미령·임지민 홍보대사 위촉**

가수 진미령과 임지민이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새로운 얼굴이 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스님은 9월 12일 서울 본부 회의실에서 가수 진미령과 임지민을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사진〉

일면스님은 “오늘 홍보대사로 위촉된 두 분이 대중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면서 “방송과 무대에서 활약하면서 생명나눔의 가치를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진미령 씨는 “생명나눔의 가치를 알리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름만 홍보대사가 아닌 몸소 실천하는 활동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나눔의 의미를 전달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임지민 양도 “생명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중들에게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 “취업 걱정 마세요”…동국대, 취업박람회

**9월 11일 개막식… 22일 까지**
**삼성전자 등 127개 회사 참여**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동국대가 올해에도 대대적인 취업박람회인 ‘2023 Job & Career Festival’를 개최했다.〈사진〉

동국대(총장 윤재웅)은 9월 11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2023 Job & Career Festival’(이하 취업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삼성증권, 넥슨 등 한국 굴지의 기업 127곳이 참여하며 오프라인 박람회는 9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9월 22일까지 열린다.

개막식에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치사를 통해 “오늘 개막하는 취업박람회는 ‘등록금 없는 대학,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이라는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의 원력에서 시작했다”면서 “입학 후 학비 걱정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고, 졸업한 때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진출할 수 있 대학이 우리가 그리는 동국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문스님의 말씀대로 장학과 취업은 최고의 수확이자 동국의 결실을 나누는 일”이라면서 “학교법인은 학생들이 오직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사회에 진출해 더욱 빛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재웅 총장은 식사에서 “올해는 작년 취업박람회의 성과를 계승하는 한편 전교적인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번 취업박람회 기간 동안 주요 기업과의 상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동국대는 Job & Career Festival 기간 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등 학생 선호 기업에 재직중인 동문 재직자와 함께 하는 ‘온라인 동문 취업·직무 멘토링 ’멘토링 클라쓰’ △인사담당자와 취업준비생이 1대 1로 상담할 수 있는 ‘오프라인 취업박람회’ △비대면 채용상담이 가능한 ‘Metaverse 취업박람회’ △학과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진로 및 취업프로그램 ‘학과별 멘토링데이’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와 취업 관심도 제고를 위한 ‘명사 초청 특강’ 등 5가지 주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편, 동국대는 앞으로 가을학기 시작과 함께 취업박람회를 학교 대표 플래그쉽 행사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중일 기자

# 동산반야회 ‘스스로 그래도’ 합창 공연

**클리어마인드와 공동 주최**
**10월 6일 조계종 총무원서**
**향산 스님 창작곡 5곡 합창**

동산반야회·동산불교대학(이사장 정은용)과 (사)클리어마인드절명상센터는 10월 6일 오후 5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향산 스님 창작 깨달음의 노래 발표- 스스로 그대로 합창단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향산 스님의 창작곡 5곡이 발표된다. 향산 스님은 ‘스스로 그대로’ 절명상 수행을 하면서 떠오른 깨달음의 경구를 노래한 곡들을 창작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향산 스님은 △‘몸 마음 나 아님을…’ △‘몸 마음 나 아님을(아리랑)’ △‘속지맙시다’ △‘나는 무엇도 할 수 없어요’ △‘맑고 밝고 향기롭게’ 등 창작곡 5곡을 선보이며, 이 곡들을 불교계 5개 연합합창단이 함께 부를 예정이다.

공연의 특별출연자로 소프라노 성악가로도 유명한 부산 화명선원 주지 정행 스님도 참가한다.

한편, 이번 공연은유튜브로 생중계되며, 공연실황은 녹화해 BBS불교방송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 승가지도자 양성 위한 선불장 열린다

**선불장아카데미, 10월 6~9일**
**스님 20명 선착순…무료 진행**

한국불교 미래를 책임질 선백(禪伯) 양성을 위해 교육의 장이 마련된다.

선불장리더십아카데미(공동대표 마가·금강·월호·각산)가 10월 6~9일 안성 활인선원에서 ‘제2기 승가 선불장’을 개최한다. 승가 지도자를 양성을 위한 이번 선불장에서는 20명의 스님만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된다.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강의, 금강 스님의 참선습의, 월호 스님의 아바타·바라밀·아미타 명상 등이 준비돼 있다. 참선과 명상으로 대중포교에 선구자 역할을 해온 마가·금강·월호·각산 스님이 그간의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선불장 과정을 마친 스님들에게는 조계종 승려연수인증과정 30점도 주어진다.

재가자들을 위한 선불장 집중수행도 진행된다. ‘제2기 재가 선불장’은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안성 활인선원에서 열린다. 선착순으로 40명을 모집한다. 070-4457-5448

김내영 기자

# 현대인 위한 수행·포교 어떻게 할까

**한마음과학원, 승려연수 개최**
**6~8일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서**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은 9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에서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를 주제로 승려연수과정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승려연수과정에서는 ‘불교의 현대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소주제로 시대적 포교방안과 법회 운영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9월 6일에는 한마음과학원 운영위원장 혜찬 스님의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방안’ 강연과 박종래 서울대 교수의 ‘한마음과학’ 강연, 7일에는 황수경 동국대 교수의 ‘생활 속의 마음공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혜벽 스님의 ‘지혜를 밝히는 법회-기획부터 시연까지’를 통해 소그룹으로 전법현장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의 갈증 해소 시켰다. 또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혜자 스님의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강연이 진행됐다.



8일에는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장 혜근 스님의 ‘마음불사, 도량불사’ 강연과 함께 승려연수교육은 마무리됐다.

신중일 기자

#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 가을 ‘신메뉴’

**뿌리채소·열매·버섯 주재료로**
**“더위로 지친 몸 기력 회복”**

조계종이 운영하는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이 9월 11일부터 뿌리채소와 열매를 주재료로 사용한 가을 신메뉴를 선보였다.〈사진〉

올해 가을 메뉴는 더운 여름을 이겨내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해 뿌리채소와 열매, 각종 버섯으로 만든 요리를 준비했다.

선식(禪食), 원식(願食), 마음식(念食), 희식(喜食), 법식(法食) 총 5가지 코스메뉴를 선보이며, 코스별로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다.



땅의 기운이 가득 담긴 ‘우엉잡채’ ‘가을채소콩가루찜’ ‘인삼 튀김’ 등 뿌리채소 음식과 가을 대표 열매 밤을 활용한 ‘밤죽’ ‘은행경단잣즙’이 대표적이다. 또 버섯이 들어간 요리로는 ‘표고구이무침’ ‘능이버섯전’ ‘자연산송이구이’ 등이 있다. 후식으로는 환절기에 좋은 ‘도라지정과’와 계피나무 가지로 만든 ‘계지차’가 나온다.

김내영 기자



강화 전등사는 9월 10일 경내 특설무대 일원에서 '제18회 이주민 문화축제-아시아는 친구'를 개최했다. 사진은 올해 첫 선을 보인 '화합의 비빔밥 만들기' 행사. '아시아는 친구'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비빔밥 비비기 퍼포먼스 이후 축제에 참석한 1300명의 이주민들에게 비빔밥 공양이 이어졌다.


이주민 어머니와 자녀가 전통 혼례복 체험 후 셀카를 촬영하고 있다.


베트남 파주 법당 신도들이 무용을 선보이고 있다.


스리랑카 마하보디사 신도들이 전통 무용인 '캔딘 댄스'를 공연하고 있다.

# 강화에 울려퍼진 화합 메아리…"아시아는 친구"

## 강화 전등사, 9월 10일 제18회 이주민 문화축제

강화 전등사=신중일 기자

"아시아는 친구!"

강화도 정족산에 자리한 전등사(주지 여암) 일원에 화합의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강화 전등사는 9월 10일 경내 특설무대 일원에서 '제18회 이주민 문화축제-아시아는 친구'를 개최했다.

전등사의 이주민 문화축제는 회주 장윤 스님으로 발원으로 시작됐다. 장윤 스님은 태국 성지순례에서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던 현지인을 만나 한국에서 힘들었던 기억들을 전해 듣고, 귀국 후 이주민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이후 장윤 스님은 2005년 삼랑성 역사문화축제에 처음으로 이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이주민 문화축제가 시작됐다. 매년 거르지 않고 개최되던 이주민 문화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휴지기를 가졌지만, 종식 이후 지난해부터 축제가 다시 시작돼 그 규모가 이전으로 회복됐다.

또한, 전등사는 '인연지기'라는 단체를 창립해 한국으로 이주해 노동자로 살며 결혼하게 된 이주민 커플들에게 무료 결혼식을 열어주며, 한국의 정착을 돕고 있다. '인연지기'는 이주민 문화축제의 주관단체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날 축제에는 베트남, 태국,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줌머족 등 10여개 국가 1300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경내에는 동국대 일산병원과 경찰병원 봉사단이 무료 양·한방진료를 진행하는 부스가 마련돼 이주민들의 건강을 돌봤다. 또한 동방대학원대학원우회의 '위락치유'를 비롯해 사랑의 약손봉사단의 '발 마사지', 강화 다문화센터 가족봉사단의 '한국 전통 의상 체험', 강화로 닷컴의 '한국 전통 혼례복 체험' 등 체험 부스들이 마련돼 이주민들이 다양한 체험을 즐겼다.

본격적인 축제에 앞서 '화합의 비빔밥 만들기'가 진행됐다. 이번 축제에서 첫 선을 보인 '화합의 비빔밥 만들기'에서는 주지 여암 스님과 베트남·스리랑카·네팔스님, 내외빈들은 '아시아는 친구'라는 구호와 함께 커다란 그릇에 담긴 밥과 재료를 비벼 비빔밥을 완성했다. 완성된 비빔밥은 이날 모인 이주민들에게 공양으로 제공됐다. '화합의 비빔밥' 공양을 위해 이주민들은 장사진을 이뤘고, 1300명분의 비빔밥은 금세 동이 났다.

'화합의 비빔밥'을 준비한 한국 글로벌 셰프고등학교의 추상민 선생님(조리과)은 "이 같은 행사는 종종했는데, 전등사에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처음이다. 학생들에게는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여서 의미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비빔밥을 이주민들께서 너무 맛있게 드셔주셔서 요리인으로서 보람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 축제는 환영식과 트로트 가수 신대양 씨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각국 전통문화 공연으로 진행됐다.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 10개국 1300명 참여, 역대 최대 규모
### '화합의 비빔밥' 첫 선…공양하며 화합
### 각국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 '눈길'
### 여암스님 "세계는 하나된 화엄의 꽃밭"

환영식에는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과 전등사 대중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허허 스님, 국제포교사회 회장 정혜 스님, 베트남 인천 약사사 석심희·석심동 스님, 베트남 파주법당 각려효 스님, 네팔 서울법당 쿤상 도르제 스님, 스리랑카 마하보디사 우연·봉연·사라난가라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태산 강화부군수,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 최종찬 강화군의회 부의장, 윤희준 삼랑학원 이사장, 김진원 경기도 육상연맹 회장 등 지역 내외빈들도 함께했다.

주지 여암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함께 우의를 다질 것을 당부했다. 여암 스님은 "선종에는 '세계일화(世界一花)'라는 선어(禪語)가 있다. '세계는 하나'라는 의미인데, 자비로운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꽃과 꽃이 어우러진 하나의 꽃밭과 같다는 것"이라며 "오늘 열리는 행사가 아시아인들이 하나의 꽃밭으로 피어나는 축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이 축제가 정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이라며 "오늘 전등사라는 공간에서 만난 우리는 친구다. 오늘은 친구끼리 어깨동무하며 우정을 쌓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를 대신해 참석한 이태산 강화부군수는 축사에서 "강화군에서도 지원하는 행사이지만, 와서 보니 너무 마음이 뿌듯하다"면서 "내년 축제에는 강화군에서 공동 주최 또는 공동개최 단체로 참여하겠다. 전등사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축제 규모 확대를 약속했다.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도 축사에서 "이주민 문화축제는 회주 장윤 스님의 혼이 깃든 축제다. 이주민들이 자신의 문화를 한국에 알리고,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며 한국사회의 빠른 정착을 돕는 의미가 담겼다"면서 "전등사는 이주민 문화축제 뿐만 아니라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어르신 게이트볼 대회 등 지역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고 있다. 전등사의 노력에 강화군민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공연은 강화춤사랑의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베트남 파주 법당·네팔 동두천 용수사·미얀마공동체·스리랑카 마하보디사·베트남 원오도량·고려인문화원·줌머족 등 각국 사찰과 단체들이 고국의 전통 무용을 선보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스리랑카 전통 무용인 '캔딘 댄스'를 선보인 마하보디사 신도 미나두(23) 씨는 "전통무용인 캔딘 댄스를 고국에서 2년 동안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10여 년 동안 수련했다"면서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와서, 고국의 무용을 선보일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캔딘 댄스는 오래 전 아픈 환자의 쾌유를 기원하며 췄던 치유의 춤"이라며 "오늘 모인 대중들이 우리의 춤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이 치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친구와 함께 축제를 찾은 산자야(39) 씨는 "마하위하라 사원의 스님, 신도들과 함께 축제에 참여했다"면서 "친구들과 함께 모여 흥겨운 공연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었던 즐거운 하루였다"고 말했다.

친구 구마라(30) 씨도 "한국의 왕이 입었다는 전통 복식을 입어볼 수 있어 좋았다"면서 "내년 축제에도 참석할 생각"이라고 했다.

인천 약사사(화엄종) 석심희 스님은 이주민 문화축제를 개최해 준 전등사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석심희 스님은 "약사사 신도 90여 명과 함께 축제에 왔는데, 신도들이 모두 즐거워한다"면서 "한국불교가 다른 국가를 포용하는 축제를 열어줘 감사하다. '세계일화'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사찰음식 Korean Temple Food

# 2023년 사찰음식 소임자 교육 안내

2023년 사찰음식 소임자(공양간 소임, 원주스님, 템플스테이 및 사찰음식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찰음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찰 전통 식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하여 사찰음식 소임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신청 안내**

신청기간 각 교육 정원(20명) 마감 전 까지

신청 방법 1. 신청서 다운로드 : 사찰음식 홈페이지(www.koreatemplefood.com) → 소식통 → 공지사항
2. 스캔 후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접수(feeldoowon@templestay.com)

사찰음식 홈페이지 (교육신청서 다운로드)

참가비 무료

문의 02-2031-2056

안내사항 1) 정원 초과시 사찰별 참여인원 제한
2) 사찰음식 소임자 교육은 연 1회(1인 기준) 참여 가능
3) 정원 조기 마감 시 접수 마감일 이전에 종료될 수 있음

**교육 안내**

학습 목표 • 사찰음식 소임자(후원)의 역할, 자세 이해 및 마음가짐
• 사찰음식 소임자의 조리기술 이해 및 향상

교육시간 1박2일

교육내용 • 사찰음식과 공양간 소임의 이해
• 대중공양 및 명절/제사 사찰음식, 제철 사찰음식 등

교육 방법 • 대면 교육
• 시연 및 실습

교육 일정 하반기(10~11월)

| 지역 | 장소 | 유형 | 교육일정 | 강사 |
|---|---|---|---|---|
| 서울/경기권 | 남양주 봉선사 | 1박2일형 | 10월 12~13일(목~금) | 유화스님 |
| 영남권 | 대구 동화사 | 1박2일형 | 10월 5~6일(목~금) | 동희스님 |
| | | | 11월 2~3일(목~금) | |

※상세 내용(시간표 등) 및 안내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함께하는 팔관회'

## 부산불교연합회, 9월 10일 걷기대회 · 어울림 한마당

### 2000여 시민 걷기대회 참가
### 팔재계 부스 돌며 계율 새겨
### 팔관회 본행사 10월 21~23일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불교연합회는 9월 10일 부산 어린이대공원 일원에서 '2023 팔관회 걷기대회 및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사진은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어린이들이 걷는 모습.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보운)가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걷기대회를 통해 불교 대표 계율인 팔재계(八齋戒)를 알리고 생명 가치와 계율 실천을 강조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9월 10일 부산 어린이대공원 일원에서 '2023 팔관회 걷기대회 및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연합회는 이날 부산어린이대공원 내에 팔재계 실천 부스를 8개로 나눠 설치하고 운영했다. 각 부스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천태종 부산 삼광사,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부산 금정산 금용사, 진각종 부산교구청,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태고종 부산종무원이 맡았다.

참가자들은 걷기대회에서 코스를 돌며 각 부스에 방문할 때마다 참가 인증표에 도장을 찍고, 계율에 담긴 의미를 되새겼다. 아울러 참가 보시금을 부스 운영 단체 후원함에 넣어 자비행을 실천했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스님들은 체험부스를 운영한 단체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참가 시민들을 위한 경품 추첨과 흥겨운 어울림 한마당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보운 스님,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 상임부회장 마나 스님, 현강 정사,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범수 스님, 사무부총장 동암 스님, 대각 스님을 비롯해 부산시민 2000여 명이 동참했다.

회장 보운 스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은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진리의 가르침"이라며 "때가 아닐 때 먹지 말라는 마지막 계율을 보며 현대인들의 소비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지구촌에 굶어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이번 '걷기대회 및 어울림 한마당'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팔관회 시작을 알렸다. 팔관회 본 행사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금정총림 범어사 일원에서 진행된다. 21일에는 먼저 선재동자 문화전승단의 팔관재계 수계법회와 마정수기 법회를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봉행한다. 이어 22일에는 고려시대 호국의식으로 진행된 팔관회의 정신을 계승해 호국기원법회를 봉행하고 호국을 주제로 진행하는 공연 백희가무가 펼쳐진다. 23일에는 고려복식을 입고서 호국영령위령재와 팔관재계 수계법회를 전통방식으로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11월 11일 오전 11시에 부산 모든 사찰은 호국영령 및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한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에 동참한다. '턴 투워드 부산'은 2007년 캐나다의 빈스 커트니(Vince Courtenay, 한국 전쟁 당시 종군기자)가 제안한 추모행사다. 해당 시간에 부산 지역 각 사찰은 범종과 목탁, 죽비 등을 1분 동안 11타를 치고 경내 모든 사부대중은 유엔공원을 향해 1분간 묵념한다.

# "대학생 포교 모범 템플스테이" 한 목소리

##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4개 대학 불교동아리 템플스테이 개최

### 부산 · 창원 · 경상 · 동아대 등 학생들이 먼저 선원에 요청
### 3~4월 체험 당시 호평 받아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마련한 템플스테이에서 촛불재 시간에 명상을 체험하는 학생들.

"생각이 많을 때 엉켜있는 생각들을 잘 풀어내고 싶습니다."

젊은 날의 고민을 안고 사는 청춘들이 길을 묻고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을 찾았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은 9월 9일부터 1박2일간 '명상 특집 여행-대학생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부산대, 창원대, 경상대, 동아대 등 부산과 경남의 대학교 불교 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대학생 18명이 참석했다. 앞서 3월과 4월 두 차례 진행된 템플스테이에서 도움을 받은 학생들의 요청으로 다시 템플스테이가 마련됐다.

대학생들이 직접 템플스테이를 다시 요청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템플스테이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 나누기, 염주 만들기, 명상 등 참여형 프로그램과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풀어내고 고민에 깊이 공감해주며 해법을 스스로 찾게 이끌어 주는 열린 프로그램이 인기 비결이다.

이번 템플스테이 첫 프로그램은 가벼운 안부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됐다. 대화의 주제는 방학을 보내고 학교에 간 소감,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 등이었다. 다양한 참가자들과 1:1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며 마음의 문을 열어갈 수 있었다.

이어진 시간은 명상여행으로 참가자를 3개의 조로 나눠 △공감 토크 △나는 지혜 재생처 △지혜 소통 카드 등 3개의 방을 여행하며 체험하는 코너였다. '공감 토크'는 스님이 참가자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먼저 들어주고 마음을 헤아려주며 한 명 한 명에게 피드백하는 공감의 시간이었다.

'나는 지혜 재생처'는 직접 염주를 만드는 시간. '지혜 소통 카드'는 자신의 습관, 인간관계에 관계된 카드를 선택해 카드에서 묻는 질문에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고 서로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리였다. 이어 1시간 동안 진행된 촛불재는 부정적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엄마의 마음으로 보살피는 시간이었다.

이혜원 학생은 회향식에서 "명상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5분도 제대로 못하고 포기한 적이 많았다. 어제 스님 지도로 촛불재 명상 때 마음을 내고 앉아 있었는데 시간가는 줄 모르고 힘든 줄도 몰랐다"며 "명상을 직접 해보니 생활에서도 명상을 습관화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건우 학생은 "이번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2년간의 불교동아리 활동 중 가장 의미 있고 완성도가 높았다"며 "청년 대학생 포교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은 "탈종교화 시대에 대학생 청년들은 대한민국 불교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한마음 관법을 활용한 포교로 불교의 미래를 가꾸어가겠다"며 인재불사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의 템플스테이는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입소문으로 내년 3월 인하대 불교학생회의 참여가 예정되어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교육원이 9월 7일 부산불교교육대학 교육관에서 '붓다볼(싱잉볼) 명상지도사' 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 싱잉볼로 배우는 호흡명상

## 부산불교교육대학, 싱잉볼 명상지도사 과정 개강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 승려교육원이 9월 7일 부산불교교육대학 교육관에서 '붓다볼(싱잉볼) 명상지도사' 과정을 개강했다. 승려교육원은 앞서 스님들이 각 사찰에서 직접 명상을 지도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싱잉볼을 명상 도구로 활용하는 '붓다볼 명상지도사' 과정을 개설했다.

개강식에는 학장 범혜 스님, 승려교육원 운영위원장 자인 스님, 화엄승가회 수석부회장 대각 스님, 천마사 주지 도명 스님을 비롯해 김기홍 · 김순례 부학장, 김경숙 싱잉볼 치유의소리 대표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학장 범혜 스님은 개강식에서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포교하는 노력의 결과가 불교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며 "현대인의 마음은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다. 이번 강의는 불교 중흥과 포교를 위한 방안으로 명상을 제시하고자 마련했다. 명상은 치유의 손길로써 현대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위원장 자인 스님은 "사찰을 찾는 불자들에게 적용하기에 탁월하고 좋은 강의가 될 것"이라며 "부처님은 의왕(醫王)이셨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신 부처님의 발자취를 느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붓다볼 명상지도사' 과정은 개강 이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강좌가 이어진다. 장소는 부산 두구동 흥법사 인근에 위치한 사단법인 싱잉볼 치유의소리 센터다. 강의는 붓다볼에 대한 이해와 정화법, 호흡명상, 차크라, 천골 테라피, 숙면을 위한 테라피, 워터 테라피 등 다양한 수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강좌는 6개월간 계속되며 내년 2월 22일 마무리된다. 승려교육원 교육생은 수업과정 후 2급 과정 응시 자격을 얻으며, 응시자격은 출석률 80%이상 참석해야 주어진다.

김경숙 싱잉볼 치유의소리 대표는 "붓다볼이란 명칭은 오래 전부터 사용됐다. 명상의 도구를 넘어서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법구(法具)로 소개하고자 한다"며 "스님들의 법구로써 많은 분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제7회 가야명상문화축제 성료

## 가야문화진흥원, 9월 9일 김해 문화의전당서

김해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도명)은 9월 9일 김해 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제7회 가야명상문화축제'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춤, 선차(禪茶) 등 불교문화를 선보였으며, 참석자들이 함께 동참하는 명상 시간으로 진행됐다.

축제는 개회와 더불어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 스님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이어 운광 스님과 무인 스님의 북울림 공연과 매화무용단의 무용극이 펼쳐졌다. 차를 마시며 명상을 하는 선차시연회 이후 '명상의 원리와 생활 실천'에 대한 정목 스님의 법문도 이어졌다.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 스님은 "현대인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할 명약이 명상이다. 인간의 욕망을 통제할 유일한 수단이며 명상을 통해 얻는 지혜는 인류를 구원할 희망의 빛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오늘 명상과 함께한 공연으로 쉼을 얻고 마음이 더없이 평안하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제7회 가야명상문화축제에서 펼쳐진 선차시연회.

성낙두 경남지사장



# 운허 스님 발자취 서린 운허역사기념관 개관

**광동학원, 9월 8일 개관식 개최**
**애국과 교육입국 정신 기리고자**
**친필 원고·유품 등 200여 점 전시**
**초격 스님 "운허 스님 뜻 새기길"**

남양주=김내영 기자



광동학원은 9월 8일 남양주 광동중에서 운허역사기념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36년 동안 일본 군국주의의 쇠사슬에 묶이었던 우리 주권이 회복되었으니, 이제부터 조국을 다시 건설하는 데 있어 우리 스님들은 무엇으로써 이바지할 것인가. 새 나라를 건설하는 데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니 중등학교를 설립하자."

독립운동가이자 광동학원을 설립해 인재 양성에 매진한 운허 스님(1892~1980)의 발자취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운허역사기념관'이 개관했다.

학교법인 광동학원(이사장 초격)은 9월 8일 남양주 광동중 하늘가람에서 운허역사기념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운허역사기념관은 개교 77주년을 맞은 광동학원이 운허 스님의 애국과 교육 입국 정신을 기리고자 건립했다. 운허 스님은 학교법인광동학원 설립자로 다수의 학교를 설립, 후학들에게 민족정신을 일깨웠던 교육자다. 팔만대장경 한글 번역을 주도한 공로로 '문화훈장'을 받았고 독립운동에 헌신한 공덕으로 '독립운동 공로포장'을 수상했다.

개관식은 삼귀의·반야심경 봉독, 경과보고, 동영상 시청, 이사장 인사말, 격려사, 축사, 사홍서원 순서로 개관식과 현판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광동학원 이사장 초격 스님을 비롯해 양주 연화사 혜승 대종사, 봉선사 능엄승가대학원장 정원 대종사, 운허기념사업회 이사장 인묵 스님과 광동중·광동고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회, 불교어머니회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운허역사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이자 광동학원 이사장 초격 스님은 "5만여 명의 인재를 배출한 광동학원이 명문사학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운허 큰스님의 높으신 원력 때문"이라며 "올해로 개교 77주년을 맞은 광동학원은 위대한 운허 큰스님의 업적을 후학들이 늘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운허역사기념관을 건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역사는 기록되어야 하고 그 역사 속에 우리의 정신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학생들을 비롯한 교직원, 학부모, 지역민들이 기념관을 자주 찾아 운허 큰스님의 높은 뜻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능엄승가대학원장 정원 대종사는 축사를 통해 "어느 해 질 녘에 찾은 봉선사에서 가사와 장삼을 수하시고 108 염주를 손에 쥔 채 다경실로 걸어가던 운허 스님의 뒷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운허 스님은 행실이 점잖고 어질며 덕과 학식이 높은 '군자'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회상했다.

기념식에서 이서현 학생은 광동 학생들을 대표해 운허 스님에게 드리는 편지를 낭독했다. 이서현 학생은 "제가 다니는 학교에 스님을 기리는 곳이 생겨 뜻깊다. 스님께서 학교를 세워 우리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스님처럼 베풀며 살아가고, 학업에 충실해 세상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기념관을 둘러보며 운허 스님의 발자취를 되새겼다. 기념관에는 운허 스님의 친필 원고, 저서, 경전 번역본 등 서책들과 생전 유품 200여 점이 전시돼 있다.

# "불교종합예술 범음범패로 중생교화"

**능인종 영남범음범패연구보존회 학인 수료식**

**코로나19로 4년 만에 5명 수료**



대한불교능인종 영남 범음 패연구보존회(회장 수암, 능인종 총무원장)가 9월 10일 김해 화장사 대웅전에서 제14기 학인 수료식을 개최했다.<사진>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됐다 4년만에 열린 14기 수료식에는 5명의 학인이 입학해 6개월 동안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5명 모두 수료했다.

보존회장 수암 스님은 인사말에서 "범패를 통해 부처님을 찬탄하고 중생교화에 힘써 불교문화의 꽃을 피우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송암 스님은 학인을 대표해 "더없는 마음으로 6개월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총무원장스님, 강사스님, 울타리가 되어 주신 여러 대덕 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며 "한 글자, 한소리에 정성 담아 가르켜 주신 고마운 마음을 가슴에 간직하고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능인종 총무원장 청룡사 수암, 광명사 호암, 불연사 월암, 화장사 정우, 미륵사 현암, 법상사 태암, 불영사 일산, 운수사 덕우, 동방선원 묘공, 미륵암 혜암, 화엄정사 월산, 기원정사 송암, 밀림사 지웅 스님 등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완주 송광사 '나비채 음악회' 개최

**蓮음식 만찬 행사도**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가 '2023 송광백련 나비채 음악회'를 개최했다

9월 9일 송광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 '송광 백련 나비채 음악회'는 임헌정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한경arte 필하모닉이 출연해 송광사를 찾은 1000명의 시민과 불자들에게 늦여름 밤의 정취를 흠뻑 선사했다.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으로 막을 연 이날 음악회는 바리톤 김성결, 오보에 안중연, 클라리넷 윤빛찬, 바이올린 변지우 등이 참여해 마르첼로의 오보에 협주곡, 바그너의 클라리넷 협주곡, 로시니의 오페라 나는 이거리의 이발사 등 주옥같은 명곡을 연주했다.

앞서 송광사 사운당 앞 뜰에서는 지역주민을 초청해 연을 주재료로 한 '아름다운 연 음식 만찬' 행사도 진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근대사찰 대구 관음사 발전史 '한눈에'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발간**
**9월 8일 출판기념법회 봉행**

법륜불자교수회(회장 장호경)가 9월 8일 대구 중구 관음사 무설전에서 '근대사찰 대구 관음사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출판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책은 관음사의 역사와 문화재, 신행단체 활동과 역대 주석했던 스님 인터뷰 등을 정리해 200여쪽 분량으로 발간됐다. 특히 책에서는 경북대 불교학생회, 대구시 신도회, 대구공무원불자회 유마회, 대구 구도회 등 대구지역 대표적 신행 단체들에 든든한 활동 기반이 되어준 관음사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대구 관음사 부주지 동진 스님은 "법륜불자교수회에서 연구한 근대사찰의 역사와 문화는 시대를 진단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경북지사장

# 4대 종교 한자리…"화합·평화 염원"

**세계종교문화축제,**
**9월 12~16일 전주서 개최**
**12일 전라감영지서 개막 행사**
**종교 치유프로그램 등도 진행**



불교·원불교·개신교·천주교 등 우리나라 4대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웃종교와 화합과 상생을 염원하는 '2023 세계종교문화축제'가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간 전주 일대에서 개최됐다.

올해 15회를 맞는 세계종교문화축제는 12일 전주 전라감영지에서 개막식을 갖고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 자리에는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을 비롯해 개신교 백남운 목사, 김창신 신부, 대종교 선도사, 이연수 수호사, 나유인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집행위원장,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 김관영 전북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등 각 종교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4대 종교가 한자리에 모인 이번 축제를 통해 화합과 평화의 기운이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 나가길 기원한다"며 "다름으로 비롯된 다양한 갈등이 치유되고 온 인류가 평화롭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종교문화축제가 전북도민이 하나의 마음으로 다시 도약하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며 "쉼과 치유를 배우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축제 동안 전주 세계평화의전당, 익산 원불교중앙총부, 김제 금산사 등에서는 종교 치유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성황리에 마무리된 종교문화축제는 전북지역의 다양한 종교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이웃 종교의 생활과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상생과 나눔의 한마당이 됐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10월에는 특별기획으로 종단별 청년들이 참여해 주제 토론 및 성지순례 활동을 펼치는 세계종교청년평화캠프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지리산 천은사, 재즈음악회 개최

**9월 9일, 1000여 명 참석**




문화와 힐링 사찰로 거듭나고 있는 구례 천은사(주지 대진)가 9월 9일 재즈음악회를 열었다.

선선한 가을 날씨가 드리운 구례 천은사 일주문 앞 광장에는 'fall in love, jazz' 재즈음악회를 보러온 1000여 명 관중으로 가득 찼다.

주지 대진 스님은 "재즈음악회와 함께하신 모든 분이 편안한 느낌과 자유를 만끽하셨으면 좋겠다"며 "가장 고마운 분들은 음악회를 찾아주신 분들이다. 아름다운 지리산, 아름다운 구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네덜란드 출신의 트럼펫 연주자 윱 반라인을 비롯해 섹소폰 신명섭, 피아노 임채선, 콘트라베이스 임대섭, 드럼 김영진, 타악기 파코드 진 등 국내외 유명 연주자들과 보컬 양지, 문미향이 참여해 가을밤 재즈를 물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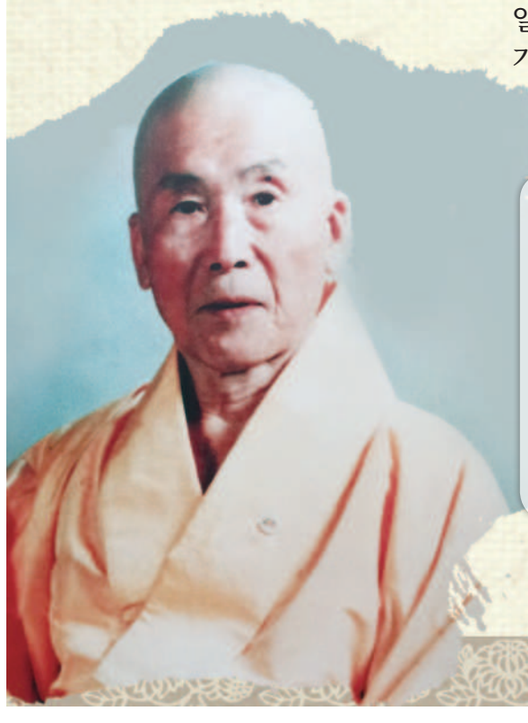
연주자들은 이날 대중적 재즈 음악 12곡을 선보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제 52회 세계법왕 일붕문도의 날 기념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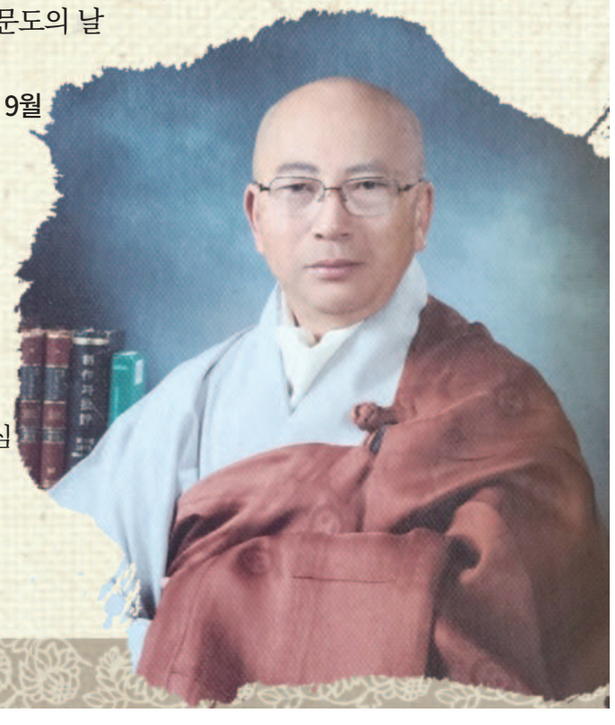
귀의삼보하옵고
만추지절에 부처님의 가피와 일붕 존자님의 은총이 항상 충만하옵기를 기원 드립니다.
일붕존자님의 은·법제자 1만여 명으로 구성된 세계법왕 일붕문도회가 어느덧 52회째를 맞이하여 제52회 일붕문도의 날 기념 대법회를 봉행하오니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동참하시어 법석을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기 2567(2023) 년 9월



◈ 제 목 : 제52회 세계법왕 일붕문도의 날 기념대법회
◈ 일 시 : 2023년 양력 10월 10일(음력 8월 26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 장 소 : 안성 영평사 특설무대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길 79-42) 네비게이션 검색하면 나옵니다.
◈ 전 화 : 정림회장 (010)3718-7900 서병열 사무총장 (010)6253-4936
배영희 사무국장 (010)2705-0959 영평사 종무소 (031)676-3960

수 석 고 문 임담 방장
상 임 고 문 정각·월인·법륜
문 장 혜운
총 재 동봉
부 총 재 청운
명 예 회 장 천강
회 장 정림
수석부회장 무각·도심·광명심
사 무 총 장 서병열
사 무 국 장 배영희



주최·주관 : 세계법왕 일붕문도중앙회

# 관음상에 십자가 장식…"신앙 존중 표현"

## 日 정토종 사찰 코쇼인, 독특한 불상 화제

**주지스님, 2015년부터 빈곤층 지원**
**무연고 사망자 묘소에 관음상 조성**
**그리스도교와 합동 위령재 봉행도**

박영빈 객원기자

도쿄의 일용직 노동자의 거리로 불리는 산야(山谷)지구. 이곳에 소재한 정토종 사찰 코쇼인(光照院)에는 독특한 불상이 봉안돼 있다. 불상의 영락장식에 십자가가 달린 관세음보살상. 지난 9월 5일, 일본의 '도쿄신문'은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만남으로 불리는 이 불상에 얽힌 이야기를 특별 보도했다.

도쿄시 다이토구와 아라카와구 사이에 걸친 산야 지구는 2차 대전 이후 집을 잃은 피난민들이 세운 텐트촌에서 시작됐다. 이후 싼 땅값에 간이 숙박시설들이 생기고 잔후복구를 위한 노동력이 대거로 필요해진 시대적 상황에서 이곳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거리가 됐다.

도쿄신문은 "도쿄 올림픽 전해인 1963년에는 일본 전국에서 모인 일용직 노동자 1만 5천여명 가량이 산야지구의 숙소에서 생활했으나, 버블경제가 붕괴한 후 현재 거주하는 이는 3천명 가량으로 산야지구라는 이름은 공식적으로 66년도에 폐지됐으나 여전히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싼 값의 간이 숙박소가 밀집해 일용직 노동자 외에도 빈곤이나 장애 등 다양한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거주하는 산야지구는 친지나 가족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채 숨을 거둔 이들도 많다.

2015년부터 산야지구에서 독거노인, 혹은 빈곤계층을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온 그리스도교계 단체가 코쇼인과 상의해 코쇼인 소유의 묘지에 산야지구 무연고 사망자들의 묘를 세우게 됐다. 코쇼인의 주지 요시미즈 가쿠겐 스님은 "묘를 세우던 당시, 종교나 종파에 관계없이, 모두 손을 모아 추도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신도들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조성된 것이 바로 십자가 한 관세음보살상"이라고 소개했다. 가쿠겐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와 하느님의 사랑이 조화되도록, 보리수 열매와 십자가를 교차하여 꿰었다"고 설명하며 "부처님의 자비는 다른 신앙의 중생일지라도 결코 놓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종교를 떠나 모두에게 자비광명이 스며들길 바라며 조성된 관세음 보살상.
사진출처=도쿄신문

관음상의 정식 명칭은 '아사쿠사 산야 광윤(山谷光潤) 관음보살'이다. 가쿠겐 스님은 "일부러 명칭에 지금은 공식적으로 사라진 이름인 '산야'를 넣었다. 이름이 사라진 곳에서 연고 없이 스러진 모든 영가들에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이 젖어들기 바라는 뜻이다"고 전했다.

관음상의 하단에는 공동납골묘인 '모두의 무덤'을 조성했다. 이 납골묘엔 산야지구에서 무연고로 사망한 이들은 물론, 제사나 묘를 이어줄 가족이나 친지가 없어 곤란해 하는 분들의 유골도 함께 안치하고 있다.

산야지구에서 노동자들의 쉼터를 운영하며 관음상을 가장 자주 들리는 나카무라 노리코 수녀는 "이 무덤이 세워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죽어도 기도해 주는 장소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종교를 떠나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이야기했다. 실제 가쿠겐 스님과 노리코 수녀는 오랫동안 불교와 그리스도교 합동 위령재를 봉행해 왔다.

가쿠겐 스님은 "각자에게 소중한 신앙을 서로 존중하고 소중히 한다"며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 도우며 걸어온 이곳이 산야의 역사"라고 말했다.

# 美, 달라이라마 도서관 완공

**달라이라마 직속 사원인**
**남갈사원 미국분원 건립**


이타카 남갈사원에 건립된 달라이라마 도서관&교육센터.
사진출처=이타카 남갈사원 페이스북

미국 뉴욕주 이타카시에 소재한 티베트 불교사찰인 '남갈사원'은 오랜 사찰의 숙원사업이었던 '달라이라마 도서관&교육센터'를 완공, 낙성식을 봉행했다. 9월 7일, 미국의 '이타카 저널'은 남갈사원의 발표를 인용해 도서관의 완공을 전했다.

남갈사원은 티베트어로 '완전한 승리'라는 뜻으로 1564년, 2대 달라이라마가 건립한 이래 지금까지 달라이라마 직속 사찰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타카 남갈사원은 이타카시에 자리 잡은 티베트 난민 공동체의 신행활동을 위해 남갈사원에서 초빙한 스님들을 계기로 1992년 남갈사원의 공식 분원으로 건립됐다. 전 세계에 소재한 5곳의 남갈사원 분원 중 유일하게 서구권에 있는 사찰이기도 하다.

달라이라마 도서관&교육센터는 이타카 남갈사원의 숙원사업으로 이곳은 역대 달라이라마들의 저작물을 비롯해, 현 14대 달라이라마가 평생에 진행해 온 40,000시간 분량의 법문, 연설, 대중 강연 등의 어록을 보관하고 정리하는 장소로 계획됐다. 뿐만아니라 티베트 난민들이 티베트에서 망명 시에 가져온 4,000권 가량의 고대 필사본과 불교경론들, 인도와 티베트 불교 역사 전반에 걸친 중요한 유물들도 보존, 전시된다.

이타카 남갈사원측은 낙성식에서 "사랑과 친절, 자비와 용서 등 인간의 내적인 가치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달라이라마의 메시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이 가득한 이 시기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달라이라마는 모든 인간의 따뜻한 마음과 연민을 발전시키는 것이 이 세상의 고통을 완화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데 필수적이라고 굳게 믿고있다"며 시설의 목표를 전했다.

9일과 10일에는 8개 종교에서 온 20명의 종교지도자들이 각자의 종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평화에 대한 토론회도 진행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 불자 최종학력, 세계 평균보다 높다

**美 여론조사업체 결과 발표**
**불교, 현대 교육과 접목 가능**

9월 11일, 남아시아 온라인 뉴스 '뉴스인아시아'는 불교도들의 최종학력이 세계 평균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미국 굴지의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불교도의 최종학력이 세계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교와 학습이 초기 불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했다.


불교교육론은 현대 교육에 접목가능하다는 연구가 나왔다.(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사진출처=픽사베이

설문 조사에 따르면 모든 집단의 세계 교육 기간 7.7년에 비해 불교도들의 평균 교육 기간은 7.9년이었다. 고등 교육 과정을 밟은 불교도는 12%로, 이를 비교하면 전 세계 성인의 14%에 해당한다. 25세 이상의 불교도 90%가 기초 교육을 받은 반면 전 세계 평균은 81%에 불과했다.

미국과 영국의 불교도들은 다른 종교 집단들 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미국 불교도의 평균 교육기간은 13.4년이었으며 절반 이상(53%)이 고등 교육 자격(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학위)을 취득했다. 비불교도는 평균 12.9년의 교육기간 및 고등 교육 자격 취득률은 39%에 불과했다. 영국 불교도들은 타 종교에 비해 고등 교육을 받은 인원이 20% 높았다.

전세계 불교도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 그룹 A(중국, 네팔, 인도, 방글라데시,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는 10명중 1명이 고등 교육을 받았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1.2명이 고등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몽골 등의 국가에서는 고등 교육 자격 취득자가 그룹 A보다 훨씬 많았으며 특히 한국은 24%, 뉴질랜드는 44%가 고등 교육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는 불교도의 3분의 1이 학위를 취득했다.

불교도의 최종 학력자 비율이 높은 까닭은 불교의 교육 접근법에 있다고 보고됐다. 불교의 교육 접근법은 현대의 교육 접근법과 유사했다. 불교 사상에 따르면 교육은 세속적이어야 하고 교리적이지 않아야하며 질문하고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이는 이상적인 현대 교육과 동일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교육이 사회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을 강조했고 자신의 삶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여겼다. 부처님은 그의 아들 라훌라에게 자신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것들을 배우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또한 불교에서 강조하는 일체중생에 대한 자비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음챙김과 명상 역시 개개인의 주의력을 향상시키고, 감정조절을 가능하게 하여 대인관계 개선과 공격성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연구됐다. 연구팀은 "이러한 통찰력을 현대교육에 통합하면 스트레스 감소, 윤리적 가치 및 책임 있는 시민의식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에 참여한 인도학자 마하부브 만달은 "불교적 교육법은 불교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보편교육의 가장 훌륭한 예"라며 "불교특유의 종교색을 탈피할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 말레이 백년고찰, 패소로 존폐 위기

**시멘트 업체와 법정 싸움**
**상소법원, 업체 손 들어줘**


석회암 동굴에 지어진 백년고찰 내부.
사진 출처=더바이브닷컴

지난 9월 9일 말레이시아의 영어 신문 '뉴 스트레이츠 타임즈'는 말레이시아 페라크에 위치한 백년고찰의 법정 싸움과 존폐 위기 소식을 전했다.

말레이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주인 페라크는 주석, 석회암 등 풍부한 지하자원과 아름다운 자연, 왕궁 건축물로 유명한 도시이다. 구웅 칸탄 기슭을 따라 조성된 석회동굴엔 백년고찰이 자리 잡고 있었으나 말레이시아 시멘트 제조업체 'APMC(Associated Pan Malaysia Cement)'가 사찰에 무단 점유 퇴거 소송을 걸면서 사찰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

APMC는 지난해 1월 페락주 훌루킨타 4649번지에 모든 무단점유자의 퇴거를 위해 이포 고등법원에 명령을 요청한 후 항소에서 승소했다.

APMC 관계자는 "석회암 채석을 위해 146.4헥타르의 토지를 주에서 임대했지만 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으며 사찰측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토지 매매 권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원 관계자는 "우리는 100년 이상 그 지역을 사용하고 있었다"며 법원에 이의 제기한 상태이다.

백년고찰은 지난 해 1월부터 퇴거를 반대해 왔으며 같은 해 10월 법원은 APMC의 신청을 기각했다. 1심 재판을 맡은 부핀다르 싱 법무장관은 "사원이 해당 지역에 100년 이상 거주하며 점유를 주장했다. 사원은 점유를 통해 무단점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으며 퇴거에 대해 강력하 반론을 제기했다. APMC와 주 당국의 묵인으로 구웅 칸탄의 점유와 사용권에 대한 3가지 쟁점이 있다"고 하며 사원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 ‘기록유산’ 동아시아 고판화 역사 한눈에

## 개관 20주년 맞은 고판화박물관
## 9월 22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 ‘인쇄문화의 꽃’ 명품 특별전 개최
## 한국·중국 등 고판화 70여 점 전시

김내영 기자


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이 동학 태극기 목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동아시아 고판화의 역사와 흐름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인쇄문화의 꽃-동아시아 고판화 명품 특별전’을 개최한다.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은 오는 9월 22일 개막해 내년 1월 31일까지 열린다.

특별전에는 박물관이 1996년부터 수집해 소장하고 있는 6000여 고판화 가운데 가장 우수한 고서, 고판목, 대형 고판화 70여 점을 선별해 선보인다. 7건의 강원도 지정문화재가 모두 출품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한국, 중국, 일본, 티베트, 베트남 고판화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각 나라별 고판화의 특징과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부 삽화판화, 2부 예술판화, 3부 문양판화로 구성했다.

1부 삽화판화에서는 옥추보경(154호), 불설아미타경(152호) 등 강원도 지정문화재 7건부터 조선시대 최고 판화로 꼽히는 ‘오륜행실도’ 목판, 처음으로 고구마를 들여온 문익공 조엄(趙曮, 1719~1777)이 그려진 ‘조선통신사 행렬도’까지 고려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다양한 전적류가 전시된다. 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은 ‘조선통신사 행렬도’에 대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당시 통신정사(正使)로 파견된 조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글씨 아래에 먼저 간 정사들의 이름이 쓰여 있다”며 “이는 조선 통신사들의 외교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라고 평가했다.

또한 명나라 성화 13년(1477년) 황실 내부각본인 ‘불정심다라니경’을 비롯해 개자원화보, 목련경, 고씨화보, 당시화보, 시여화보 등 조선시대 화가들과 선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다양한 화보도 공개된다.

대형 종교판화가 전시된 2부 예술판화에서는 한국의 ‘치성광여래도’, 중국 금릉각경처가 판각한 ‘관음보살도’, 고려불화를 모본으로 판각한 일본의 ‘오백나한도’, 도요토미 히데요시 문장이 새겨진 ‘관경만다라 채색판화’가 소개된다. 새롭게 수집한 중국 소주 도화오 ‘복’자 문자도와 대형 년화도 ‘홍루몽’, 고흐가 사랑했던 히로시게 ‘동해도 53차 대형 병풍’, 티베트 ‘라싸전경도’ 등도 주목할 작품으로 꼽힌다.

3부는 문양판화에서는 옛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해왔던 아름다운 멋을 느낄 수 있는 조선시대 능화판과 조선 선비들이 사랑했던 청나라 시전지, 조선과 청나라 문자도 판화 등을 선보인다.

한 관장은 “이번 전시에서는 1000여 년 전부터 20세기 초까지 망라된 동아시아 고판화의 주요 흐름을 풀어내고자 했다”며 “개관 이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국내외에서 60여 차례 개최된 고판화박물관 소장품 특별전을 총 결산하는 전시회”라고 설명했다.


오륜행실도 목판화로

개관 20주년을 맞은 고판화박물관은 특별전과 함께 고판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9월 22~23일에는 중국 조우신혜 전 북경수도도서관 부관장, 천진미술대학 장엔문 교수, 싱리 인쇄박물관장, 일본 국문학연구자료관 부관장 이리쿠치 교수, 베트남미술대학 짱 타잉히엔 교수, 한국 고판화전문가 박도화 박사 등이 참여, 고판화박물관 소장품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또 9월 22일에는 전통·현대 판화 시연회가, 23일에는 전통 판화 인출 경연 대회가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고판화박물관이 소장한 동학 태극기 목판과 고려문집 제정집은 강원도문화재위원회를 통해 문화재청에서 보물 지정 심사를 진행 중이다. 또 올해 8월 17일 북경시 문물국에서 운영하는 엔산출판사와 한국고판화박물관장품집 8권 대형전집 발간 계약을 체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강원지역 불교회화 ‘한자리’서 만난다

## 월정사 성보박물관 특별전
##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


삼척 영은사 석가여래회도

강원지역 불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월정사 성보박물관(관장 해운)은 ‘강원지역의 불교회화’ 특별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최한다.

강원 박물관 운영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오대산 월정사를 비롯해 삼척 신흥사, 삼척 영은사, 원주 구룡사, 횡성 봉복사, 영월 보덕사 등의 불화를 만나볼 수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최근 보존처리를 완료한 불화인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보물)’와 ‘삼척 영은사 석가여래회도(강원도 유형문화재)’다,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는 1727년 조성된 불화로 천장·지상·명부 세계를 관장하는 세 보살, 즉 천장·지지·지장보살의 설법장면이 담겨있다.

1811년 조성된 ‘삼척 영은사 석가여래회도’는 석가여래의 설법 장면이 그려진 대형 불화로 높이가 약 4m 가로길이는 약 3m에 이른다. 이렇게 큰 불화는 사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서 외부에 걸리는데, 주로 부처님오신날, 영산재, 수륙재 등 큰 법회나 의식에서 사용된다.

‘영월 보덕사 지장시왕도’는 1990년 8월 도난됐다가 2017년 9월에 환수된 불화다. 지옥중생을 구제하기로 서원한 지장보살과 사람이 죽어서 가는 10개의 지옥의 시왕을 비롯한 판관, 옥졸, 동자, 동녀가 그려졌다. 세부 형상의 표현이 눈이 세 개이거나, 말 머리를 한 옥졸 등의 존상이 재미있게 표현됐다.

이와 함께 사람이 죽어서 가는 10개의 지옥 중에서 다섯 번째 지옥을 관장하는 염라대왕과 권속들을 독립적으로 그린 ‘강릉 백운사 소장 현왕도’와 북두칠성을 신격화한 ‘영월 보덕사 칠성도’, 자유분방한 나한들의 모습이 표현된 ‘상원사 영산전 나한도’도 전시된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은 “옛 화승들이 그려내신 부처와 보살, 부처의 제자, 신중들을 만나보시고 선선한 가을, 청량산 오대산에서 불·보살의 미소를 마음에 담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 오랜만에 돌아온 불교창작극 ‘이뭣꼬’

## J&C뮤지컬컴퍼니 10월4~6일
## 동국대 본관 중강당서 공연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현대인의 성공과 좌절, 깨달음으로 표현한 창작연극 ‘이뭣꼬’가 오랜만에 무대에 오른다.

J&C코리아뮤지컬컴퍼니는 10월 4~6일 오후 3시·7시 30분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연극 ‘이뭣꼬’를 공연한다. 연극 ‘이뭣꼬’는 현대인들이 삶의 진정한 가치를 함께 고민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감독의 바람으로 제작됐다.

창작연극 ‘이뭣꼬’의 시나리오를 직접 쓰고 총연출한 정광진(J&C 코리아뮤지컬컴퍼니 대표) 감독은 “현대인들은 욕망의 노예가 돼 잡히지도 향유할 수도 없는 행복의 망상을 추구하며 극한 대립과 경쟁 속으로 내달리고 있다”면서 “주인공 무명 스님의 눈과 마음에 비춰 비이성적 현실 속에서 갈등하는 작금의 삶을 관객들이 다시 한번 반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070)8728-1215

신중일 기자

# 제32회 불교미술대전 공모전 수상작은

한국불교 미술 작가 발굴과 육성을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불교대전 공모전 수상작이 발표됐다.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대회장 진우·조계종 총무원장)는 제32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불미전에는 회화 93작품, 조각 18작품, 공예 34작품, 디지털아트 13작품 총 158작품이 출품돼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45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총 4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회화 부문 최학의 ‘42수 관세음보살도’, 조각 부문 주성진의 ‘성주괴공’, 공예 부문 윤기현의 ‘다기세트-차공양’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첫 시행한 디지털아트 부문에는 이성원의 ‘염원’이 선정됐다.

‘42수 관세음 보살도’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불화를 바탕으로 재해석하여 현대의 새로운 불화를 창조하고자 제작한 작품이며, 조각 부문 ‘성주괴공’은 물질이 생성되어 유지되고 소멸된 후 다시 공(空)인 상태로 변화하는 성주괴공(成住壞空)의 과정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제32회 불미전 공모전 미디어 아트 부문 최우수상작 ‘염원’. 미디어 아트 부문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 회화 부문 최우수상에 ‘42수 관세음보살도’
## 조각 ‘성주괴공’·공예 ‘다기세트’ 최우수상
## 첫 시행된 디지털아트 부문 최우수상 ‘염원’
## 10월 25일 시상…전시 11월 2일까지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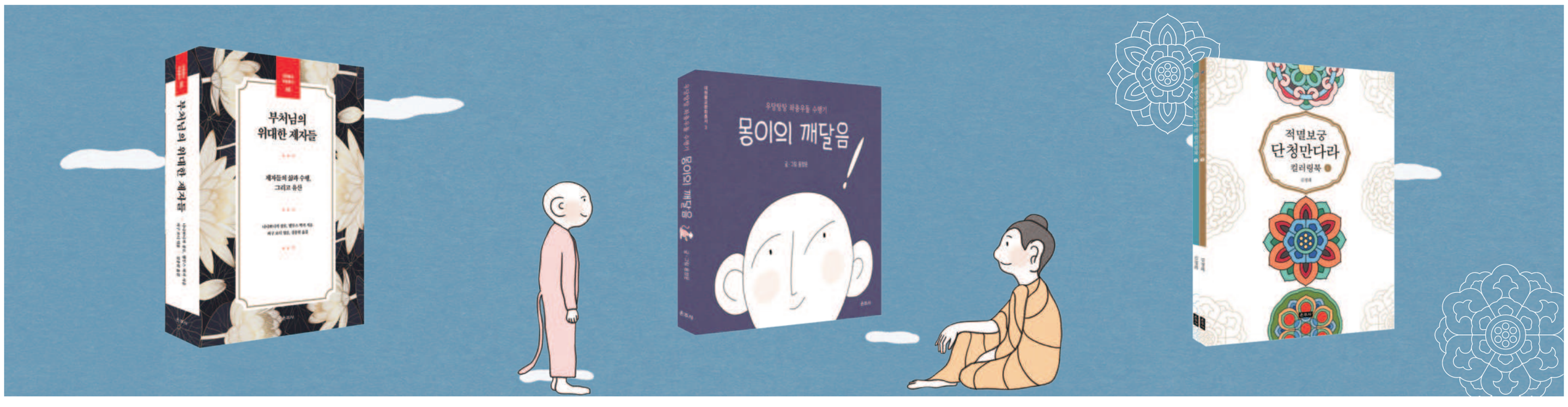
공예 부문 최우수상 ‘다기세트-차공양’은 극락세계 아미타불에게 차공양을 올리는 것을 상상하며 구현한 금은 다기세트 작품이다. 미디어 부문 최우수상작 ‘염원’은 오랜 세월 쓰러져 있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밝히는 마음 속 염원의 등불을 담은 3D 영상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우수상은 네 작품으로 △회화 부문 김민주의 ‘영산회상도’ △조각 부문 남진석의 ‘흐름’ △공예 부문 조정훈의 ‘석가모니 팔상성도 목판 및 목판인출본’ △디지털아트 부문 강혜정의 ‘신수월관음도’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8개 작품으로 △회화 부문: 행오 스님의 ‘묘법연화경 변상(1~7)’, 장미의 ‘수파관음도’ △조각 부문: 김대현의 ‘아미타삼존불’, 박재완의 ‘단비구법’ △공예 부문: 김정호의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 곽건찬의 ‘순동제 순은상감 관음도’가 선정됐다. 특선은 5개 작품이, 입선은 총 24개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한편,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은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그리고 신인작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해 1970년 시작된 불교계 최고 권위의 미술대회다. 올해는 디지털아트 부문을 신설해 회화, 조각, 공예 총 4개 부문 공모를 시행했다.

신중일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이 옳음을 증명하다!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
부처님 당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수행했으며, 어떻게 깨달음을 성취해 갔는지를, 가장 뛰어난 제자 24명의 삶과 수행을 통해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냐나뽀니까 장로, 헬무스 헥커 지음/김충현 옮김/신국판/728쪽/값 40,000원

수행 입문자를 위한 명상 카툰!
몽이의 깨달음
‘깨달음이란 도대체 뭐지?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걸까?’ 좌충우돌 몽이의 생각과 성찰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용정운 글, 그림/사륙배판 변형/236쪽/값 17,000원

‘5대 적멸보궁’의 단청을 그리다!
적멸보궁 단청만다라 컬러링북 1 2
통도사, 중대사자암, 봉정암, 법흥사, 정암사 등 5대 적멸보궁에 그려진 아름답고 성스러운 단청을 54컷의 일러스트로 만들어 누구나 색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정희 지음/국배판/각권 64쪽/각권 값 1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13~9/1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철학으로서의 불교 | 마크 시더리츠 | 운주사 | 6 | 불교입문 | 조계종 포교원 | 조계종출판사 |
| 2 | 금강반야바라밀경 금필사경 | | 짐모아 | 7 | 부처님의 생애(종단본) | 교육원 편찬위 | 조계종출판사 |
| 3 | 온계시초 : 출가 이전 소년 시절의 성파 스님이 지은 한시 모음 | 조봉주/성범중 역주 | 통도 | 8 | 대반열반경(불교경전12) | 강기희 | 민족사 |
| 4 | 불교개설 | 조계종 포교원 | 조계종출판사 | 9 | 무비스님의 반야심경 | 무비 | 조계종출판사 |
| 5 | 초학자와 함께 하는 계율공부 | 정현/서주 그림 | 담앤북스 | 10 | 궁금해요 불교 | 도업 | 운주사 |

책세상

# 수좌의 사유 더한 108가지 '금언'

〈金言〉



전등수필
월암 지음
담앤북스
1만6800원

**전등사서 속 글귀 엄선해 엮어**
**수필 형식으로 깊은 사유 담아**
**유려하지 않아도 다정한 가르침**
**불이(不二) 세상 만들자는 다짐도**



▲저자 **월암 스님**은…1973년 경주 중생사에서 도문 화상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에서 고암 화상을 전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중국과 한국의 제방 선원에서 수선 안거했다. 전국선원수좌회 의장을 역임하고 벽송사와 기기암에서 선원장 소임을 지냈다. 현재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에서 정진하며 사부대중 수행공동체 불이선회를 이끌고 있다. 저서로 〈간화정로〉 〈돈오선〉 〈친절한 간화선〉 〈선원청규〉(주편) 〈좌선요결〉 〈니 혼자 부처 되면 뭐하노〉 〈생각 이전 자리에 앉아라〉 〈선율겸행〉 등이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사둔 주식이 상한가를 기록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누구나 그런 상황에선 당연히 즐거움을 느끼기 마련이다. 한편으로는 언제 매도해야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도 뒤따를 터. 그러다 시기를 놓쳐 장대음봉의 길에 접어들 때면 막심한 후회가 밀려온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비구들을 모아놓고 설하신 이 가르침은 불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금언(金言)이다. 부처님께선 '두 번째 화살'에 빗대 범부와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를 설했다. 두 번째 화살은 내경(內境), 쉽게 풀면 외부 현상에 대한 내 마음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주식의 상한가든 하한가든 내 의지와 무관하게 벌어지는 객관화된 현상이 '첫 번째 화살'이라면, 이로 인해 일희일비하는 나의 감정이 '두 번째 화살'이다. 지혜의 유무와 관계없이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맞는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나의 감정적 얽매임인 두 번째 화살은 노력 여하에 따라 피할 수 있다.

전국선원수좌회 의장을 역임한 월암 스님은 이런 부처님의 설법과 역대 조사들의 선어록에 자신만의 사유를 덧붙여 책으로 펴냈다. 〈전등수필〉은 중국의 〈전등록〉과 고려시대 진각혜심 선사의 〈선문염송〉 등 '전등사서(傳燈史書)'의 중요한 글귀를 엄선해 108편의 수필 형식으로 엮은 책이다.

'우리가 경전을 읽는 것은 그 속에서 부처가 아닌 바로 자신의 참모습을 찾기 위함이다.'

월암 스님의 이번 신작은 조금 특별하다. 앞서 선 수행과 관련된 여러 책을 펴낸 스님이지만 〈전등수필〉은 그간 제방 선원에서 정진하며 참구한 것의 새로움 관점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선(禪)은 관념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문제를 참구하는 것임을, 조금은 직선적이면서도 깊은 사유로 독자에게 설명한다.

제자와 호떡 내기를 하는 조주 선사의 이야기부터 땔나무가 없다며 법당에 있는 목불로 불을 지핀 단하 선사의 일화. 〈금강경〉에 달통한 덕산 선사가 노파의 질문 한마디에 말문이 막혀버린 사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야 한다"는 살불살조(殺佛殺祖)의 정신을 설한 임제 선사까지.

월암 스님은 출판사와의 인터뷰에서 선어록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살불살조'에 대해 "과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따뜻하고 충만한 자비의 말씀"이라고 말한다. 스님은 "부처는 홀로 서는 자이기 때문에 설사 부처, 부모, 스승에 의지해서 배움의 길에 나섰다 하더라도 결국 그 완성에 있어서는 홀로 독립할 수 있는 결기가 필요하다"며 "설사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대등하고 동등하게 함께할 수 있는 출격장부가 되라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많은 것이라도 다투면 항상 부족하고, 콩 한 쪽이라도 나누면 인정이 남아돈다'는 월암 스님의 말은 '탐욕이 있는 사람은 천만금이 있어도 늘 부족하고, 욕심이 끊어진 사람은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는 수행자가 갖춰야 할 자세를 설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월암 스님의 법문은 유려하지는 않지만 이처럼 다정하고 깊은 울림을 준다. 서슬 퍼런 죽비 소리보다 부드러우면서도 예리한 직관으로 수행자뿐만 아니라 현대인에게 가볍게 다가간다.

월암 스님은 오늘날 괭배해진 개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등수필〉을 썼다. 소통과 공감, 공존 의식이 부족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의 내면이 풍성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스님은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책을 읽어달라"고 바람을 전했다.

그렇기에 〈전등수필〉은 사유와 소통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이른바 '틈'을 주는 책이다. 스님은 깨어 있고 열린 삶을 통해 공감과 공명, 공존이라는 불이(不二) 세상을 만들어가는 선적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스님의 바람처럼 〈전등수필〉을 통해 출가수행자는 핵심 종지에 대한 정견을 갖추고, 재가수행자는 귀감이 될 만한 연구를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겠다.

### 책 속의 밑줄 긋기

주먹으로 치면 죽이는 것이요, 손으로 일으켜 세우면 살리는 것이다. 쥐면 주먹이요, 펴면 손이다. 살인도는 번뇌 망념의 중생심을 끊어내는 방편이요, 활인검은 반야의 보리심을 드러내는 방편이다.

**–'살인도와 활인검' 중에서**

좋으면 취하고 싫으면 버린다. 취하고 버리는 것이 모두 집착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놓아라. 일체를 통째로 놓고, 놓았다는 생각조차 놓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일 것이다.

**–'간택이 허물이니' 중에서**

행하는 행위는 있으나 행위하는 주체는 공이다. 업은 마음대로 짓는다. 마음이란 본래 공이라 그림자에 불과하다. 마음이 없음을 알면 업은 절로 없어진다. 즉 마음을 일으킨 자가 없으니 지은 바 없이 짓는 업일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

**–'업보는 있으나 짓는 자가 없다' 중에서**

# 알기 쉽게 풀어낸 대승불교 지침서



대승불교개론
조계종 교육원 편찬
조계종출판사
1만7500원

대승불교는 기원 전후 탄생해 여러 계통의 사상이 만들어지는 데 바탕이 됐다. 특히 중국과 한국, 일본과 티베트로 전파됐고, 동아시아 각 나라의 특징적인 사상과 문화를 발전시켰다. 책 〈대승불교개론〉은 대승불교가 일어난 배경부터 특징과 전파된 양상, 주요 사상, 동아시아에 전개된 과정까지 대승불교의 전 분야를 깊이 있게 다룬 개론서다.

조계종 교육원은 대승불교의 다양한 사상과 수행법을 쉽고 체계적으로 담아 〈대승불교개론〉을 발간했다. 책은 △대승불교의 흥기 △대승불교의 특징과 양상 △대승의 주요 사상 △동아시아 대승불교를 주제로 총 4장으로 구성됐다.

책에서는 대승불교 전개 과정의 연속성과 각 사상의 특징을 밝힘으로써 대승불교의 전체적인 맥락과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교의 핵심 개념들이 나오게 된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과 전개 과정을 밝혀 불교의 역사적 흐름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기존 학설은 물론 최신 학설까지 종합적으로 소개했으며,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중심인 한국·중국·일본 불교를 균형감 있게 서술해 눈길을 끈다.

**교육원, 〈대승불교개론〉 발간**
**사찰승가대 기본교재로 활용**
**동북아불교 균형감 있게 서술**
**최신 학설까지 종합적 소개해**

발간에는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에서 교육교재 편찬추진위원회와 집필진이 함께했다. 불교 전문교육기관 교수로 구성된 10명의 편찬위원과 국내 집필진 12명이 내용을 다듬고 조율해 만든 성과물이다. 불교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인 스님은 물론 불교공부에 관심 있는 입문자들에게도 '대승불교'의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교육원은 '대승불교개론'을 사찰승가대학 교과목 기본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편찬위원장을 맡은 지우 스님은 발간사를 통해 "기원전 5세기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수천 년 세월이 지난 지금 세계 각지에 전파돼 현대인들에게 삶의 질곡에서 벗어나 행복과 자유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며 "이는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 본연의 진리성을 간직하면서도 시대적 상황과 지리적 특성에 맞게 부처님 가르침을 변주하며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대승불교의 사상과 실천 체계는 국가와 시대가 처한 상황에 맞춰 진행된 대기설법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대승불교 사상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문화, 역사, 경전 전반의 요지도 함께 다루고 있다"며 "(책이) 불교에 관심 있는 모두에게 깨달음으로 향하는 여정의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소원 성취", 사경 독송 공덕

"만일 어떤 사람이 경전을 베껴 쓴다면(寫經) 이것은 곧 부처님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받게 되느니라." (대방광불화엄경)

민족사 사경 시리즈의 특징
- 한 권 속에 번역(한글), 원문(한문), 한자 독음이 붙어 있어서 사경과 독송이 동시에 가능!
- 사경의 방법과 목적 등 자세한 안내가 있어 혼자 사경하는 불자들의 길잡이가 됨!
- 책장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제본되어 사경과 독송하기 매우 편함!


1 금강반야바라밀경 (한글) 지혜 성취 기도 8,500원


2 금강반야바라밀경 (한문) 지혜 성취 기도 8,000원


3 아미타경 (한글·한문) 극락왕생 기도 7,500원


4 관세음보살보문품 (한글·한문) 고난 소멸 기도 7,500원


5 부모은중경 (한글·한문) 효행 기도 8,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 도반·후학들이 회고한 '원력의 화신' 녹원 스님



**허공에 가득한 깨달음 영허녹원**
**유철주 지음**
**조계종출판사 / 3만2000원**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영허 녹원 스님(1928~2017)에 대해 사람들은 '원력의 화신'이라고 말한다. 조계종단 정화불사에 앞장섰고, 피폐했던 직지사를 교육과 수행의 도량으로 일신시켰다.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추대된 후에는 종단 안정화와 함께 다양한 포교불사를 일으켜 많은 대중을 불교에 귀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인재불사에 불교의 미래가 있다'고 판단한 녹원 스님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대학의 발전을 이끌었다. 특히 '불교는 약국 하나 만들기 어렵다'는 세간의 평가에도 보란 듯이 종합병원을 건립해 불교의 역량을 확인시키기도 했다.

오로지 신심(信心)과 공심(公心), 원력(願力)으로 종단과 동국대, 직지사를 일군 녹원 스님과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은 지금도 녹원 스님을 배울 점이 많았던 도반이자 제자에겐 추상같이 엄했지만, 재가불자들에겐 누구보다 자비로웠던 스승, 매사에 철두철미했던 수행자로 기억했다.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그들의 인연담이 한 권의 책으로 묶였다.

녹원스님문도회는 녹원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좀 더 많은 대중들에게 전하기 위해 추모 인터뷰집 〈허공에 가득한 깨달음 영허 녹원(暎虛綠園)〉을 펴냈다. 이 책은 평생 도반 도원 스님(前조계종 원로의장)을 비롯한 대중들과 혜창 스님(문경 김룡사 회주), 법등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등 출·재가자 27명이 기억하는 '수행자 녹원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했다. 인터뷰는 유철주 작가(도반HC 기획콘텐츠실장)가 맡았다.

9월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책을 기획했던 녹원 스님의 손상좌 묘장 스님(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은 발간 취지에 대해서 스님에 대한 다양한 추억을 묶었으면 했다고 말했다.

묘장 스님은 "녹원 스님께서 원적 후 여러 분들에게 스님을 기억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두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각자의 추억들을 나누고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추모 인터뷰집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책 제목 중 일부인 '허공에 가득한 깨달음'에 대해 묘장 스님은 "노스님께서 〈원각경〉에 있는 '가없는 허공이 깨달음에서 나타난 것이다(無邊虛空 覺所顯發)'는 말씀을 좋아하셨다.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모두 깨달음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우리의 삶이 그대로 부처의 삶'이라고 강조하셔서 제목을 이와 같이 지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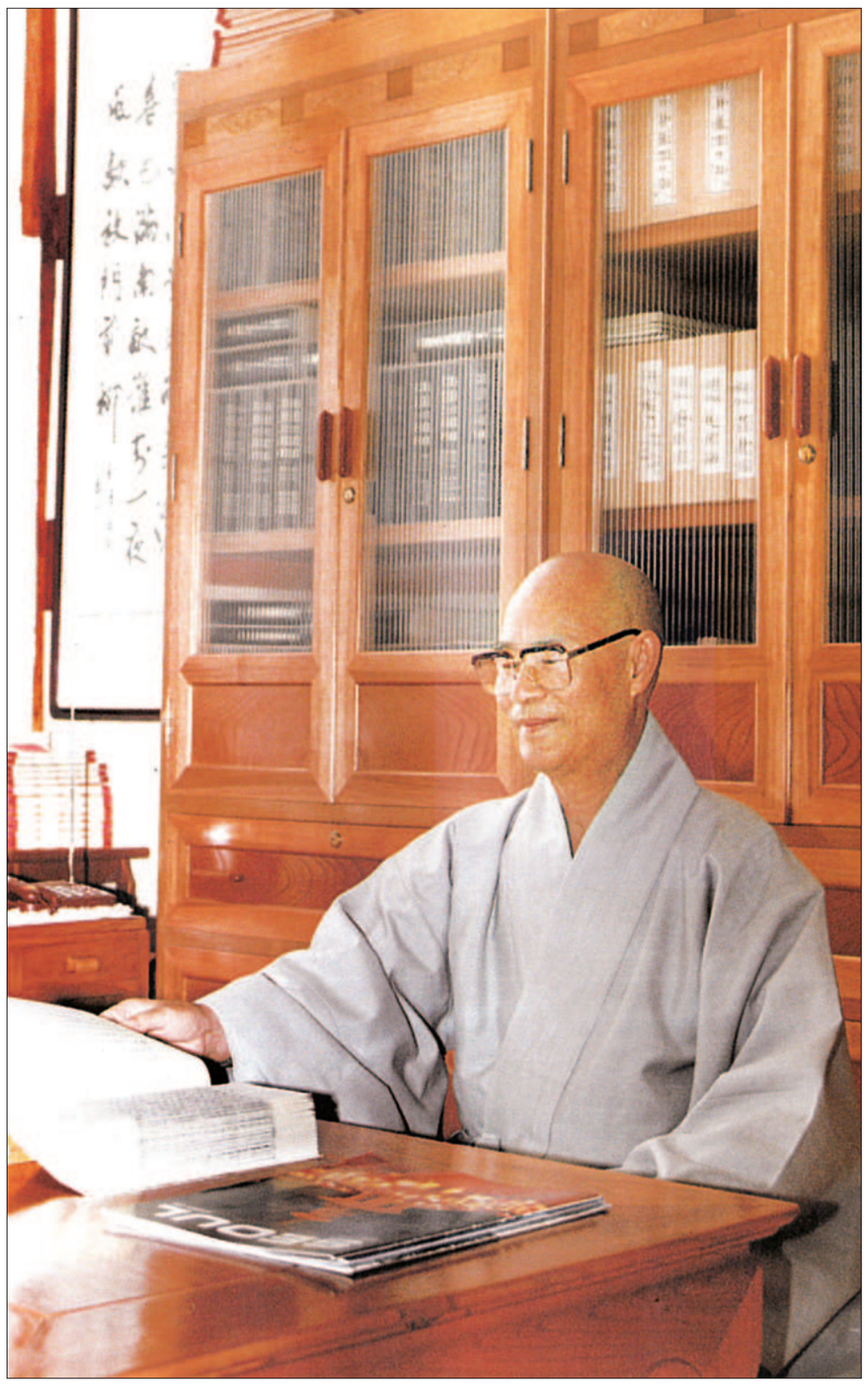
이번 책에는 녹원 스님의 정화불사 참여, 김천 직지사 중창불사, 박정희 대통령과의 인연, 종단 행정 참여,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동국대 이사장 취임, 동국대 일산병원 건립불사 등에 함께 했던 출재가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겨 있다.

또한 도반과 후학, 제자들과의 인간적인 에피소드도 많이 있어 잘 알려지지 않은 녹원 스님의 면목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정 스님이 직접 작성한 녹원 스님에 대한 글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제자들이 간직하고 있는 녹원 스님의 가르침이다. 선지식의 가르침은 결국 후학들에게 지남(指南)이 되기 때문이다.

**녹원 스님과 인연을 맺었던**
**27명 출·재가자 회고담들**
**유철주 작가가 인터뷰 엮어**

**오로지 신심, 공심, 원력으로**
**종단, 동국대, 직지사 일신한**
**녹원 스님 원력 면면 확인해**



평소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던 녹원 스님은 항상 책을 가까이했다.

이젠 종단 원로가 돼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는 조계종 원로의원 법등 스님은 스승 녹원 스님에게 받은 세 가지 가르침을 지금까지도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실천하고 있다.

**"저는 큰스님께 받은 세 가지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첫째 가르침은 명분이 없는 행동은 일체 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 가르침은 삼보정재를 허투루 쓰지 말라는 것이고, 셋째 가르침은 공금과 개인 돈을 혼용해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결국 애종심(愛宗心) 혹은 애사심(愛寺心)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큰스님의 애종심, 애사심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항상 불교와 종단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포교와 교육을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 법등 스님

가장 오랫동안 녹원 스님을 시봉한 시자 장명 스님(직지사 주지)의 이야기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린다.

**"큰스님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따라가도 저는 성공한 삶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큰스님 같은 분은 결코 없었습니다. 고금(古今)을 막론하고 보아도 흔한 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큰스님께서 살아오신 모습을 참고하면, 큰스님의 열정과 원력(願力), 신심(信心)으로 산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큰스님을 만나 행복했고 앞으로도 행복할 것입니다."** – 장명 스님

녹원 스님의 유발상좌로 잘 알려진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은 스승 녹원 스님이 그에게 전했던 '공(公)'의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

**"'위공무사몽역한(爲公無私夢亦閑)'이라고 하잖아요. 공을 위하고 사사로움이 없으니 꿈조차 한가롭다는 말입니다. 큰스님 당신에게 '개인'은 없었습니다. 항상 불교와 대한민국만 있었어요. 인사드리러 갈 때마다 나눴던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 역시 공(公)이 중심이었습니다. 공직에 있는 저는 지금도 큰스님의 이 당부를 생각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추상같은 스승이었고, 누구에게는 자애로운 안식처였으며, 또한 어떤 이에게는 평생의 지남이 됐던 녹원 스님. 27명의 인연담 속에는 한국과 한국불교를 위해 헌신했던 선지식의 삶이 생생히 녹아있다.

### 책 속의 밑줄 긋기

도원 스님은 "한암 스님을 만나고 '이런 도인이 없다' 생각했는데, 녹원 스님 옆에 있어 보니 또 '이만한 스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스님 모두 수행자의 본분을 철저히 지킨 분들이다."고 강조했다.

"배도원의 선지식(善知識)은 오녹원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녹원 스님을 닮으라고 제 상좌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인사 오는 모든 스님들한테도 말합니다. 더 말하는 것은 사족입니다." – 도원 스님, 73p

"녹원 스님은 아주 반듯했던 수행자입니다. 수행자는 반듯하면 됩니다. 그거 하나면 돼요. 반듯하다는 것은 계(戒)를 지키고 바르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또 종무행정을 매우 잘 알았어요. 일을 할 줄 아는 분이죠. 녹원 스님이 총무원장을 한 뒤 소임자들도 임기를 지키게 됐습니다. 부처님은 물처럼 살았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본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순리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물은 무슨 욕심이 없습니다. 녹원 스님도 물 흐르듯 소임을 보고 또 일을 했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밀운 스님, 88p

"깔끔하신 어른이죠. 군더더기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얼렁뚱땅' 같은 말은 녹원 스님에게서 상상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아주 정확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예리했습니다. 특히 일을 꿰뚫어 보는 판단력이 정확했어요. 본사주지, 중앙종회의장, 총무원장 등을 하시면서 녹원 스님의 이런 장점은 더 극대화되었다고 봅니다. 정화불사때에도 어른스님들이 녹원 스님의 총명함을 많이 예뻐했다고 들었습니다. 녹원 스님은 정말 이사(理事)를 겸비한 종장(宗匠) 중의 종장이셨습니다." – 법산 스님, 144p

"녹원 큰스님은 제가 만난 스님 중 가장 훌륭하시고 의지가 깊으신 분이었습니다. '조계종에 저런 스님이 계셨구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 법문을 듣는데, 큰스님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심장이 떨릴 정도의 환희심을 느꼈어요. 그렇게 법문을 잘하시는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큰스님은 법문뿐만 아니라 실제 실행(實行)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종단, 직지사, 동국대, 청암사에서 큰스님은 직접 보여주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 지형 스님, 370p

"유부위여(有孚威如)라고 하지요. 표정은 근엄하면서 가슴에는 따뜻한 정을 간직한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큰스님이 딱 그런 어른이셨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따뜻하셨어요.

인사를 드리면 언제나 밝고 편안한 모습으로 맞아주셨습니다. 또 내공이 대단한 수행자이자 탁월한 행정가로 기억합니다. 큰스님께서 조계종 총무원장과 동국대 이사장을 훌륭하게 회향하신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행이 없었다면 그 큰일들을 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 김종빈 前검찰총장, 398p


한국불교의 두 큰 스승이 전하는 깊고도 맑은 불교의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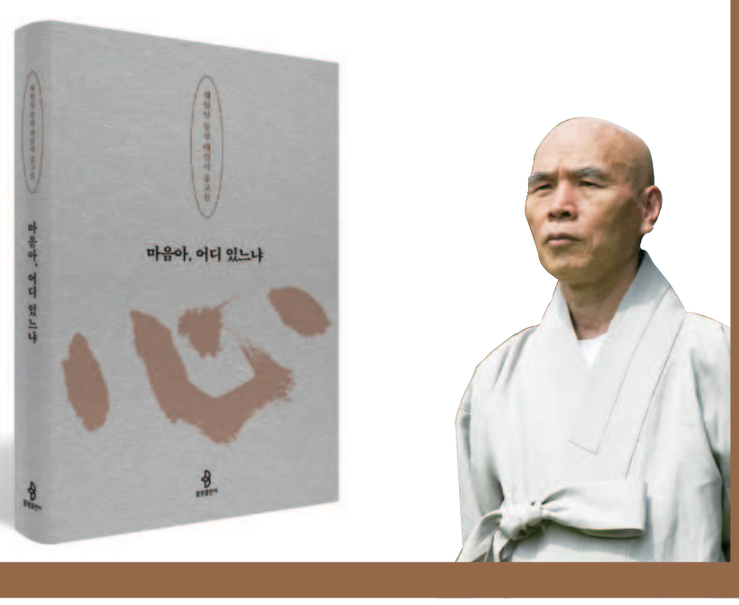
간화선(看話禪)의 진수,
조주록(趙州錄)!
학산 대원 대종사의 강설로 만나는 고준한 선(禪)의 세계!




상696쪽
하816쪽
양장본
각 60,000원

삶의 끝자락에서 꾹꾹 눌러 쓴
깨달음의 문장!
제월 통광 대선사의 사부대중을 향한 마지막 당부!

마음아, 어디 있느냐




312쪽
양장본
25,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34 보석을 찾는 이 1



**▶한줄 요약**
부처를 죽이려했던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의 말씀에 칼을 내려놓고 장엄사리림으로 사라지고, 그 칼은 아난다에게 전해진다. 이 기자 일행은 오늘날에 검을 전해받았다는 미륵보살의 후손 왈리 슈트라 쉼라를 찾아가고 있었다.

# 문수사리보살이 칼을 내려놓고 사라지고…

심 작가의 말에 내가 웃었다. 오오스마 기자와 심 작가를 안 지 꽤 되었어도 이런 말을 나누어보지 않았는데 그만큼 가까워진 것인지도 몰랐다.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생각이 나네요. 이 문제를 지혜나 어리석음으로 풀어버리는 보살이….

-그가 누군가요?

심 작가가 사심 없이 눈을 빛내며 물었다.

-바로 뇌천(雷天)보살이란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지혜(明)와 어리석음(無明)이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고 하더군요.

-어렵네요.

-어렵지요.

-어리석음의 본성은 곧 지혜요, 이 지혜를 지혜로써 집착하지 않을 때 이것이 절대 평등한 경지다? 그러네요. 절대? 더할 수 없이 큰 세계. 그것의 본질. 어렵네요.

-다음 말을 들어보면 더 어려워집니다. 명(明)은 지혜다. 무명은 어리석음이다. 그러나 진리에 어두울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 속에는 무엇이 숨쉬고 있는가. 그것이 지혜다. 밝음이다. 어둠을 밝히려는 불빛이다. 그것들이 깜박거리고 있다는 말이지요.

-문제는 그 밝음조차도 거기에 있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심 작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들의 본질이 절대라는 말이지요. 불법의 오묘한 진리. 그것이 거기 있다는 말입니다. 본시 그 속성 속에는 일체가 떠나 있을 테니까요.

-거기에 오로지 절대 평등만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인가요?

-붓다가 있을 뿐이라는 말이겠지요.

'예측할 수 없는 절대의 세계가 바로 그 세계일 뿐이다. 왜냐하면 지수화풍(地水火風)이 합쳐진 것이 몸의 실상이지만 거기에는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나라는 존재(我)는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다. 진아(眞我)와 소아(小我). 번뇌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진아요, 소아는 외연에 의해 만들어진 나 자신이다.'

그런 말을 덧붙이려다가 나는 그만두었다. 너무 내가 아는 체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럼 고(苦)와 락(樂)이 주인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내가 없다는 것은 바로 소아를 두고 하는 말일 터이다. 소아가 없으면 욕망도 없다. 생겨난 내가 없는데 생겨난 병이 있을 리 없다. 모든 마음 작용은 오직 법의 일어남이다. 법으로서 이 몸을 이루었기에 이 몸이 일어나는 것도 오직 법이 일어남이 아니겠는가. 이 몸이 없어지는 것도 오직 법이 멸하여 없어지는 것. 그러나 문제는 그 법을 내가 알지를 못한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그 법이 일어날 때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닌 것이다. 법이 멸할 때도 내가 멸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로써 증명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이라는 것이 각각 알지를 못한다면 도대체 그곳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진실(實)과 허위(不實)가 증명해 주지 않겠는가. 그러나 진실과 허위는 서로 대립한다. 그럼 진실을 보는 사람은 진실까지도 보지 않는다는 데 이 문제의 핵심이 있다. 하물며 허위를 보겠는가.

거기까지 생각하다가 나는 심 작가를 향해 입을 열었다.

-궁금하네요. 이 미륵불 앞에서 기도하던 노인네 말입니다. 미륵불을 다시 만났는지…?

심 작가가 웃었다.

-글쎄요?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미륵불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수행하는 스님들 말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묻지 않습니까? '요즘 공부가 잘되어가느냐?' '네.' '나를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스승은 제자를 향해 손을 내밀지요. '그럼 그 나를 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라.' 아마도 제자는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며 지혜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스승은 뭐라 할까요? 세상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큰 소리로 웃을까요? 아니면 제자의 머리를 치며 이렇게 말할까요? '틀렸다. 너는 도를 이해하려 한다. 진리는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 오로지 체험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잘 들어라. 지혜의 눈에는 본다는 것도 보지 않는다는 것도 없다. 이것이 나의 본모습이며 절대 평등의 경지다.' 때로 글을 쓰다가 에라 할 때가 있습니다. 에라 정말 출가나 해 버릴까?

-글 쓰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지요.

듣고 있다가 내가 말했다.

-작년까지도 그 생각이 문득문득 들고는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에이 싶더군요. 그래 가 버리자. 정말 출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꿈을 자주 꾸는 겁니다.

-꿈이요?

내가 되물었다.

-꿈만 꾸면 사자들이 내게 달려오는 겁니다. 발톱을 드러내고 출가한 날 무는데 내가 사자들에게 묻곤 했지요. 왜 하필이면 날 잡아 먹으려 하느냐고. 그러면 사자들이 네놈은 먹기가 좋을 것 같다고. 무슨 말이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요. 머리카락이 없어서 말이다.

-하하하 재밌네요.

-지금도 가끔 그 꿈을 꿉니다. 꿈을 꿀 때마다 큰일 났다는 생각에 어머니를 찾고는 하는데 그러면 멀리서 검은 말들이 사나운 바람처럼 달려오지요. 검은 갑옷을 입은 사자(死者)들이 말입니다. 긴 창과 칼, 그리고 쇠방망이를 들고 있어요. 담장을 뛰어넘어 날아들어 온 그들은 닥치는 대로 사자들을 쳐 없앱니다.



삽화 · 김상규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저 살기 어려워 대필 작가나 하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언제나 출가를 생각하던 사람이었다니. 그의 방황이 손에 잡힐 듯해 나는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심 작가가 슬며시 몸을 돌리고 나서야 고개를 들어 미륵상을 올려다보았다. 문득 미륵을 향해 힐난을 퍼부었다는 한 제가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유마!

그가 오늘 있다면 생의 언저리에서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할까? 그때도 이런 세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미륵불에게 그는 그런 힐난을 퍼붓지 않았겠는가.

-그대가 붓다로부터 다음 세상을 구하리라 수기를 받았다고 하는데 들어봅시다. 중생들을 어떻게 구하실 것인지. 보이시오? 저 고통 받고 있는 중생들이? 미륵이 이 세상에 있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내가 보니 그대는 독각승에 지나지 않구려. 도대체 내세에 무엇으로 당신이 세상을 구한단 말이오?

유마의 힐난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다는 미륵. 그리하여 대승사상을 얻어내었다는 미륵.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오오스마 기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 조각상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더군요.

돌아보니 오오스마 기자가 미륵 보살상을 올려다보며 말하고 있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듯이 내가 쳐다보았다.

-불교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이곳 사람들은 알고 있지요.

오오스마 기자가 대답했다.

-유명한가 보네요?

송 서화가가 끼어들었다.

-나도 오늘 알았습니다. 언젠가 들어보았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큰 미륵불이 여기에 있다고…. 정말 크긴 크네요.

다시 올려다보아도 새삼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어떤 신통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면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수행승이 신통력으로 조각하는 사람을 데리고 도솔천이라는 곳으로 올라갔답니다. 장래 석가모니와 같은 붓다가 될 보살을 뵈려고요. 보살의 관상을 세 번이나 본 뒤에 지상으로 내려와 그대로 조각했답니다.

오오스마 기자의 말에 심 작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래요. 저 보살상이 완성되자 그제야 불법이 동쪽으로 흘러간 것이라는 말이 나왔지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동쪽 불교의 발원지란 말입니다. 성물의 임자가 이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하여 검색해 보았더니 이곳은 본시 쉼라 가문의 본거지였어요.

-그래요?

송 서화가가 말을 받았다.

-이곳에는 저 보살상을 지키는 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관한 전설을 읽어보니 성물을 가진 쉼라 가문의 조상이 왜 이곳에 본거지를 틀었는지 비로소 알겠더군요.

-그래요?

이번에는 내가 눈을 빛내며 물었다.

-역시 성물에 대한 전설입니다.

-전설?

-사실은 그 성물이 부처로부터 아난다에게 바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고 해요.

-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며 내가 되물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설법하고 있었답니다. 중생들에게 과거의 업장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옥이니 극락이니…. 문수사리 보살은 교단 내의 기강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보아하니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 칼을 들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나섰다는 겁니다. 부처라도 중생을 괴롭힌다면 죽여 마땅하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요?

송 서화가가 물었다.

-문수사리가 칼을 들고 달려들자 부처님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이렇게 물었답니다. 누굴 죽이려는 것이냐? 문수가 대답했답니다. 부처라 하더라도 중생을 괴롭힌다면 죽여 마땅하다. 그러자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너는 나를 죽이지 못한다. 나는 이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상?

-딴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뭐 해석이 분분하다는데 진상으로 해석하는 이도 있다고 하더군요.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죽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길로 문수는 부처님이 내린 칼을 놓고 장엄사라림으로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칼은 아난다에게 전해졌고 오늘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아난다의 제자 상나화수를 거쳐 자이누딘 왈리 마하라 쉼라에게 전해지자 이곳의 용왕이 연못으로 끌고 들어가 죽이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미륵보살이 나타나 그를 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찾아가고 있는 왈리 슈트라 쉼라 집안이 미륵보살의 피붙이들이라는 겁니다.

-아아!

송 서화가의 탄식 소리가 들렸고 나는 입을 벌린 채 심 작가를 쳐다보았다.

-미륵보살의 손들이라….

오오스마 기자가 뇌까렸다.

심 작가가 제 말에 취해 고개를 끄덕이는데 오오스마 기자가 마침 지나가는 촌부들을 향해 기회를 놓칠세라 물었다.

-여기 왈리 슈트라 쉼라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의 집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모르겠다며 손을 내저으며 지나갔고 세 번째 사람이 길을 가리켜주었다.〈계속〉




오랫동안 국제포교와 어린이포교에 앞장서온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 자우스님의 통통 튀는 전법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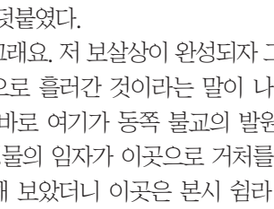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

길에서 만나는 모든 부처님, 당신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비로자나국제선원을 개원하고 어린이영어캠프, 영어 참선법회 등을 운영하며 국제포교와 어린이포교에 앞장서온 자우스님이 그간 겪은 좌충우돌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이외에도 백흥암 행자시절과 유학에 이르는 씩씩한 출가수행 이야기와 인연 닿는 곳마다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온 일화들이 스님 특유의 솔직함과 경쾌함으로 그려져 독자들을 미소 짓게 만든다.

이 책이 전법의 길에 들어선 스님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고,
불자님들에게는 자비심을 증장하는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_ **자우스님** 에필로그

자우스님의 자비의 미소가 사람들의 마음에 물결쳐
세상에 환한 빛을 전하기 바랍니다.
_ **정목스님** 인터넷 유나방송 대표

비로자나국제선원의 아름다운 보현행이 지구촌 어린이와
청소년의 가슴에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납니다.
_ **미산스님** 상도선원 선원장






자우 지음 | 280쪽 | 값 17,000원

**저자 자우스님** | 1992년 은해사 백흥암에서 출가했다. 동학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제방 선원 정진 후 스리랑카 캘라니아 대학에서 불교학 석사를 마쳤다. 인도네시아 해인사포교원 주지를 거쳐 서울 홍제동에 비로자나국제선원을 개원, 현재까지 국제포교와 어린이포교, 문화포교 등 다양한 포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유수출판사 전화 (02) 336-8910 사유수

박희승의
현대인을 위한 禪의 지혜 ⑱ 어째서 화두 명상은 눈을 뜨고 하는가?



▶한줄 요약
화두나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생활화한다면 조용한 곳에서도 마음이 또렷또렷하게 깨어있고, 시끄러운 일상생활 현장에 가서도 마음이 고요한 경지를 체험할 수 있다.

# 눈 뜨고 명상하면 일상도 밝아진다

명상하면 흔히 눈을 감고 고요한 곳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다. 남방불교 승가의 위빠사나 사마타 명상법에서는 대체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라 한다. 반면에 북방 불교의 화두 명상(간화선)에서는 반드시 눈을 뜨고 하라 한다. 이 때문에 명상을 처음 배우는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다.

왜 화두 명상에서는 반드시 눈을 뜨고 하라 할까? 이것은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 깊은 뜻이 숨어 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자.



고양 흥국사 선명상 템플스테이에서 걷기 명상하는 참가자들.

### 왜 명상은 눈을 감고하는가?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에 들어 깨달음을 성취할 때 '새벽별을 보고 깨쳤다'는 경전 기록이 있다. 이로 보아 부처님도 명상할 때 눈을 뜨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불교 명상을 하는 이들 중에 눈을 감고 명상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불교 명상이 아닌 일반 명상도 눈을 감고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다. 눈을 감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명상이라 하니 바깥 세계를 보는 눈을 감으면 시각이 차단되어 명상이 더 잘 되는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명상에 처음 입문할 때는 더 그렇다. 명상을 처음 하는 이들은 호흡이나 앉는 자세, 손 모양, 시선 등이 다 어색한데 일단 눈을 감아버리면 밖으로 향하는 시각이 차단되어 마음을 고요히 하기가 좋다.

### 눈 감고 명상하는 장점과 문제

동아시아 불교 승가의 전통 명상법인 간화선, 화두 명상은 눈을 뜨고 하라 한다. 눈을 감으면 명상이 더 잘 되는데 어째서 눈을 뜨고 하라 할까? 이것은 그냥 보면 단순한 문제 같지만, 사실은 불교의 본질이 드러나 있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일반 치유 명상에서는 '내가 있다' 고 보고 나의 심신의 치유와 건강을 위해 명상을 한다. 이 치유 명상은 나의 스트레스와 피로, 괴로움을 해소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명상한다. 그러니 일반 명상은 짜증나고 복잡한 현실에서 나를 차단하여 고요한 내면의 평안에 들어가도록 한다. 고요한 명상 공간에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여 고요함을 느끼면 곧 명상이 잘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끄럽고 복잡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현실에서 나를 분리시켜 고요한 명상 공간에서 눈을 감고 내면의 고요를 체험케 하는 치유 명상도 좋다. 효과가 있다. 스트레스와 초조 불안을 유발하는 환경에서 나를 격리시키고 차단하면 명상하기가 좋고 내면의 고요를 체험하여 치유되기가 쉽다.

이런 이유로 여행이나 맛집 기행과 더불어 고요한 절이나 명상센터를 찾아서 명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직장이나 집, 그리고 사회 관계를 훌쩍 떠나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명상 효과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생활 현실을 떠나 눈을 감고하는 명상을 해서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얻은 사람이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때 그 고요와 평안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조용하고 편안한 곳에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해서 마음을 고요히 한 사람도 치열한 경쟁과 약육강식의 사회 현실로 돌아왔을 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복잡한 현실과 고요한 명상 사이에 마음이 오락가락하며 혼란이 더할 수 있다.

이것이 삶의 현실을 떠나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하는 명상의 한계이다. 지금 세상에 유행하는 일반적인 치유 명상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한계가 여기에 있다.

**시각차단하면 스트레스 줄지만**
**현실에선 평정심 유지키 어려워**
**화두에만 집중하면 저절로 고요**
**일상생활을 하듯 명상수행해야**



청년불자들이 명상하는 모습.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 화두 명상, 간화선에서 눈을 뜨고 하는 이유

반면에 불교의 깨달음 명상인 화두 참선은 다르다. 우리는 앞에서 여러 번 공부하였듯이 부처님은 중도를 깨달아 삶과 죽음에서 자유자재한 영원한 행복을 누리셨다.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서 출현한 화두 명상인 간화선도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를 깨치는 명상이다.

중도를 닦는 깨달음 명상은 내가 있다-없다, 나와 너, 고요함과 또렷함이라는 양변에 머물거나 집착하면 편향이 되어 바른 명상이 되지 못한다. 중도를 깨치는 화두 명상은 우리 마음을 화두에 집중하여 또렷또렷하게 해나가면 잡념 망상이 일어나지 않아 저절로 고요해진다. 우리 마음에서 화두가 또렷또렷하면서도 고요하게 지속되면 삼매가 되어 중도의 마음을 체험하게 된다. 화두 삼매를 통해서 중도가 체험이 되면 우리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면 화두 명상이 잘 될수록 마음이 또렷또렷해지면서도 고요해지는 성성적적 삼매가 되어 마음이 밝아지고 편안해진다. 이것이 화두 명상인 간화선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화두 명상에서는 일상생활과 수행을 둘로 보지 않는다. 일상생활이 그대로 수행이고, 수행이 일상생활과 둘이 아니다. 화두 명상을 할 때에도 일상생활 가운데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가고 오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화두 명상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좌선 명상이 되면 걸어가면서도 명상을 할 수 있고, 버스나 지하철, 심지어는 운전하면서도 명상을 할 수가 있다. 화장실이나 설거지, 청소할 때는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을 움직이면서 하는 공부라 하여 동중(動中) 공부라 한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화두 명상은 생활 수행법이다. 화두 명상은 생활 수행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밝아지고 편안해진다.

화두 명상이 생활 수행인 까닭에 명상할 때에는 눈을 감지 말고 뜨고 하라 하는 것이다.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 일시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지만, 일상생활과는 차단이 되어 양변에 떨어져 명상과 일상생활이 분리되어 버린다. 그러면 명상과 일상생활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벌어져 바른 공부를 해나가기가 어렵다.

### 생활과 명상 수행이 하나가 되면…

그래서 간화선에서 눈을 뜨고 명상하라 함은 명상한 힘으로 일상생활을 밝게 하라는 뜻이다. 명상 초보자에게는 눈을 뜨고 하는 명상이 어렵지만, 자꾸자꾸 노력하다 보면 익숙해진다. 평상시 생활할 때 눈을 뜨고 일상생활을 하듯이 명상 수행도 그렇게 해야 한다.

다만, 초보자는 조용한 절이나 명상센터에서 명상을 배우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여 명상 자세와 습관이 어느 정도 잡히면 집이나 직장에서도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조용한 절이나 명상센터에서 익힌 참선 명상의 힘은 일상생활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야 바른 명상법이다. 만약, 조용한 곳에서는 명상이 잘 되는데 시끄럽고 복잡한 곳에서는 명상이 안된다 하면 고요함에 집착하는 잘못된 명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명상은 아직 정견과 깨달음 명상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를 공부하여 정견을 세우고 화두나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하는 사람은 눈을 평상시처럼 뜨고 하는 것이 좋다. 중도 정견을 세운 명상 수행자는 시끄럽거나 조용하거나 움직이거나 머물거나 관계없이 호흡이나 화두에 마음을 집중하면 바로 잡념이 사라지고 고요해진다.

이렇게 화두나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생활화한다면 조용한 곳에서도 마음이 또렷또렷하게 깨어있고, 시끄러운 일상생활 현장에 가서도 마음이 고요한 경지를 체험할 수 있다. 참선 명상하는 이가 이와 같이 시끄럽고 조용한 장소에 상관없이 명상이 된다면 공부한 힘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중도 정견으로 눈을 뜨고 명상 수행하는 사람은 명상하는 힘이 일상생활을 밝고 지혜롭게 만든다.

명나라 시대 활약한 박산선사는 '참선경어'에서 고요한 경계에 빠져 명상하는 이를 이렇게 경책한다.

"참선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사항은 고요한 경계에 빠져들어 사람을 말라죽은 듯한 적막 속에 갇히게 하는 태도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은 번거로운 곳을 싫어하고 고요한 곳에서는 대부분 염증을 느끼지 않는다.〈중략〉 이런 사람은 권태가 오래되면 잠자기를 좋아할 것이니, 자기가 이런 병통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겠는가."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지도교수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정신건강', '마음건강'이 매우 중요한 시대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에는 '빙의', '신기운'의 폐해가 매우 큽니다! '의학적'으로도 규명이 안되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으십시오!!"

[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상담원
마음치유·정신건강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⑱ 고성 옥천사 나한전 목조16나한상

▶ 한줄 요약
옥천사 16나한상의 크기는 60cm 내외다. 큰 것이 65cm 정도다. 나무 재질은 소나무다. 통나무를 그대로 사용했다. 제8, 제10 존자 등 지물을 든 다섯 분의 손은 따로 조각하여 결합했다.



# 돌아온, 돌아와야 할 열여섯 '아라한'



되찾은 옥천사 나한 5구와 제1존자의 뒷모습(우측). 왼쪽에서부터 차례로 제1, 제3, 제14, 제15, 제16존자. 현재 박물관 전시실과 수장고에 봉안.

> 미륵하생까지 정법수호의 사명 받아
> 색난스님께 '조묘공', '교장' 등 호칭
> 목재연륜분석으로 1707년 제작 밝힘
> 도난 나한 5구 세 차례에 걸쳐 귀환



옥천사 나한전에 현재 봉안하고 있는 16나한. 윗줄은 왼쪽부터 제1, 3, 5, 7, 9, 11, 13, 15존자. 아랫줄은 오른쪽부터 제2, 6, 4, 8, 10, 12, 14, 16존자.

### 16나한의 소의경전은 〈법주기〉

나한(羅漢)은 범어 아르한(Arhan)의 음역인 아라한의 줄임말이다. 아라한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수행을 통해 일체의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은 성자다. 공양 받아 마땅한 성인으로서 '응공(應供)' 으로도 부르고, 진리에 상응하는 분으로 '응진(應眞)', 깨달음을 얻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무학(無學)' 으로도 부른다. 더욱이 부처님으로부터 미래 세상에 부처로 수기를 받으신 분이기도 하다. 제자 중 사리불은 화광여래, 목건련은 전단향여래, 교진여 등 500아라한은 보명여래로 이미 수기 받으셨다. 다만 부처님 입멸 후 미륵하생의 시기까지 정법을 지키며 중생을 교화하라는 부처님의 부촉을 받으셔서 세간에 남아 사명을 받들고 있다.

16나한의 소의경전은 〈대아라한난제밀다라소설법주기(大阿羅漢難提蜜多羅所說法住記)〉다. 대아라한 난제밀다라가 '정법의 머뭄' 에 대해 제자들에게 들려준 기록으로, 줄여서 〈법주기〉라 부른다. 당나라 현장 스님이 654년 번역했다. 통상 경전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라는 뜻의 '여시아문(如是我聞)' 으로 시작한다. 〈법주기〉는 난제밀다라가 예부터 전해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설한 내용인 까닭에 '여시전문(如是傳聞)', 곧 '이와 같이 전해 들었다' 로 시작한다. 난제밀다라존자가 열반에 들기 전에 제자들이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엮었다.

"저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상정법(無上正法)이 어느 때까지 머물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존자가 대답하였다.

"부처께서는 반열반에 드실 때, 위없는 진리 법을 열여섯 아라한과 그의 권속들에게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잘 보호해서 사라지지 않게 하라고 부촉하셨느니라."

제자들이 다시 물었다. "저희는 16나한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존자는 16나한을 일일이 소개한다. "제1존자 이름은 빈도라발라타사, 제2존자는 가락가벌차, 제3존자는 가락가발리타사, 제4존자는 소빈타, 제5존자는 낙거라, 제6존자는 발타라, 제7존자는 가리가, 제8존자는 벌도라불다라, 제9존자는 술박가, 제10존자는 반탁가, 제11존자는 나호라, 제12존자는 나가서나, 제13존자는 인게타, 제14존자는 벌나파사, 제15존자는 아씨다, 그리고 제16존자는 주다반탁가라 이시다. 이 분들은 각 500명에 이르는 권속과 함께 남섬부주 등의 각 지역에 머물며 부처님의 정법을 보호하며 중생을 제도하고 계신다." 그러고선 부처님 정법의 완전한 소멸에 대하여, 또 16나한이 사명을 다하고 스스로 입멸하는 숭고한 장면을 설명한다.

"인간의 수명이 칠만 세에 이를 때에 위없는 정법이 마침내 영원히 사라지게 되느니라. 이때 16나한께서 권속들과 함께 이 남섬부주에 모두 오셔서 집회를 여신다. 신통력으로 온갖 칠보로 아주 화려하면서도 큰 솔도파(스투파:탑)를 지어 석가모니부처님의 사리를 모두 그 안에 모아 두게 되느니라. 이때 16나한께서는 여러 권속들과 더불어 솔도파를 돌면서 갖가지 향과 꽃으로 공양하여 공경하고 찬탄하며 백천 번을 돌면서 우러러 예배하신 후, 모두 허공으로 올라가 솔도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게 되느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경스럽게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이 가르침을 받들어 바른 법을 호지하며 인천세계(人天世界)에 온갖 이로움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법장(法藏)이 이미 사라지고 연(緣)이 다하였기에 저희들은 지금 부처님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열반에 들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나서 일시에 모두 무여열반(無餘涅槃)에 들어 예전에 기약된 원력으로 불을 일으켜 스스로 몸을 태우시니, 마치 등불이 사그라지는 것처럼 해골조차 남기지 않게 되느니라. 이때에 솔도파도 바로 땅으로 꺼져 들어가 금륜제(金輪際)에 다다라서야 멈추게 되니, 이때 석가모니부처님의 무상정법은 이 삼천대천세계에서 영원히 소멸되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되느니라. 이어 인간의 수명이 8만 세에 이를 때가 되면 독각의 성중들도 모두 멸도하게 되느니라. 그 이후로 미륵불께서 세간에 출현하시어 세 번의 설법으로 무수한 대중들을 제도하시게 되느니라." 글은 짧지만 내용은 장대한 대하서사다. 16나한께서 사명을 다하고 입멸하는 장면과 대하서사가 깊은 울림을 준다.

### 17, 18세기 비수갈마천 색난 스님 작품

전국 사찰에 현전하는 16나한 조각상은 100여 곳에 이른다. 그 중 경남 고성 옥천사 나한전의 16나한상은 〈법주기〉 만큼이나 서사가 강물을 이룬다. 옥천사 나한전은 대웅전 뒤에 위치한다. 석가모니삼존상과 목조 16나한상, 인왕상 한 쌍 등 21구를 봉안하고 있다. 그런데 1932년 '옥천사 나한전 귀중품 목록' 기록을 보면 나한전에는 원래 27구의 조각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목록에 동자와 사자, 신장상 등이 한 쌍씩 더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석가모니 삼존상은 제화갈라보살(목조)-석가모니불(석조)-미륵보살(목조)로 구성한 수기삼존불 형식이다. 수기삼존불은 과거-현재-미래의 삼세에 나투시는 삼세불로서, 범어사 대웅전, 여수 흥국사 대웅전 등 사찰의 중심법당에 봉안한다. 나한전이나 응진전의 봉안은 특이하다. 나한전의 목조 수기삼존불과 16나한상 등의 구성은 고흥 능가사 응진당, 해남 대흥사 응진당, 영광 불갑사 팔상전 등 17, 18세기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한 수조각승 색난(色難)과 그 계파의 활동영역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구성형식이다. 16나한상의 조형도 마치 한 사람이 조각한 듯이 형태, 색채, 조형구성 등이 서로 닮았다. 특히 색난 스님의 본거지인 고흥 능가사의 응진당 16나한상(1685년)과는 구성과 형태가 판박이다. 조형양식에 따라 옥천사 16나한상도 색난 스님이 주도하여 제작한 것으로 판단한다.

조각승 색난은 해남, 강진, 순천, 광주, 고흥, 구례, 화순, 경남 고성 등의 17, 18세기 사찰 조각에 수조각승으로 명성을 떨쳤다. 능가사 1707년 소조불상의 복장기록 연화질에서는 '조묘공(造妙工) 통정 색난' 으로 부르고 있다. 때론 '교장(巧匠) 통정대부' 로 새기고, '조상편수(造像片手)', '화원도편수', '선수양공(善手良工)' 으로도 칭했다. 한 사람의 조각승 화원을 두고 이렇게 다양한 별칭으로 헌사한 경우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조묘공' 이나 '교장' 의 호칭은 색난에 대한 특별한 예경이다. 조선 최고의 화승이었던 의겸을 일러 붓의 신선으로서 '호선(毫仙)' 이라 찬한 것과 같다. 그러한 천하의 명장을 일러 '비수갈마천' 에 비유하곤 한다. 비수갈마천은 천상의 조형장인이다. 색난 스님은 승려 조각장인으로서 17,18세기 조선의 비수갈마천이었다.

### 7구 도난, 두 분 나한상 더 돌아와야

옥천사 16나한상의 크기는 60cm 내외다. 큰 것이 65cm 정도다. 나무 재질은 소나무다. 통나무를 그대로 사용했다. 제8, 제10 존자 등 지물을 든 다섯 분의 손은 따로 조각하여 결합했다. 충북대학교 목재연륜소재은행에서 2016년 연륜연대 분석을 했다. 연륜연대분석 결과 나한상 조각에 사용한 목재는 1706년 늦가을에서 1707년 초봄 사이에 벌목하였음이 밝혀졌다. 나한상 제작연도를 1707년으로 편년했다.

옥천사 나한상은 물욕에 어두운 손길을 탔다. 1988년 16구의 나한상 중 7구를 도난당했다. 16나한은 명부전의 시왕 열 분을 봉안하는 방식처럼 배치한다. 1,3,5…15의 홀수 번 존자는 향우측에, 2,4,6…16의 짝수 번 존자는 향좌측에 봉안했다. 번호는 대좌는 새겨뒀다. 그 중에 1, 3, 5, 13, 14, 15, 16번 존자 일곱 분을 도난당했다. 빈자리엔 새로이 조각한 나한상을 임시로 모셨다. 근 30년의 시간이 무심히 흘렀다. 2014년 국내 불법경매로 나온 제3, 제14존자를 되찾았다. 2016년엔 제15, 제16존자가 개인 소장자의 기증 형식으로 돌아왔다. 2017년엔 제1존자가 외국 크리스티 경매 과정에서 극적으로 귀환했다. 아직 두 구의 나한상은 돌아오지 않았다. 외국에서 귀환한 제1존자는 오른손을 머리 뒤로 올리고는 쑥스러운 듯이 웃고 있지만, 도난의 흔적과 아픔은 생생하다. 등허리를 통해 납입한 복장물은 도난당하고, 복장물을 납입한 사각형 구멍만이 휑하게 뚫려있다. 오른 손목엔 아직도 경매장에 경매물품으로 오른 꼬리표가 달려있다. 꼬리표엔 이런 영문이 남아있다. '25-APR-17/Sale 13641/Lot133/CHRISTIE' S' 그 위에 크리스티 스탬프 도장이 찍혀있다. 파란색 스탬프 도장 아래 'Sale 13641' 라는 판매번호가 눈에 아프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성스러운 성보문화재 역시 그러하다.

나한상에는 '무기교의 기교' 가 묻어난다. 조형에 꾸밈과 기교가 없다. 자연스럽고 친밀하며 천연스럽다. 나한은 미래세의 여래로 수기된 성자다. 그런데 삶 속에 실존했다. 사람의 아들이다. 나한의 지위엔 성(聖)과 속(俗)의 두 위상이 공존한다. 색난 스님은 아라한 속에 그가 걸어온 수행의 길, 사람의 아들을 보았다. 저마다의 표정에 삶의 희로애락과 기침 소리가 뱄다. 고개 숙여 생각하기도 하고, 회상하듯 생각에 잠겨있기도 하고, 잔잔히 미소 짓기도 하며, 고개 돌려 무심히 눈길을 던지기도 한다. 표정이 살아있다. 저 분들 속에 '나' 가 있다. 그래서 나한상에 친근한 인간미가 우러나온다. 하지만 허전하거나 가볍지 않다. 나한상 저마다의 고유성과 부드러운 아우라를 살려내기 위해 소재와 모티프, 몸짓, 표정을 세심하게 구성하고 베풀었다. 어떤 나한에는 편한 자세에 미소를 더해 친근함에 친밀함을 더했다. 또 어떤 나한에는 인자한 미소에 장난기 가득한 어린 사자상을 배치해 순수에 순수를 더했다. 소박함 속에 다정함이 융숭하다. 시선의 방향, 손에 든 지물, 무릎에 안겨 오르는 동물, 앉은 자세, 심지어는 표정 짓는 눈썹 형상에 이르기까지 섬세하게 고려하면서 조형 저마다의 생명력과 분위기를 쟀다. 그러면서 무심한 듯 투박하게 새겼다. 무위의 해탈 경지다. 나한상의 명품으로 손색없다.

〈사진작가〉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국내 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스틸 대웅전 스틸한옥 누각 산신각 박물관 공용화장실
안내소 전시장 문중제실 한옥인테리어 종각


국내 최초 법명사 스틸 종각







초파일 산신각 특별 할인 판매 가로 2500/세로 2200=1500만원
(석가래 부연 스틸기와 내부상단 한옥문 바닥장판 전기 기본)
저렴한 금액 편리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함 간단한 조립구조

문의 010-5023-5050

불교인문학살롱 ⑱ 〈승만경〉과 진덕여왕

▶**정진원 교수**는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에서 철학박사를, 홍익대 대학원 국어국문과에서 문학박사를 받았다. 2015년 '삼국유사의 한국학 콘텐츠 개발 연구'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2019년 저서 〈월인석보, 훈민정음에 날개를 달다〉로 올해의 불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3년 문예사조로 등단해 시 부문 신인상을 받았다. 현재 튀르키예 국립에르지예스대학 한국학과 교수로 활동 중이다.



# '신라 불국토' 지향했던 불자 군주



경북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에 소재한 진덕여왕릉. 승만이 휘호였던 진덕여왕은 신라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왕이다.

### 신라 왕실의 불교 정체성

진덕여왕의 이름은 '승만(勝鬘)'이다. 〈승만경〉의 주인공 파사닉왕과 마리부인의 딸로 아유타국에 시집간 승만과 이름이 같다. 사촌언니 선덕여왕의 이름은 덕만이다. 덕만은 〈열반경〉에 나오는 '덕만 우바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여자로 태어난 보살의 이름이다. 선덕(善德)은 수미산의 꼭대기에 있는 도리천을 주재하는 천신 선덕 바라문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 이처럼 신라 27대 왕 선덕(재위 632~647)을 덕만 우바이와 동일시했다면 28대 진덕(재위 647~654)은 부처의 인가를 받아 〈승만경〉을 설한 승만과 동일시하려 한 것이다.

신라는 23대 법흥왕(재위 514~540) 때 불교를 공인한 후 철저히 신라 불국토를 지향했다. 자장이 당나라 유학 가서 문수보살로부터 선덕이 찰제리종(크샤트리아 계급)이라는 수기를 받게 되는 진종(眞宗)설이 그것이다. 곧 신라 왕족을 석가모니의 가문과 동일시한 신라 중기의 왕권 강화책으로 볼 수 있다.

신라 왕족이 석가모니 가문과 이름을 똑같이 쓴 것은 법흥왕의 뒤를 이은 24대 진흥왕(재위 540~576)이었다. 그는 전륜성왕의 네 바퀴(금륜, 은륜, 동륜, 철륜)에서 따와서 자식들을 금륜태자, 동륜태자로 이름 지었다.

그리하여 26대 진평왕(재위 579~632)에 이르러서는 석가모니의 부모 이름과 같아지는 것이다. 곧 진평은 백정(白淨)이며 왕비는 마야부인인데, 이는 석가모니의 아버지 슈도다나(백정왕 또는 정반왕의 뜻)와 어머니 마야부인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 진평왕의 아우 백반(伯飯)과 국반(國飯) 역시 석가모니 숙부의 이름이다. 그 진평의 딸이 선덕이고 그의 사촌동생이 진덕여왕(국반의 딸), 자장 율사(마야부인 조카)가 외사촌이 되는 것이다.

석가모니와 같은 선덕,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은 승만의 이름이 진덕(眞德)에게 필요한 것은 신라를 불국토로 세우는 작업 때문이었다. 여기서 외사촌 자장이 황룡사 9층탑을 세워 불국토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통도사 계단을 세워 계율을 정립하는 안성맞춤의 역할을 맡았다. 진덕여왕 때에는 신라의 복식과 연호를 중국과 같게 했다. 내우외환으로 어려울수록 덕(德)으로 최상의 국가를 지향하는 진(眞)과 선(善)의 신라 불국토가 그들의 이상이었다.

### 승만경과 석보상절

〈승만경〉은 승만부인이 부처 앞에서 설법을 하고, 부처가 승만의 설법 내용이 옳다고 인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곧 승만과 부처는 동격이고 신라의 승만인 진덕여왕이 지향한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 훈민정음 대장경 〈석보상절(釋譜詳節)〉6권에도 〈승만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바사닉왕과 말리부인(석보상절 표기방식)이 석가모니 부처의 설법에 감화를 받고 시집간 영민한 딸 승만을 불러 승만경을 설하게 되는 유래가 간략히 들어있다. 석보상절은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자세히 기록할 것은 상세히 적고 생략할 것은 간략히 만들었다는 뜻이다. 권6에는 석가모니께서 일생동안 설한 '반야, 방등, 법화, 열반' 등 여러 경전이 나오는데 '승만경'은 상대적으로 자세히 기록한 편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사닉왕과 말리 부인이 부처 뵈옵고 찬탄을 드리며 부부가 말하였다.**

**"우리 딸 승만이 총명하니 부처를 뵙기만 하면 마땅히 빨리 도를 깨달을 것이니 사람을 시켜 알려야 할 것이오."**

**승만이 부처의 공덕을 듣고 기뻐하며 게를 지어 부처를 기리고 다음과 같이 소원하였다.**

**"부처께서 저를 어여삐 여기시어 제가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여래께서 홀연히 허공에 오셔서 무비신(부처의 여러 가지 모습을 갖춘 비교할 데 없는 몸이다)을 드러내시고 〈승만경〉을 설하셨다.** 〈석보상절 권 6〉

그렇다면 〈승만경〉은 어떤 내용의 경전인가. 세존이 승만에게 장차 성불할 것이라고 수기(授記)하고 그녀는 성불할 때까지 절대로 깨뜨리지 않을 열 가지 서원을 세운다. 이것을 요약하여 세 가지 큰 서원을 세우고 나아가 모든 서원이 하나의 대원(大願)으로 집약된다. 곧 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몸에 지니는 섭수정법(攝受正法)인

> 신라 28대 진덕여왕 이름은 '승만'
> 〈승만경〉 설한 승만부인과 동일시
> 불교 공인 후 왕실을 석가족 연결
> 불국토를 지향하며 신라 왕실 강화

데 정법은 대승이고 그것은 육바라밀(六波羅蜜)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 '승만경'식 신라 불국토

진덕은 몸매가 풍만하고 아름다웠고 7척 장신에 팔이 무릎까지 내려온다(姿質豊麗, 長七尺, 垂手過膝)고 〈삼국사기〉에 기록돼 있다. 진덕은 21세기에 태어났어도 만인의 선망을 받을 이상적인 체격을 가졌던 것 같다. 키 또한 6척이 넘는 2미터 가량의 장신이었다는데 부처의 32상 80종호에 상응하는 큰 키와 팔의 길이는 승만과 같이 재가불자 부처로 격상시키려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러한 진덕은 647년 왕으로 즉위하여 〈승만경〉의 십대서원(十大誓願)과 삼대원(三大願)에 충실한 정치철학을 보여준다.

'오늘부터 보리에 이르기까지'로 시작되는 승만경의 십대서원은 다음과 같다.

**① 계(戒)를 범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나이다,**

**② 존장(尊長)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나이다,**

**③ 사람에 대하여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나이다,**

**④ 타인의 재산이나 지위에 대하여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나이다,**

**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아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나이다,**

**⑥ 나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일을 하지 않겠나이다.**

**⑦ 사섭법(四攝法:布施·愛語·利行·同事)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일을 하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지 않겠나이다,**

**⑧ 고독한 사람, 감금되어 있는 사람,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 재난을 당한 사람, 빈곤한 사람을 보고 그냥 버려두지 않겠나이다,**

**⑨ 새나 짐승을 잡아서 파는 사람, 길러서 잡는 사람, 부처의 계에 어긋난 사람을 보면 놓치지 않고 조복시키겠나이다,**

**⑩ 정법을 잘 지키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일을 하지 않겠나이다.**

지금 바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이다. 진덕은 신라의 승만으로 이 열가지를 모두 몸과 마음에 새기며 성장하여 그것을 정사에 옮기고자 했던 것이다.

### 진덕이 추구한 '태평가(太平歌)'

진덕은 또한 현명했다. 이 10대원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신라와 백성을 위하여 무슨 일은 못할까. 백제와 고구려의 침략 속에 당과 화친을 맺기 위한 정략으로 진덕은 비단을 짜고 거기에 당 고종에게 태평송을 지어 문무왕이 될 춘추의 아들 법민을 시켜 선물한다. 시 또한 잘 지어서 당나라의 태평성대를 기리는 '태평가'로 고고웅혼(高古雄渾:고상하고 예스러우며 웅장하고 막힘이 없음)하다는 평을 들었다.

**위대한 당 나라 왕업을 열었으니/높고도 높은 황제의 계획 창성하리라.// 전쟁이 끝나고 천하가 안정되니/ 학문을 닦아 백대에 이어지리라.// 하늘의 뜻 이어받아 은혜를 베풀고/ 만물을 다스리며 깊은 덕 간직하네.// 깊은 인(仁)은 해와 달과 짝하고/ 국운이 요순시대와 같다네.// 나부끼는 깃발은 어찌 이리도 빛나며/ 징소리 북소리는 어찌 그리도 웅장한가.// 나라 밖 오랑캐 황제 명령 거역하면/ 하늘의 재앙으로 멸망하리라.// 순박한 풍속은 온 세상에 펼쳐지고/ 멀리서 가까이서 좋은 일 다투어 일어나네.// 빛나고 밝은 조화 사계절과 어울리고,/ 일월과 오행이 만방을 돌고 있다네.// 산악의 정기는 보좌할 재상을 내리시고/ 황제는 충성스럽고 어진 신하를 임명한다네.// 삼황과 오제의 덕이 하나가 되어/ 우리 당 나라를 밝게 비추리로다.//**

이 시를 누군가는 너무 사대적인 것이 흠이라고 하나 진덕의 염원은 '당나라'로 쓰고 '신라'로 읽는 태평가였을 것이다. 잠시 그 이름을 바꾸어 당의 지원을 얻어 백제, 고구려의 공격을 막아내 신라의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것은 〈승만경〉의 ①정법의 지혜를 구하고, ②일체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며, ③정법을 획득하겠다는 삼대원을 나타내는 진덕의 통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아닌 남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어디까지 해본 적이 있던가. 진덕에게는 남편과 자식에 대한 기록이 없다. 여성은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은 만고의 진리이다. 신라가 남편이고 백성을 자식으로 생각한다면 전쟁에 피폐해진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 비단에 글씨를 수놓는 일쯤이야 무엇이 어려우랴. 결국 당 고종이 이 글을 아름답게 여기고 장차 신문왕이 될 법민에게 '대부경'을 제수하여 돌려보냈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중국의 연호인 영휘(永徽)를 사용하게 하였다. 진덕의 전략은 성공했다.

8년이라지만 7년 2개월의 짧은 왕 노릇을 한 진덕이 승만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신라와 백성을 위해 작은 자존심 내려놓고 큰 자존심을 지켜낸 것이라 해석할 대목이다. 그 결과 다음 왕인 김춘추가 삼국을 통일하는 위업을 이룰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삼국유사〉 여인의 기상이며 신라 여왕의 기본 품새인 것이다. 언니의 후광에 가려 또는 유신과 춘추의 활약으로 허수아비 왕 노릇을 했다는 편견에 가려져 있는 진덕여왕. 우리는 진덕의 면면을 사금파리 주워 그릇을 복원하는 마음으로 찬찬히 찾아내야 할 것이다.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 번뇌 없는 데서 번뇌 생겨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㉟ 중생전도(衆生顚倒)

〈원문〉

"아난아, 어떤 것을 중생이 뒤바뀐 것이라 하는가? 아난아, 본성이 밝은 마음이 성이 밝고 원만하기 때문에 밝음을 원인으로 하여 성품이 펼쳐져 성에서 허망하게 보는 것이 생기느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마침내 있는 것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있고, 있게 되는 것이 원인이나 원인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머물고 머무는 바의 상태가 마침내 근본이 없는데 이 머무름이 없는 것을 근본으로 하여 세계와 중생이 건립되었느니라. 본래의 원만하고 밝은 것을 미혹하여 허망이 생기었나니 허망의 성이 실체가 없어서 의지하는 바가 있지도 않느니라. 장차 참된 것에 복귀하려면 참되고자 함이 참된 진여의 성품이 아니니라. 진이 아님에 돌아가기를 구할진대 완연히 잘못된 상태가 되어 버리느니라. 잘못된 것이 생기고 잘못된 것에 머물러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법이 점점 발생하여, 생기게 하는 힘이 나와 훈습이 되어 업이 이루어지나니 같은 업으로 서로 감득하며, 감득하는 업이 있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서로 소멸되고 서로 생기게 하나니 이런 까닭으로 중생의 뒤바뀜이 있게 되었느니라."

〈강설〉

〈능엄경〉 7권의 신주(神呪)를 설한 다음에 나오는 중생이 뒤바뀌게 된 원인(顚倒因)을 밝히는 대목이 나온다. 이른바 중생전도(衆生顚倒)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중생전도란 깨닫지 못한 불각중생(不覺衆生), 다시 말해 무명중생(無明衆生)을 가리키는 말이다. '본성이 밝은 마음(性明心)' 은 진여 자체 곧 불성을 말하는 것으로 불변(不變)을 표현한 말이다. '성품이 밝고 원만하다(性明圓)' 는 진여가 인연을 따라 온갖 것에 펼쳐져 있다는 말로 수연(隨緣)의 입장에서 한 말로 본다. 이 두 말을 법성게의 '불수자성수연성(不守自性隨緣成)' 의 뜻으로 이해해 왔다. 4권의 경문에 나온 '성품 자체인 각이 밝아 망령되이 밝혀야 할 각이 되었다.(性覺必明 妄爲明覺)' 는 뜻을 다시 부연한 말로 본다. 이 말은 결국 여래장묘진여성인 그 성(性)에서 망견(妄見)이 생겼다는 말로 번뇌 없는 데서 번뇌가 생겼다는 뜻이다. 성품이 밝음 그대로인 마음에는 업상(業相)이나 전상(轉相), 현상(現相) 이른바 삼세(三細) 따위가 없었다는 말이다. 이 없는 상태가 필경무(畢竟無)이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緣)을 따르는 작용이 내재해 있다가 동요를 일으켜 본성을 이탈해 혹(惑)이 되어 업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혹은 능유(能有)가 되고 업은 소유(所有)가 되어 능소(能所) 관계가 벌어짐으로써 주관과 객관의 상대가 따라 벌어진다. 이 틈새에서 번뇌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업과 번뇌가 같이하여 머물게 하고 머무는 바가 되지만 머무는 근본이 없다 하였다. 이 머무름이 없는 것을 근본으로 하여 세계와 중생이 건립되었다고 경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뒤바뀐 전도(轉倒)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서 혹이 생기고 업이 생겼으므로 본래의 상태가 아닌 뒤바뀐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천하모(天下母)' 라는 말처럼 천지만물의 근원이 무(無)에서 나왔다는 말과 일맥상통(一脈相通)한다. 본래의 성품 불성(佛性)은 결격이 없이 원만하고 밝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미혹하여 허망이 생겼다. 허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혹(惑)과 업(業)이다. 그래서 중생은 혹(惑) · 업(業) · 고(苦)가 악순환하여 생사에 유전(流轉)하게 된다. 수행이란 진여의 성품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래는 회복할 것이 없는데 미(迷)했기 때문에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복하려는 그 마음은 본래의 진여는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본래의 진여는 회복할 게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순금을 가지고 반지나 귀걸이를 만들었을 때 똑같은 금으로 만들어져 금의 성품은 변화가 일어날 수 없지만 모양과 용처는 달라진다. 반지나 귀걸이가 본래의 순금 상태는 아닌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 무념 · 무심 · 간극과 밝은 성품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㉟ 선정바라밀과 지혜바라밀

보살도 3지에서는 무념 · 무심 · 간극, 밝은성품이 정의 주체로 활용된다. 밝은성품으로 생멸심을 덮은 다음 진여심과 생멸심을 일치시키는 것이 이때에 행해지는 선정바라밀이다. 반야해탈도의 과정에서 분리시켰던 자기 생멸심이 제도의 대상이다. 해탈지견식과 구경각이 활용된다. 보살도 4지에서는 무념 · 무심 · 간극, 밝은성품이 정의 주체로 활용된다. 진여심의 무념처와 생멸심의 식업을 일치시킨 다음에 간극으로 제도하는 것이 이때에 행해지는 선정바라밀이다. 반야해탈도의 과정에서 분리시켰던 자기 생멸심이 제도의 대상이다. 해탈지견식과 구경각이 활용된다.

보살도 5지에서는 무념 · 무심 · 간극, 밝은성품이 정의 주체로 활용된다. 진여식의 무념처로 생멸식의 식업을 일치시키고 진여식의 무심처로 생멸식의 심업을 일치시킨 다음에 간극으로 제도하는 것이 이때에 행해지는 선정 바라밀이다. 분리시켰던 자기 생멸심이 제도의 대상이다. 해탈지견식이 암마라식으로 전환되고 구경각이 활용된다.

보살도 6지에서는 무념 · 무심 · 간극, 밝은성품이 정의 주체로 활용된다. 간극에 머물러서 무념 · 무심을 돈독하게 껴안고 있는 것이 이때에 행해지는 선정바라밀이다. 제도된 생멸심이 중간반야해탈을 성취한 상태이다. 암마라식과 구경각이 활용된다.

보살도 7지에서는 무념 · 무심 · 간극, 밝은성품이 정의 주체로 활용된다. 네 가지 정의 주체를 전체적으로 활용하면서 생멸문의 반연중생들을 제도한다. 구경각과 암마라식이 활용된다.

보살도 8지에서는 무념 · 무심 · 간극, 밝은성품이 정의 주체로 활용된다. 부동지를 성취해서 물들지 않는 진여심을 갖추는 것으로 선정바라밀을 행한다. 구경각과 암마라식이 활용된다.

보살도 9지에서는 무념 · 무심 · 간극, 밝은성품이 정의 주체로 활용된다. 암마라식을 제도해서 육근원통을 이루는 것으로 선정바라밀을 행한다. 구경각과 원통식이 활용된다.

보살도 10지에서는 무념 · 무심 · 간극, 밝은성품, 원통식이 정의 주체로 활용된다. 밝은성품으로 생멸문 전체를 덮어서 향하문으로 향했던 대자비문을 완성시킨다. 간극에 머물러서 끊임없이 밝은성품을 생성해내는 것이 이때에 행해지는 선정 바라밀이다. 구경각과 원통식이 활용된다. 등각도에 있어서 선정바라밀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공여래장과 불공여래장 사이에서 작용하는 그리움을 인식하는 것이다. 불이문을 성취하기 위해 행해지는 선정바라밀이다. 두 번째 단계는 불이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두 개의 간극을 인식하는 것이다. 불이문의 상태에서는 공여래장의 대적정처에서 하나의 간극이 세워지고 공여래장과 불공여래장 사이에서 또 하나의 간극이 세워진다. 일심법계를 완성시키고 천백억화신을 생성해내기 위해 행해지는 선정바라밀이다.

지혜바라밀에는 생멸지혜와 진여지혜가 있다. 생멸지혜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혜(慧), 해탈(解脫), 해탈지견(解脫知見)이 그것이다. 진여지혜는 일곱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해탈지견, 암마라식, 원통식, 일체종지. 자연지, 무사지, 불지, 여래지가 그것이다. 생멸수행에 있어서 지혜바라밀을 행하는 것은 혜, 해탈, 해탈지견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진여수행에 있어서 지혜바라밀을 행하는 것은 해탈지견, 암마라식, 원통식, 일체종지. 자연지, 무사지, 불지, 여래지를 갖추기 위해서다. 혜(慧)는 본성에 입각해서 의식 · 감정 · 의지가 쓰이는 것이다. 견성오도 이후에 갖추어진다. 해탈(解脫)은 의식 · 감정 · 의지에서 벗어난 것을 말한다. 반야해탈도 이후에 갖추어진다. 해탈지견(解脫知見)은 본성, 각성, 밝은성품이 쓰이는 것이다. 멸진정 이후에 갖추어져서 보살도 5지까지 활용된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 스님의 〈능가경〉 강설

㉟ 일체 제법의 찰나

# '찰나'도 '전부'도 모두 이름일 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있다 보니, 언제나 확고한 어떤 앎의 상태나 어떤 앎의 느낌으로 사물을 확인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순간적인 찰나의 앎의 상태는 없다. 지금 바로 알고 있는 그 마음뿐이다. 그 보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 외에 생각으로 키운 마음도 아니고, 생각으로 줄인 마음도 아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마음만 없다면 보이는 그대로의 마음이 전부다. 다만 그대로의 마음을 취하여 해석하면 안 된다. 그대로의 마음은 속함이 없기 때문에 '있다, 없다' 의 개념으로 판단하면 그대로의 마음이 되지 못한다. 판단 없는 그대로의 마음이니 나만 알고 말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지만 상대와 다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대승경전 〈금강경(金剛經)〉 제18 '일체동관분(一體同觀分)' 에 "저 많은 국토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의 갖가지 마음을 여래는 다 아느니라. 왜냐하면 여래가 말하는 모든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수보리야, 지나간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의 원음인 〈맛찌마니까야〉 제131 '한 밤의 슬기로운 님' 의 경에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미래도 바라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상태를 그때그때 잘 관찰하라. 정복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그것을 알고 수행하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쪼갤 수 없는 마음이 우리의 본마음이다. 이쪽이나 저쪽의 조건으로 마음을 쪼개어 가져봐야 기쁨도 잠시이고 슬픔도 잠시뿐이다. 그런 마음은 돌고 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다른 마음을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보이는 것은 실재하는 현상계 같지만, 그것은 가지려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그것이 실재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일체법이 모두 찰나공이라는 이론에만 집착한다면, 일체법이 찰나에 괴멸된다는 사실이나 무루의 법이 결코 찰나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알 수 없네. 만약 한결같이 한 생각 한 생각이 무상(無常)이라면 찰나의 괴멸로 일체법을 개괄하는 것이니, 이렇게 되면 단견의 공에 떨어지고 말며 무위법 역시 괴멸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네."

찰나같이 실체 없는 꿈을 좇는 허깨비처럼 자신을 괴롭게 하고 다시 그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어떤 방법을 찾아다녀선 안 된다. 스스로 괴롭게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물질적인 것으로 괴로움을 벗어나려 하지 않고, 느낌적인 것으로 괴로움을 벗어나려 하지 않고, 지각, 의도, 의식적인 것으로도 괴로움을 벗어나려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 다섯 가지를 존재의 다발[오취온(五取蘊)]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여기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줄 알지 못하고 이것으로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나 이 오취온은 찰나에 나타나고 찰나에 사라지는 아지랑이 같은 허상인데, 우리는 그것이 허상인 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잡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그것은 잡아 둘 수 있는 실재가 아니다. 인연 따라 움직이는 뜬구름이다.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오아시스다. 멀리서 보면 있는 듯하지만 가까이 가면 다시 저 멀리 있는 듯이 보이는 무지개 같은 것이다. 뜬구름이나 오아시스를 찾아다니는 정신 나간 사람이 되지 말자. 밖으로 나가 찾아 헤매는 정신을 진정시키고 오취온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나 스스로가 될 수 없는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바른 사유인 오취온으로 나를 만들려는 마음을 버리게 되고, 오취온으로 삶을 영위한다는 마음을 버린 바른 언어와 바른 행위와 바른 생활을 하게 되고, 오취온의 유혹에서 바른 용기를 내는 바른 정진을 하게 되고, 오취온으로 인하여 많은 착오를 일으키더라도 오직 바른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가진 바른 의식으로 집중하게 되고, 오취온의 뿌리 깊은 존재성을 끊어버리는 선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바른 앎이 생기기 전까지의 과정 아닌 과정이고, 그 스스로가 드러나게 되면 '찰나' 라는 것도 '전부' 라는 것도 그저 이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일일시호일

"매일매일 고향의
아내와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미얀마 이주민 아우룽 툰씨, 소뇌 내출혈로 생명 위협
가까스로 살아났지만…병원 빚 2000만원에 고향 못가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2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불자정보

1452호 | 17 | 전면광고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악만 볼 뿐
자신의 악은 볼 줄 모르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선만 볼 뿐 남의 선을 볼 줄 모른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률삼매경》에서

##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4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매가 : 40억
- 위치 : 경기 • 부지 : 1100평
- 건평 : 약40평 외
- 주차가능 • 매가 : 3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대형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 토굴 땅 안내

- 괴산 토지 500평, 평당 25만원
- 이면도로 2차선도로접
- 가까이 호수같은 큰 저수지 있음
- 주변 경관이 조용하며 토굴짓기에 좋음
- 가액 : 절충가능

010-4876-1058

##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 6백평, 임야 : 3천 6백평
- 건물 : 대웅전 55평, 공양실 35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9억

010-4547-0023

## 사찰(급)안내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431
- 대지 300평(종교부지), 농지 114평(논)
- 목조법당 25평, 요사채 30평(방 3개), 태양광, 기름보일러, 저장식 전기온수기, 지하수, 욕실2개, 실외화장실1개
- 가액 : 2억 5천만원

010-4835-1739

##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계곡면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85평 (법당 요사채) (건물 3층 180평까지 증축 가능)
- 가액 : 4억 5천

010-7710-8334

## 동 진 불 사

- 위 치 : 제주도 제주시 소재
- 부 지 : 1000평 (종교용지)
- 법 당 : 40평 (목조, 3포7포, 단청)
- 요사채 : 3개동 150평 (수행실 17개소)
- 기 타 : 산신각, 연못, 석등
- 가 액 : 22억 5천만원
- 특 징 : 제주시내에 위치한 대가람으로 종단의 수련원, 선방, 복지원 용도로 최적의 장소입니다.



전국 소재 사찰, 절터,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010-4927-0455 / 010-5122-8080

## 암 자 안 내

- 위치 : 부산 연산동 황령단
- 가격
  - 전 세 : 일백만원
  - 월 세 : 십오만원
  - 시설비 : 일천만원

051-851-8081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 암 자 안 내

- 부산시 진구 등산로에 위치
- 사용면적 350평이상
- 법당, 산신각, 요사체, 공양간, 창고 등
- 등산로에 위치하여 신도 단련이 유리
- 가격은 협의하에 가능합니다.

010-9387-4446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809
- 대지 411평
- 건물 1, 2층 (68평 정도)
- 금액 : 5억 9천 9백
- 암자, 토굴, 전원주택, 펜션, 사찰가능
- 바다조망

010-3000-5359

## 양평 토굴 안내

- 문중땅 700평
- 사용 : 년 30만원, 매매 9800만원
- 법당, 요사채, 하우스 3동, 텃밭, 유실수다량
- 집 앞에 계곡이 흐르고 뒤편은 산이며 주차는 7~8대
- 주변 경관이 아름다우며 조용한 곳입니다.

010-4876-1058

##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사찰 안에 계곡 축대 재공사 완료
- 차로 확장공사 완료
- 지장전에 납골시설 허가 득
- 가액 12억(절충 가능)

010-5421-1536

##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광역시 서구 신석로 111번길 3-1
- 2층 : 법당 30평,
- 1층 : 요사채 30평
- 지하 : 15평
- 가액 4억 5천만원
- 스님 건강상, 교통 아주 편리함

010-4535-5086

## 사찰(급)안내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지 : 700평 (실사용 1000평)
- 건물 : 법당 (25평), 산신, 칠성, 용왕
- 요사채 : 슬라브 2동 향토방 1동
- 해우소 : 1동 차량 진입 (주차장)
-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도량 (명상, 요가)
- 남향이라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
- 땅에서 나는 물 (약수물)
- 금액 : 5억

010-9203-1165

## 포교(법당)당 전월세

- 위치: 부산시 진구 성지로 151 3층 (실평수 70평)
- 대법당외 요사채 방2칸
- 현신도수 4300명 (전산등록)
- 가액: 3천만원 월 150만원 부가세별도
- 비품대없음
- 어린이대공원역 버스정류소 바로 옆 건물.
- 엘리베이터있음 (냉난방 완비)

010-3398-6204

## 춘천 금선사(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1억 5천만원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 입니다.

010-3428-2774

## 사 찰 안 내

- 위 치 : 충남 금산 추부
- 대 지 : 280평, 임야 : 50평, 총 330평
- 삼성각 : 7평, 전통 기와 목조건물
- 법 당 : 22평, 경량골 철골
- 요사채 : 슬레이트 지붕, 블록, 방 5개, 거실, 주방, 화장실
- 대전 옥천 15분 이내(교통 편리)
- 뒤는 산, 앞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경치 좋은 곳
- 가액 : 2억 5천만원

010-3875-6305

## 사 찰 안 내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굿당해도 좋은 자리
- 가액: 3억 6천 (대출 2억 천육백만원)

010-3741-3567

##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6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 : 교통이 좋습니다.

010-2366-2821

##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1억 2천 (조정 가능)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몸만 오세요



010-4180-1788

## 사 찰 안 내

- 제주시 구좌읍
- 대지 800평, 전 1220평, 법당 조립식 25평, 요사채 콘크리트벽조 38평, 주지실 콘크리트벽조 25평
- 잔디마당, 정원수 조경 최상 3년된 신축 건물
- 신공항예정지 17분거리
- 가액 : 28억 • 오후 2시이후 통화가능

010-3693-5324

##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북구 만덕동 438번지
- 대지 41평, 100년된 고요한 암자 (도심 근천)
- 하천부지 60평 활용 (1년 사용료 430만원정도)
- 매각금액 : 2억 5천만원

010-8411-1217

## 사 찰 안 내

- 청주사찰건물
- 청주시청앞 건물 9층 건물대지 147평, 건평, 1100평
- 1층: 로비사무실, 2층: 연잎한정식, 3층: 생광석찜질방, 4층: 식당, 5층: 임대, 6층: 임대, 7층: 사찰대웅전, 8층: 임대, 9층: 아파트 70평
- 매매가 25억 대출 15억임대
- 스님들께 보시하는 마음으로 싸게드립니다.

010-5883-2255
010-8569-6643

## 사찰(급)안내

- 경남 양산, 종교용지, 대지218평, 시유지 포함 500평사용, 주차10대,
- 건평 68평중 1층 요사 42평, 방4, 화장실3, 2층 대웅전 26평, 식당2, 실외화장실1, 산신각6평, 난방 심야전기, 지하석수 1일 150톤 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 집기일체 포함, 즉시법회가능
- 건강상 시가 이하로 7억에 양도함 (절충가능)

010-6425-8274

##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 법당 (급) 안내

- 부산 금정구 회동동 회동마루 부근 (130평 단독)
- 요사체 잘되어있음
- 전세 1천만원, 월세 50 (월세 조율가능)

010-4157-0773

## 포교원 (급) 매매

- 위치: 공주 봉황동 건물매매
- 건물 53평, 주방1, 방2, 독방1
- 토지임대 월5만원
- 가액 : 3천 5백만원

010-4428-7300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2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생활 안내

1452호 | 18 | 전면광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축생보다 못하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대지도론》에서

##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 입종 동참 안내

불교정신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불교문화정원,불교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 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 원주 비구니스님

- 영험한 도량
- 가정이 잘 풀리지 않는 분 소액으로 조상분들 천도해 드립니다.
- 재비는 50만원, 부처님 가피로 자손분들이 잘살수있습니다.
- 몸이 신병으로 아프신 분, 퇴마빙의 사주 보실분도 오세요
- 계좌 : 농협 351-0995-9536-43

010-9392-1189

##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010-2078-9595

## 공양주 구함

스님들과 같이 함께할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4069-9131

##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 우리 다 함께 불교를 살리는데 동참합시다

- 전국 시 · 군 · 단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포교활동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기본급 월 3백만원 외 활동 범위와 능력에 따라서 배당금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 불교를 위해서 무언가 공덕을 짓고자하는 불자님들은 망설임 없이 연락 바랍니다.

010-8459-1472, 043-642-9413

##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 010-5270-8260

##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 종류 | | 크기 | | | 수량 |
|---|---|---|---|---|---|
| 향로(스텐) | 特大 | 지름: 20cm | 높이: 18.5cm | 내부: 13cm | 5kg |
| 향로(스텐) | 大 | 지름: 17.5cm | 높이: 18.5cm | 내부: 11.5cm | 3kg |
| 향로(스텐) | 中 | 지름: 13.5cm | 높이: 16cm | 내부: 10cm | 1.5kg |
| 향로(스텐) | 小 | 지름: 12cm | 높이: 12.5cm | 내부: 8.5cm | 1kg |



임병학 교수의
꽃차이야기
⑯ 메리골드꽃차

# 루테인 풍부…눈 건강에 좋은 꽃차

메리골드는 꽃의 향기가 강해 뱀이나 곤충들이 다가오지 않아서 뱀꽃으로 불리기도 한다. 다른 이름으로는 천일화, 천수국, 만수국 등이 있다. 꽃말은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 이고, 국화과의 한 해살이풀이다. 줄기는 15~90cm까지 다양하게 자란다.

메리골드는 초여름부터 가을에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피는데, 노란색, 오렌지색, 붉은색의 다양한 색깔의 꽃을 피워 만수국, 천수국이라는 별칭이 생겼다.

원산지는 멕시코이며, 아프리카를 거쳐 유럽에 퍼졌고, 우리나라에도 유입되었다. 이용부위는 꽃이며, 약용 또는 차로 사용한다.

### 성분과 약성

메리골드에는 타게티인(tagetiin), 남색형광물질(藍色螢光物質) 알파트리티에닐(α-trithienyl), 테르펜류(terpen類), 색소 헬레니엔(helenien), 베타카로틴(β -carotene), 플라보크산틴(flavoxanthin) 루테인(lutein) 등이 있다.

메리골드는 성질이 차고, 맛이 달면서 쓰다. 루테인이 풍부하여 망막의 기능을 촉진시키고, 눈의 피로를 줄이며, 안구 세포를 보호한다. 열을 내리고, 풍을 제거하며, 담을 삭인다. 간으로 기운이 몰리거나 왕성한 것을 조화롭게 회복시킨다. 감기, 해수, 백일해, 급성 유선염, 유행성 이하선염을 치료한다.

### 마음 · 기작용

메리골드는 신장(腎臟)에 좋은 소양인의 꽃차이다. 찬 성질의 메리골드는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소양인 신장(腎臟)의 기운을 도와서 온화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을 이루게 한다.

메리골드는 루테인이 풍부해 눈의 피로를 줄이고, 안구 세포의 보호하는데, 이는 수곡열기의 고해(膏海)와 관계된다. 수곡열기는 위(胃)에서 고(膏)가 생성되어 양 젖가슴의 고해로 들어가고, 고해의 맑은 기운은 눈으로 나가서 기(氣)가 된다. 메리골드는 고해를 충만하게 하여 고의 맑은 기운이 눈으로 잘 나가게 하는 것이다.**(그림 참조)**

메리골드는 몸의 열을 식혀 청열, 거풍, 화담의 효능이 있는데, 이것도 수곡열기의 고해(膏海)와 관계된다. 수곡열기에서 고해의 탁재(濁滓)가 위를 보익하기 때문에 차가운 메리골드는 고해를 충만하게 하여 소양인의 위열(胃熱)을 잡는 것이다.**(그림 참조)**

또 메리골드는 감기,해수, 백일해, 급성 유선염, 유행성 이하선염에 효과가 있는데, 이는 수곡온기의 니해(膩海)와 관계된다. 수곡온기에서 니해의 맑은 즙은 폐의 원기를 보익하고, 니해의 탁재(濁滓)는 피부를 보익하기 때문에 메리골드는 니해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 제다 및 음용

메리골드 제다는 ①갓 피어난 꽃을 채취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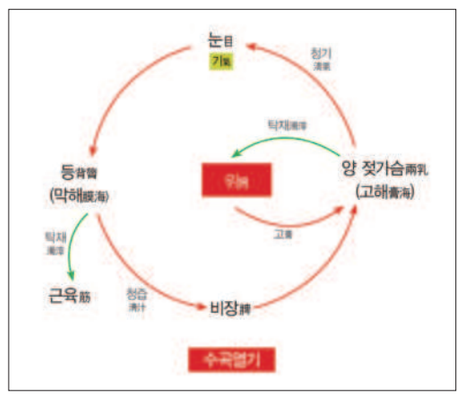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다. ②중온에서 굴려 가면서 골고루 익힌다. ③덖음과 식힘을 반복한다. ④고온에서 맛을 내고 가향 덖음을 하여 완성한다.

메리골드꽃차 3송이에 100℃로 끓인 물 250ml를 넣고, 2분 이내 우린다.

메리골드꽃차와 박하차를 블렌딩한다. 소양인 꽃차인 박하차는 열을 내리고 소화를 촉진시키며,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고, 신경을 안정시킨다. 메리골드꽃차 블렌딩은 열을 내려 속을 시원하게 하고, 습진과 피부염증에 효능이 있다. 또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가 잘되어 식욕을 도우며,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메리골드꽃차 3송이, 박하차 2~3잎에 100℃로 끓인 물 250ml를 넣고, 2분 이내 우린다.




### 사상인별 음용 소감

태음인이 마셨을 때, 건향은 말린 풀내음이 나면서 입에 침이 돌게 한다. 생화(生花)일 때의 메리골드향이 약간 있으나 자극적이지 않고 순화된 느낌으로 구순함이 더해진 것 같다.

우림한 차에서는 건향과는 달리 아주 연한 향기가 나며, 다른 꽃차들에서 맡을 수 있는 은은한 향이 났다. 우림한 차는 푸른빛이 살짝 돌면서 노란색이 주를 이루었다. 첫 모금은 깔끔한 맛이며, 메리골드의 은은한 향이 입안을 감싼다. 삼키고 나면 입안이 깔끔해지면서 마음까지 정화되는 느낌이다. 또 꽃차의 기운이 모세혈관을 타고 손끝까지 전달되는 것 같았다.

다른 태음인은 메리골드를 채취하는 데에서 그 독특한 향기에 머리가 조금 찌근거리더니, 꽃을 제다하기 위해 덖음을 하는데, 강한 향기가 나면서 두통이 심해지고, 구토가 나오는 것을 경험하였다. 열이 있는 태음인에는 맞지 않는 꽃차인 것이다.

소음인이 마셨을 때, 메리골드꽃차의 건향에서는 담뱃잎 말린 향과 탄 냄새가 났다. 시음에서는 첫 모금에 입 안이 화한 느낌이 나고, 뒷맛이 씁쓰름하고 아린 맛이 났다. 목 넘김이 묵직하게 느껴지면서 탄 맛도 느껴졌다. 차를 여러 모금 마신 후에는 머리가 띵한 느낌을 받았다.

### 음용소감(55세 / 여 / 태음인)

2020년부터 안구 건조증으로 인공누액을 넣었지만, 양쪽 눈가가 짓무르는 건 나아지지 않았다. 엄마가 눈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신 생각이 나서 메리골드 꽃차를 마셔보기로 했다. 메리골드 꽃차로 마시며, 눈이 편안해짐을 느껴져서 오래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았다.

2021년 색도 예쁘고 맛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메리골드에 블렌딩을 하고, '마음 눈차' 로 이름을 지었다. 마음 눈차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수면에도 도움을 주는 케모마일, 눈에 좋은 메리골드, 애플민트 소화기능, 시력보호, 펜넬 시력보호, 약간의 단맛을 더하는 감초를 블렌딩한 것이다. 맛과 색 그리고 효능까지 배가 되어 좋았다. 마음 눈차로 만들어 마시며, 지금은 눈가 양쪽 짓무름이 없어졌다.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교수〉

---

건강 365
④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근감소증

# 영양섭취 · 운동으로 '근육저축' 하세요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계속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건강한 노년의 삶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고령자들의 건강 관리와 유지가 사회,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 근감소증이란?

노화에 따른 신체의 생리적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신체 근육량이 감소하는 근감소증(sarcopenia)이다. 근감소증(sarcopenia)은 그리스어에서 기원한 근육을 뜻하는 사코(sarco)와 감소를 의미하는 페니아(penia)가 합성된 단어다.

이러한 노화로 인한 근육량의 감소는 과거에는 자연적인 신체 변화로 여겨졌다. 하지만 근감소증으로 인한 근력의 저하가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의 저하 및 장애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환자의 사망 위험성도 증가시킨다는 게 밝혀지면서 현재는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하나의 만성 질병으로 인식이 전화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국제질병통계 분류 제10차 개정판에서 노인성 근감소증에 질병코드(ICD-10-CM M62.84)를 최초로 부여했고, 2019년 유럽 고령자 근감소증 연구 그룹에서는 근감소증을 낙상, 골절, 신체장애 및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진적이고 일반화된 만성 골격근 질환이라고 정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8차 개정안에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정의하고 진단 코드를 부여했다. 이처럼 근감소증은 현재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명백한 만성질환으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의 한 국내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의 근감소증 유병률은 약 13.1%(남성 14.9%, 여성 11.4%)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근감소증 환자로 추정된다.

근감소증의 원인은 다양하나 대표적 원인으로는 노화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성장 호르몬, 성호르몬), 단백질 섭취의 부족, 신체 활동 감소로 인한 운동량 저하 등이 있으며 이러한 원인 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 근감소증의 증상은?

가장 대표적인 근감소증의 증상은 근력의 저하다. 팔, 다리에 힘이 떨어져 물건을 잘 들어 올리지 못하고 걷는 것이 힘들어 진다. 특히 다리의 근력저하는 보행 장애를 유발하여 신체 활동성을 떨어트리고 우리 몸을 더욱 쇠약하게 만든다. 또한 몸의 균형을 저하시켜 쉽게 넘어지게 만든다. 근감소증은 골다공증을 유발한다고도 알려져 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자주 넘어지게 되니 손목, 척추, 대퇴골에 골절도 자주 발생하게 된다.

또한 근감소증은 여러 가지 전신적인 질환의 발생률도 높이는데, 한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근감소증이 있는 환자는 근감소증이 없는 환자보다 심혈관질환 3.6배, 당뇨병 3배, 고혈압은 2배까지 발병률이 높다고 한다.

### 근감소증의 진단

근감소증의 진단을 위해 병원에서는 근육량 측정, 근력 측정, 신체의 운동 기능 측정을 통해 근육의 양과 질을 모두 평가한 후 근감소증 진단을 하게 된다.

근력은 악력을 통해서 쉽게 측정할 수 있는데 악력이 남성의 경우 28Kg, 여성의 경우 18Kg 미만으로 측정되면 근력이 떨어져 있다고 평가한다.

신체 운동 기능 검사는 걷는 속도를 측정하거나 의자에 앉았다가 섰다를 반복하는 시간을 측정한다. 6m의 거리를 걷는 데 6초 이상 걸리거나 의자에 5회 앉았다가 일어서는 시간이 12초 이상 걸릴 경우 신체 운동기능 저하 상태로 평가한다.

병원에서 위와 같은 3가지 항목을 검사한 후 근육량의 감소와 함께 근력이나 신체 운동기능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서 정상보다 저하된 결과를 보이면 근감소증으로 진단한다.

### 근감소증의 치료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근감소증을 치료하는 확실히 효과가 검증된 약제는 개발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근감소증의 예방과 치료의 최선의 방법은 충분한 영양섭취와 운동이다.

근감소증 예방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이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 당 1g 정도이다. 체중이 60Kg 이라면 한 끼에 단백질 20~30g을 하루에 3번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 충분한 비타민 D 섭취도 근감소증 예방과 낙상의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인 대다수가 하루 권장량 만큼 비타민 D 섭취를 못하고 있어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비타민 D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근감소증 예방에 효과적인 운동은 팔굽혀 펴기나 아령 들기, 스쿼트 같은 근력강화 운동이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근력 운동을 하기 힘든 상태라면 걷기나 계단 오르기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운동부터 우선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 노인성 척추 질환이나 관절 질환이 있어 통증으로 인해 운동을 하기 힘든 상태라면 먼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통증의 원인을 치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한 노년의 삶은 모든 사람의 바람이다. 근감소증은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지금부터 충분한 영양 섭취와 운동을 통해 미리미리 근육을 저축하여 건강한 노년을 삶을 보내길 당부한다.



김종열 거인병원 척추클리닉장




김병전 대표의 **지금, 명상의 시간** 21 학교에서 하는 '아침 3분 명상'



**▶한줄 요약**
청소년 시절부터 명상을 습관화하면 일상적인 도전 과제에 대처하는 역량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다.

# 자기 주도적 삶 위한 힘의 원천

9월 8일 저녁 중동고교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다. 다음날 교육부 주관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2023년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운영담당자 설명회'에서 중동고의 사회·정서 프로그램인 '아침 3분 명상'이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발표한다는 것이었다. 중동고 아침 3분 명상 콘텐츠를 개발한 필자가 대표로 있는 무진어소시에이츠 하루명상을 소개할 예정이라 미리 알려준다는 내용이었다. 갑작스런 전화였지만 매우 반갑고 고마웠다.

2년 전 중동고 이명학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학생들을 위한 명상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연락이 왔을 때 굉장히 의아했다. 명상이 사회전반에 확산된 상황도 아니었고, 더구나 아주 일부 학교에서 명상이 도입되고는 있었지만 그때까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명상이 생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많이 입학시키는 것이 지상목표인 고등학교에서, 그것도 강남 한복판 학교에서 명상프로그램을 도입해보겠다니. 필자는 전화를 받고 가장 먼저 그 이유가 궁금했다.

당시 前성균관대 사범대학장을 지낸 이명학 교장 부임 후 중동고는 인성교육이 강화되었다.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스트레스 대처, 관계 가꾸기, 생활습관 개선, 부모자녀 간 소통, 올바른 언어 사용, 바른 글씨 등 정규 교과에는 없는 '삶에 필요한 지혜 교육'을 강화했다. 또한 종교성을 배제한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인 '3분 아침 명상'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명상프로그램은 조회시간 담임교사 지도아래 3분씩 주2회 실행해오고 있으며, 강제성이 없는 생활 개선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실현 가능성을 위해서 욕심을 내지 않고 최소 수준인 주 2회를 설정한 것이 중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평가해보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이 급할 때나 학교 수업하기 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서 좋았다." "아침에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 좋았다." "평소 집에서 명상을 하는데 시간관계상 학교에 가는 오전에는 명상하기 어려웠다. 매일매일 하면 훨씬 좋을 것 같다." "하루 중 오롯이 나 자신에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

매우 성숙하고 성찰적인 후기들이다. 학교는 학교다워야 하는데 입시에 매몰된 고등학교 현장에선 문제가 생기면 증상만을 해결하려는 대증요법(對症療法)이 만연해있다. 입시가 시급하면 진학 지도를 하고, 학교폭력이 심각하면 하면 폭력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명학 교장은 증상보다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 알아서 공부할 것이고, 알아서 폭력행사를 안 할 것이고, 인성교육이 강화될 것이라는 발상이었다.



학생들이 감정조절을 못하거나 주의력 결핍 장애가 너무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결책이 무엇일까?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은 없었다. 방법이 없는 것일까?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새로운 솔루션만 찾는데, 마음의 문제는 오래된 인류의 지혜에 답이 있다. 명상이란 5000년 이상 된 검증된 방법인데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학교에서의 명상교육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다. 자전거 타는 것을 한번 배우면 평생 잊지 않듯이,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도 조기교육이 필요하다.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화났을 때, 우울할 때, 시험을 망쳤을 때, 친구와 다투었을 때 등 나이가 어리더라도 삶에서 항상 고통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고통에 대응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살아오면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많이 배웠다. 좋은 음식을 먹고,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해로운 술과 담배를 피하는 것처럼. 마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이 필요할까? 독자들께서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어떤 방법이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마음 습관인지를. 과학적이고 효과적이면서 부작용이 없고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명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명상은 아주 오래된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수천 년에 걸쳐 내려오던 지혜의 전통이 1970년대부터 의학과 심리학계의 검증을 거치고, 이후 뇌과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현대에 하나의 치료적 접근법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단계다. 또한 기술과 접목되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명상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가 서비스하고 있는 하루명상 앱(무료)도 이러한 트렌드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실제 명상 프로그램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선생님들도 명상과학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는 수용적인 태도로 많이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프로그램이 안착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서울 중동고 2년 전 명상 도입**
**종교성 배제한 프로그램 개발**
**입시 매몰 벗어나 인성에 도움**
**감정 조절하는 능력 크게 향상**

중동고 프로그램은 대상이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 매우 심플하면서도 지루하지 않고, 지속할 경우 몸에 배는 훈습(薰習)이 될 수 있도록 개발했다.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렇듯이 명상도 사용하는 사람의 상황과 눈높이에 맞아야만 받아들이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가장 먼저 학생들과 인터뷰를 했다. 고충이 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언제 활용할 것인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1차 스크립트를 개발했다. 몇 번의 리뷰 과정을 통해 짧지만 명상의 핵심을 경험할 수 있는 '3분 명상' 콘셉트로 구성했다.

힘찬 하루를 위한 호흡명상, 수업 전 나른함을 깨워주는 바디스캔 명상, 시험 불안을 다스리는 호흡명상, 집중력을 높이는 소리명상, 생각 지켜보기 명상, 감정 알아차리기 명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명상 등 최종적으로 10개의 콘텐츠를 구성했다. 콘텐츠 구조는 기본적으로 주의력, 집중력, 자기조절, 자신과 타인을 위한 연민 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완과 시험으로부터 불안 등도 고려했다. 이 중에서 시험 직전 불안할 때 하는 3분 명상을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3분 명상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또는 시험 직전 불안할 때 도움이 되는 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고 앉습니다. 혀끝에 힘을 풀면서 긴장을 풀고, 코로 숨을 한 번 시원하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편안하게 내쉽니다. 다시 한 번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입으로 숨을 끝까지 길게 내뱉습니다. 이제 평소대로 편안하게 숨 쉬면서 엉덩이가 의자에 닿은 감각, 발이 바닥에 닿은 감각을 느껴봅니다. 숨을 내쉴 때 엉덩이가 의자에 조금 더 밀착되게 둡니다. 땅이 몸을 받쳐주는 단단하고 안정된 감각, 불안을 느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가 나를 지지해 주고 있다는 걸 느껴봅니다. 이제 주의를 호흡으로 가져와서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숨이 들어올 때 배가 부드럽게 부풀고, 숨이 나갈 때 배가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호흡의 움직임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편안하게 숨 쉬면서 들숨과 날숨 중에서 날숨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숨을 쉬어봅니다. 숨이 몸에서 나갈 때 날숨의 처음부터 끝까지 느껴봅니다. 숨이 몸에서 나가면서 천천히 긴장이 풀어집니다. 숨이 나가면서 몸과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이제 호흡을 내려놓고, 나 자신에게 응원의 말을 들려줍니다. 지금 잘 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여러분,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응원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편안하기를!"

정말 불안할 때 한 호흡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차림을 유지하면서 바라볼 수 있다면 금방 긴장이 완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옛말에 힘겨운 고비를 넘기고 여유를 되찾았을 때 '한숨 돌렸다'고 했다. 단기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호흡에 주의를 두는 훈련과 함께 3분 명상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근력 즉, 마음의 힘이 강화된다. 마음의 힘이란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통제할 수 있는 힘이다. 마음에도 원재료가 들어가서 제조되고 유통되는 과정이 명확히 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낸 경험을 상기시켜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화를 나게 한 원인이 있었고, 그 원인에 반응하여 마음속에서 생각, 감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뒤따르고 이후 표출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대부분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마음의 반응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 마음의 힘이 강하면 이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통제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감정을 조절하는 역량이 생기기 된다.

〈내면소통〉의 저자 김주환 교수는 마음에도 근육이 있고 몸의 근육처럼 마음근력도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 강해진다고 했다. 마음이 강해지면 가장 먼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신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리고 성취역량과 수행 능력이 높아져서 공부, 스포츠, 비즈니스, 연구, 창작 활동 등 무슨 일이든 더 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돌보면서 배려하고 또한 어려움이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기는 컴패션 명상(자비 또는 연민 명상)은 현재와 같은 국내 학교 환경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원래 가지고 있는 온전한 품성이 발현된다면 학교폭력을 포함한 학교의 여러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청소년 시절부터 명상을 습관화하면 스트레스 관리와 정서적 안정, 주의력과 집중력 향상, 감정 관리와 사회적 기술 습득, 자아인식과 자아존중감 향상 그리고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학습과 일상적인 도전 과제에 대처하는 역량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힘을 준다.

〈무진어소시에이츠 대표〉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전통과 미래, 그리고 한국불교의 자부심

BTN 불교TV 방송시간안내




가족사진
본방송 (금) 12:00
재방송 (금) 20:30, (토) 16:00




불법(佛法)유턴
본방송 (월) 12:00
재방송 (월) 20:30, (토) 19:30




최광식 교수가 알려주는 삼국유사와 불교문화
본방송 (목) 12:00
재방송 (목) 22:30, (토) 08:30




죽음에서 배우는 삶
본방송 (수) 13:00
재방송 (수) 20:30, (일) 22:50




아름다운 사람들
본방송 (수) 09:30
재방송 (수) 21:30, (금) 15:30




김지원의 스님, 계십니까
본방송 (목) 09:30
재방송 (목) 21:30, (화) 15:30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52 호 현대불교 21
2023년 9월 20일(음 8월 6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 일을 하다가도 똥을 누다가도 생각나는 대로 한 찰나에 놔버리세요

**죽는다는 것은**

**질문** 요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대행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죽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제대로 죽는 것인지요.

**답변** 우리가 "첫째도 죽어야 하고" 했습니다. 일체를 놔라! 맡겨 놔라! 어디다 놓느냐. 내가 있으니깐 바로 상대가 있는 것처럼 내가 있으니깐 일체가 있고 천지와도 직결돼 있으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자가발전소가 있는 거와 같은 겁니다, 밝은 자가발전소. 그래서 여러분의 자가발전소는 이쪽에서 전력을 끌어오면 발전소에서는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지도 않고 이쪽에서 끌어오는 대로 자동적으로 전력이 옵니다. 오지만 그 전력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한테 일체의 생활이 참선이며 좌선이라고 합니다. 몸을 꿇어앉아서 좌선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다 놓게 되면 그것이 좌선이며 그것이 바로 참선이다. 톡톡한 주관적인 내 중심이 없이 그대로 공에 빠지라는 게 아닙니다. 중심이 있기 때문에 참선이라고 하고 편안한 마음도 편안치 않은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부처를 이루지 못하고, 마음을 깨치지 못하고, 지혜를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도 맡겨 놔라, 일체를. '일체' 하면 고독과 가난과 외로움, 또는 우환과 병고 같은 모든 일체 말입니다. 일체 생활을 닥치는 대로 거기 맡겨놓고 가시라. 이것이 바로 방하착이며 이것이 죽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죽어야 한다 하는 것은 바로 무조건 이유를 붙이지 말고,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다 놓고,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참 좋다 할 때는 감사하게 놓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 때는 그것도 고정됨이 없으니 '그것도 거기서 하고 거기서밖에는 길을 인도할 수가 없으니까' 하고 놓고, 이렇게 해 나가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에도 죽어야 한다 하는 이유는 무조건 첫 번에 죽어야 나를 본다 이 소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하시면서 나를 발견하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발견을 해 가지고 내가 '나'라는 거,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습을 버리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꿈에 부처님이 보이면 좋고 머리를 풀어 산발을 한 귀신을 보면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것이 바깥으로 신호가 오면 신호가 온다는 발설을 하질 않나, 보면 보는 것대로 들으면 듣는 것대로 그것들이 변해서 돌아가서 환상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바깥으로 보이고 들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집착을 하고 논의들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도 죽어야 하고" 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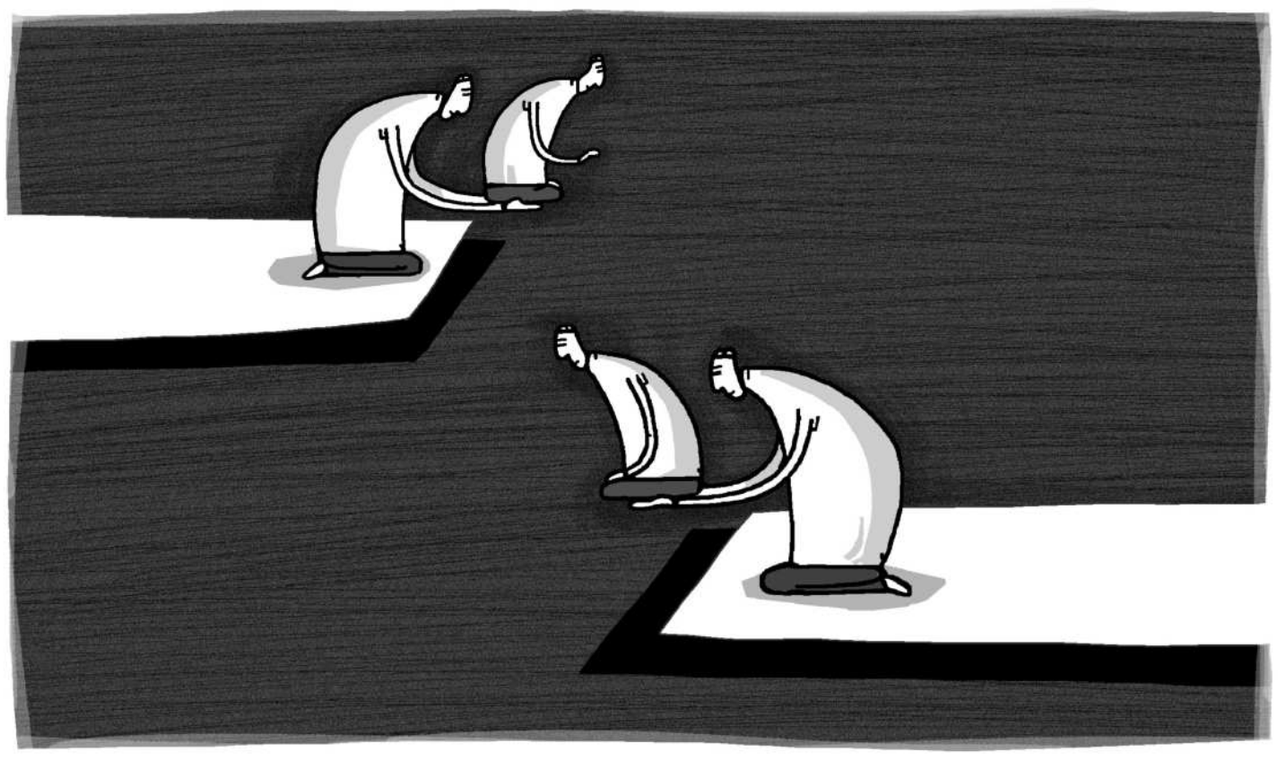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첫 번째도 죽어야 하며 비밀로 놓고 두 번째도 죽어야 하며 비밀을 지켜야 하고.'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비밀을 비밀로 둬야 하고 비밀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은 나를 발견했을 때에, 내가 어떠한 것이 보이든 들리든, 내가 오신통을 한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누누이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마. 오신통에서도 벗어나야 우리는 그것을 굴릴 수 있다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리고 보이고 안다고 말을 하게 되면 첫째, 불법에 누가 되게 하고, 둘째 선원에 누가 되게 하고, 스님네들한테 누가 되게 하고, 셋째 자기한테 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발견했을 때는 그게 실험하는 단계입니다. 꿈에 가르치는 것도 생시에 가르치는 것도 둘이 아니게 항상 자기가 비밀로 두고 지키면서, 봐도 본 사이가 없이 지키면서, 들어도 들은 사이가 없이 지키면서, 알아도 안 사이가 없이 지키면서, 실험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 행을 해 보는 그러한 막강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죽어야 하며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비밀을 지키면서 타심통이나 숙명통, 천이통, 신족통, 천안통, 이 오신통에서 딱 벗어나면, 바깥의 이 다섯 가지 통에서 벗어나면 바로 이 통을 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 몸을 코치를 못 해요. 내 몸 안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건강하게 이끌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그 오신통이라는 다섯 가지 속에서도 벗어나지 못한다면 안 되겠기에 보이더라도 놔라, 들리더라도 놔라, 남의 마음을 알더라도 놔라, 과거를 알더라도 놔라, 내 몸이 시공을 초월해서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간다 하더라도 놔라. 그것은 비밀을 지키는 거다. 그것이 바로 물리가 터져서 지혜를 구해서 내가 바로 그것을 실험하고 체험하여 자기의 것을 만드는 그러한 비밀의 문서다. 비밀 문이 나한테 있다. 오관을 통해서 들이고 내는 비밀 문이 나한테 있으니 내 문을, 없는 문 있는 문 다 놓고 그 문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죽어야 하며 또 그렇게 비밀을 지키고 오신통에서도 벗어난다면 그때는 너나가 없이, 너 나는 틀림없이 있으면서도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나툼에 의해서 응신으로서도 막강하며 나툼의 화(化)함도 막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하는 거는 무엇이냐. 이 마음이라는 자체는 체가 없어서 수만 명의 모습이 달리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백억화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천백억화신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이 응하는 대로 응해 주시기 때문에, 모습도 다르게, 산신을 원했으면 산신으로 보여 주고, 관세음보살을 청했으면 관세음보살로 모습을 보여 주고, 그러나 보여 준 것만이 아닙니다. 모습도 응해 주셨지마는 마음의 그 자비도 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나툼은 하다못해 곤충에서부터 일체 모든 생명들에게 나투며 화하면서 응해 주시는 부처님의 한 발 내려디딘 보살행이니 보현등의 행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연화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래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이라는 그 말은 하다못해 곤충에 이르기까지 응해 주시기 때문에, 목신에도 응해 주시고, 지신에도 응해 주시고, 남녀를 막론해 놓고 거지든 거지가 아니든, 권세가 있든 권세가 없든, 여자든 남자든, 애든 어른이든, 지식이 있든 없든, 학식이 투철하든 말든, 박사든 박사가 아니든, 어떠한 문제를 막론해 놓고 평등하게 응해 주시기 때문에 이 도리를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떠한 한 인간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개별적인 완성이 아니라 전체가 한데 합쳐진 완성이며, 같이 돌아가는 완성이며, 너는 너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흐르고, 이렇게 흘러가는 데서 응해 주시며 모두가 내가 될 수 있고, 내 자리가 될 수 있고, 내 손이 될 수 있고, 내 아픔이 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천백억화신으로서 응해 주시는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벌레가 될 때에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관세음보살로서 여러분 앞에 응해 주실 때에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축생으로 응해 주실 때에 부처라고 할 수도 없으며, 개 배 속에 들어갔을 때에 부처라고 할 수도 없으니 이것이 바로 길이며 진리다.

우리가 부처님의 그 길을 따른다면 올바르게 자력 신앙으로서 우리 갈 길을 똑똑하게 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게 똑똑한 건가. 모든 것을 놓고 참자기의 중심에 의해 이리로도 흔들리지 않고 저리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기' 하면 저 전구만을 보지 마시고, 그 전력을 보신다면 아마 밝음을 만들어 놓은 저 전구와 갓을 똑바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저 전구

☞ 22면으로 계속



# 자기가 자기를 못 믿기 때문에 실험을 못하고 체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 21면에서 계속

라는 물질만 보시고 스위치를 누르면 그저 밝게 불이 들어온다는 것만 아시지, 전력이 오고 가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전력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허나 여러분한테 전력이나 광력이나 또는 자력이나 통신력이 다 충만히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 내 안의 자생 중생을 제도하려면

**질문** 이 마음공부를 하는 데 우선 자기 자생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는데, 그럼 내 안의 자생 중생들을 제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여러분 몸뚱이 속에 의식들이, 생명들이, 모습들이 천차만별로 있죠? 그런데 그 생명들은 전자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대로 그 부모를 정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정해집니다. 그것이 금 차원이라면 바로 금방에 탄생이 될 거고, 또 무쇠 차원이라면 무쇠전에 무쇠로 탄생이 될 거고, 넝마라면 넝마전에서 넝마로 탄생이 될 거고 이렇듯이 그렇게 이 세상에 출현을 하게 돼 있죠.

그거는 왜냐하면 악업 선업의 인연들이 바로 내 몸뚱이 속에 주둔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기 영혼과 더불어 같이 정자 난자를 빌려서 탄생을 시키는 것이 바로 자기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진화시키고 탄생시켜 온 장본인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공 주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장이라고도 하고, 주장자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참부처라고도 하고, 참나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름은 많죠.

그런데 모든 것이 이 마음을 통해서 그 업식에서 나오는 거를 여러분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 넣어 놓은 그 입력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다시 되집어 넣으면서', 이것은 내가 주인공에 되놓으라고 항상 하는 소립니다.

되나오는 거를, 잘 나오는 거는 '잘 나오게 해서 감사해.' 하고 놓고, 또 잘못 나오는 거는 '너만이 잘 나오게 할 수 있어.' 그러고 거기다가 되넣는 겁니다. 되입력을 하는 거죠. 되입력을 해야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면서 새 입력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유전성, 업보성, 인과성, 세균성, 영계성 이 다섯 가지가 다 무너지게 됨으로써 이 나가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인이 되려면 내 자생 중생들부터 바로 조복을 받아라, 항복을 받아라 이 소리죠. 그것도 강제적으로 항복을 받는 건 항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인의롭고 유유하고 자비롭고 지혜롭게, 나오는 모든 것을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되놔야만이 다시 입력이 돼서 그게 없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되놓으라는 것, 지금 여러분한테 이끌어 주는 관법이 그대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내 내면의 자생 중생들부터의 그 의식이 마음의 선장과 더불어 한마음이 돼야 배가 지나가는데도 뒤집히지 않듯이 말입니다. 아무리 파도가 쳐도, 아무리 뇌성벽력이 쳐도 배는 잔잔히 건너갈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이 몸뚱이가 그렇게 잔잔하고 편리하고 평등하게 잘 갈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내 몸속에 있는 자생 중생들의 조복만 받는다면 그 조복받은 의식들이 전부 보살로 화해요. 보살로 화해서 천백억화신으로 화해요. 화해서 한생각을 하면 그 모든 의식들이 화해서, 즉 말하자면 분자로 화해서 입자가 돼 가지고 전부 나가서 원자로 화해요. 그래 가지고 조절을 해요. 그래서 모든 중생을 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깨닫는다 하는 거는 한울의 일체제불의 마음으로서 해인을 받는 건데, 해인의 도장을 받는 건데 그 도장의 열쇠를 받을 때 거짓이 있다면 어찌 그 도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놔야 다 얻을 수가 있고, 다 얻을 수가 있어야 다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아리송합니까? 하하하. 아리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렇게 해 보세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똥을 누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한 찰나에 그냥 거기 놓으세요,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요.

### 인성 교육에 문제가 있을까요

**질문**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삶을 살아나가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지구 문제뿐 아니라 각종 전쟁 및 사건 사고 등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우리의 인성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답변**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를 볼 때 이런 문제도 욕심이 과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처님이 나신 고장에도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한 번 두 번이나 봐줬지 세 번은 봐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착이 있으면 욕심이 붙고 욕심이 붙으면 일을 저지르는 거죠. 너무 과한 욕심은 부리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키우는 데도 여러분이 모범이 돼야 하고 또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도리를 모른다면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빗나가고 그게 뭉치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엘 가니까 어머니는 아침에 나가고 아버지는 저녁에 나가고 그러니, 애들 얼굴은 이틀에 한 번 보고 사흘에도 한 번 보고 이런 집들이 허다합디다. 그러니까 애들이 방황하게 되고, 사랑에 굶주리고 고독한 그 마음에서 따뜻한 둥지를 찾아가느라고 나쁘게들 되는 사건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나가는 엄마는 반찬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 놓고 냉장고에다가 "너를 사랑해. 우리 식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너희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엄마는 일하러 나간다. 여기 이렇게 넣어 놨으니까 꺼내 먹어라. 사랑해." 하고서 고 쪽지에다가 써서 뽀뽀라도 해서 거기 붙여 놓고, 이럭하고서 나가면 아이들이 이탈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랑이라는 것은 몸으로써 몸소 붙잡아 주고 말해 주고 이래서 사랑이 아니라, 이어지지 않으면서도 전달되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손길이란 그렇게 전달되지 않으면서 이어 가는 그 마음이죠. 거기에 자녀들과 남편을 비롯한 가족 모두가 서로 화목하게 이루어 나가고 또는 이탈되지 않는 방법이 있죠. 아무리 나쁜 일을 하고 공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말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욕을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전력은 이 전구나 저 전구나 똑같듯이 우리의 마음들도 똑같이 아들이라는 그 가설, 또는 어머니 아버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설이 된 거죠. 전력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마음으로서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고 '거기서밖에는 화목하게 할 수 없다, 거기서밖에는 병고를 낫게 할 수 없다, 거기서밖에는 액난을 물리칠 수 없다, 유전을 물리칠 수 없다' 고 믿고 모든 일체를 다 구멍 없는 구멍에 맡겨 놓고 작업을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화목을 가져오고 사랑을 가져오고, 이탈을 안 가져오고, 공부 안 하는 애들도 공부를 잘하게 되고, 정신력이 아주 투철해지고, 모든 물리가 터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행복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말하는 게 그겁니다. 누구의 탓을 하지 마시라고요. 자녀들은 부모의 탓을 하지 말고 부모는 자식의 탓을 하지 말고 또 자기네 이웃을 탓하지 말고 자기부터 돌아다보라고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자기 탓이지 왜 남의 탓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서 한생각을 해도 '에이, 그게 될까?' 이러는데 관습에 젖어 가지고 자기를 자기가 못 믿는 겁니다. 못 믿기 때문에 실험을 못 하고 체험을 못 하는 거죠. 우리는 그대로 여여하면서 그대로 실상이면서 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관습 때문에 그만 망가지는 거죠. 관습으로 인해서 착이 붙고 욕심이 붙어서 모든 일을 그르치고 자기가 자기를 밝게 못 보는 겁니다.

> **누구의 탓도 하지 마십시오.**
> **자녀들은 부모의 탓을 하지 말고 부모는 자식의 탓을 하지 말고**
> **또 자기네 이웃을 탓하지 말고 자기부터 돌아다보세요.**
>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니 자기 탓이지 왜 남의 탓입니까?**

그러니까 첫째, 사람이 돼야 하고 둘째, 가정에서도 잘 다스려야 하고 셋째,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려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행을 잘할 수가 있고 올바로 갈 수가 있고 진실하게 갈 수가 있고, 얼토당토않은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듣는데 어찌 이탈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독하게 만들고 배고프게 만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부모의 책임이 없다고도 볼 수 없죠. 학교에다가 맡겨 놓으면 다 되는 줄 알고요. 바로 2세, 자긴데요. 자기입니다. 더 발전을 해서 내 2세는 더 올바르게 진실하게 똑바로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자기를 길러 주는 부모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스려 나가면서 가정과 모든 데서 화목을 깨트리지 마시고 그저 자녀들을 기르더라도 그렇게 해 나가신다면 '아휴, 내가 어머니 아버지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었을꼬.' 하고 후회를 하면서 아마 착한 2세들이 될 겁니다. 이런 속담도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고요. 그것처럼 질질질질 물이 새니깐 남들을 모두 얼리고 빙판을 만들고 그러니 전부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하고 다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집 한 집, 한 사람 한 사람이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다더라. 그러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는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으셨구나. 우리들이 관해 보고 우리들이 관해 듣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이름 아니냐. 우리들을 떠나서 관세음보살이 어딨으며 지장이 어딨겠느냐.'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법당에 오더라도 부처님 몸과 내 몸이 둘이 아니요,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요, 그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니요, 풀 한 포기의 생명도 둘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무와 나무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서로 이어서 열매를 맺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사랑을 해서 말입니다. 저 건너편의 나무 한 그루가 이쪽 건너편의 나무 한 그루와 사랑을 해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 아시죠?

이것이 바로 전파 아닌 전파죠. 마음을 이어 가는 전파인데, 지금 남편이고 애들이고 그렇게 속을 썩여도 '허허, 주인공은 전력이 둘이 아니니까 불 들어오는 거는 전력만 있으면 다 들어오겠지.' 하고 맡겨 보세요. 너하고 나하고, 아들이다 자식이다, 이렇게 모두 알고 있는 것이 가설이 아니냐. 그럼, 네 주인공과 내 주인공이 둘이 아닌데 둘이 아니게 그저 '당신밖에는, 둘이 아닌 주인공밖에는 해결 못 하겠구나.' 하고 맡겨 놓는 작업을 할 때 벌써 다들 전파가 되거든요. 불이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인등이 켜지게 돼 있거든요.

내 마음이 스스로 밝아지니 스스로 자기가 자길 다스리게 되죠. 이 세상을 나쁘게 보는 것도 자기가 나쁘니까 나쁘게만 보거든요. 그러니 나쁘게 보지 않고 '아하, 이런 거로구나!' 하고 자기가 스스로 좋게 돌리면 좋게 돌아가게 되죠. 그럼으로써 가정에도 화목이 오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나가서도 남들을 사랑하게 되고 남들 보는 눈이 달라지죠.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면 모두가 천국으로 보이지만 여러분이 모두 악으로써 병이 들면 모든 게 악으로만 보이고 도둑놈으로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합니다. 도둑놈이면 어떻고 도둑놈 아니면 어떠랴. 나 걸음 걷는 거, 다스려 가면서 올바로 진실하게만 꾸준히 걸어갈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만났던 사람, 인연 됐던 사람이 스스로 언젠가는 착해지고 언젠가는 그런 걸음을 다 떼어 버리거든요. 더디고 이르고 그뿐인 것입니다.



현불논단

# 반드시 되돌아온다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신이라는 초월적 존재 없는 불교**
**모든 현상과 존재는 인과의 산물**
**인과 · 업, 부정적으로 봐선 안돼**
**참회하고 선행하면 좋은 과 받아**

**불교에서 강조하는 '회향'의 가치**
**서로 선한 업 나누면 모두가 보살**
**악업으로 인한 두려움 갖기보다는**
**불교적 삶 실천해 행복 찾아가자**

불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조물주, 즉 '신'이 없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만물을 창조하는 존재로 인간이 다가설 수 없는 초월적 존재를 말한다. 신이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을 구성하고 그가 살아가는 모습과 결과가 신에 의해 만들어지고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신의 종교에서는 태초의 탄생인 창세기를 두어 모든 시작을 신의 초월적 힘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불교에는 태초의 시작이라는 것이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 어디에서도 창세기를 찾을 수 없고, 그 시작에 대해서는 '무시이래(無始以來)'라는 표현으로만 등장한다. 물론 후대에 생겨난 밀교계통의 경전에서는 다소 다르지만, 이러한 점이 불교가 말하는 세계의 시작이다. 무시이래가 의미하는 태초의 시작이란 어떤 것도 없다. 그저 앞의 '인(因)'이 다음 찰나에 오는 '과(果)'를 이끌어 온다는 것으로, 모든 현상과 존재는 인과의 연속으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작용을 거친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모든 현상과 존재의 시작이며 삶이며 그 모습이다.

이러한 원인과 결과의 작용을 불교에서는 인과(因果), 연기(緣起), 인연(因緣)이라 표현하고, 2600년 전 부처님께서 깨치신 법도 바로 이 인과의 깨달음이었다. 우리는 '인과'라고 하면 '인과응보(因果應報)'라는 관념으로 인해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 그러나 인과는 자연의 모습과 우리의 삶 모든 것의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을 가졌기에 그러한 결과가 생겨난 것이고, 지금 겪는 이러한 일은 앞선 그러한 일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그렇기에 〈잡아함경〉에서도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고 설한 것이다.

인과에 대해 '업(業, Karma)'과 관련된 설명이 많다보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과에 있어 업보다 중요한 설명이 없기에 그러한 관념이 생긴 것이다. 불교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업은 과보를 불러오는데 자신이 쌓은 업은 언젠가 반드시 그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그렇기에 어떤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고, 현재 자신이 선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즐거운 과보가 되어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이를 '선인락과(善因樂果) 악인고과(惡因苦果)'라고 경전에서 말한다.

그러나 인과와 업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 바르게 참회를 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보다 나아지기 위한 노력과 선한 행동을 한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 즐겁고 좋은 일이 약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충분한 행복과 안락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 나눠주고 공유한다면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다른 이들로부터 선한 업을 나눠받고 보다 많은 즐거운 일이 더불어 생겨나게 된다. 이를 불교에서는 '회전취향(廻轉趣向)' 줄여서 '회향'이라고 한다. 회향은 특히 대승불교에서 중요한 수행으로 여겨지는데 보살이라는 존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바로 회향으로 대변된다. 보살의 회향은 어떠한 과보나 공덕을 바라는 것이 없기에 그를 통해 한결같이 중생들을 자비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다시금 그들에게 되돌려 베푼다.

인과는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그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그것을 악업으로 삼아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선한 행동과 다른 이들과의 화합으로 삼아 회향한다면 우리의 오늘과 내일에 반드시 행복한 일이 찾아오게 된다. 이것이 인과를 바르게 이해하고 불교적 삶을 실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하루도 열심히 노력한다. 자신의 노력이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 올 것을 확신하고, 그를 통해 홀로 행복한 것이 아닌 소중한 인연들과 더불어 행복을 느끼는 불교적 삶을 오늘 지금 실천해야겠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⑱ 가을 단상

# 수확과 조락 사이에서

가을이 되면 즐겨 듣는 아트록 노래 두 곡이 있다. 한 곡은 스트롭스(Strawbs)의 '가을(Autumn)'이고, 다른 한 곡은 아프로디테스 차일드(Aphrodite's Child)의 '봄, 여름, 겨울 그리고 가을(Spring, Summer, Winter And Fall)'이다. 두 곡을 듣다가 필자는 다른 계절과 달리 가을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는 두 개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됐다.

'Autumn'은 '말라가는' 내지는 '건조해지는'이라는 의미의 고대 프랑스어인 'Autumpne'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16세기 이전에는 가을을 뜻하는 일반적인 영어는 추수의 뜻을 지닌 'Havest'였다고 한다. 농촌인구가 줄어들면서 Havest의 뜻은 '가을'의 의미는 사라지고 '수확'의 의미로만 쓰이게 됐다는 것이다. 'Fall'의 다른 의미는 '떨어진다'이니, 낙엽에서 연유한 단어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말 가을은 어원이 무엇일까? '끊을'의 의미인 갓을이 가을로 바뀌었다고 한다. 아마도 벼를 벤다(끊는다)는 의미에서 연유했을 것이다.

가을은 수확의 절기이자 조락의 절기이다. 이 무렵이면 들녘이 누릇누릇해지다가 황금빛으로 출렁인다. 그 황금빛은 한 해 동안 농부가 땀 흘려서 빚은 것이다. 하지만 그 황금빛도 잠시 어느새 들녘에는 휑한 바람만이 분다. 가을산도 마찬가지이다. 과수나무에서는 꽃 핀 자리에 과일들이 매달린다. 나무마다 고운 단풍 옷으로 갈아입는다. 하지만 그 고운 단풍도 잠시 어느새 산에는 나목(裸木)들만이 즐비하게 된다.

〈벽암록〉 제27칙은 운문화상의 체로금풍(體露金風)이다.

**어떤 스님이 운문 화상에게 질문했다. "나무가 시들어 메마르고 잎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운문 화상이 대답했다. "가을바람에 나무의 본체가 완전히 드러나지."**

〈대반열반경〉 제35권에는 부루나 존자가 비유로 설하는 내용이 있다.

**"세존이시여! 마치 큰 마을 앞에 사라나무 숲이 있고, 그 숲 가운데 한 그루의 나무가 숲보다 먼저 생겨서 백년이 넘었습니다. 그 숲의 주인은 물을 주면서 철에 따라 가꾸었는데, 그 나무가 오래되어 껍질과 나뭇가지와 잎은 모두 다 탈락하고, 굳은 고갱이만 남아있습니다. 여래도 그와 같아서 낡은 것은 모두 제거해 없어지고 오직 진실한 법만 남아 있습니다."**

가을바람에 드러난 나무의 본체란 다름 아닌 번뇌가 사라진 본래면목을 의미하는 것이리라. 가을걷이를 끝낸 들녘의 휑한 자리를 보고서 우리는 "근본으로 되돌아가면 종지를 체득하고, 사물에 비친 대상을 따르면 근본을 잃어버린다"는 〈신심명(信心銘)〉의 가르침을 떠올려야 할 것이다.

〈소설가〉

社 說

# 조계종 출가장려위 출범에 부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8일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을 비롯한 10명의 스님들에게 '출가장려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종단적인 출가 장려 기구인 '출가장려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출가 관련 종단적 기구 설치는 오래전부터 주문돼 왔던 과제다. 현재 한국불교는 '출가 절벽 시대'가 도래했다. 한국불교 대표종단 조계종의 출가자 수는 2000년 528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 지난해는 61명만이 출가했다.

조계종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10년대에 들어 다양한 출가 홍보 사업 등을 진행했지만, 백약이 무효했다.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출가 장려 사업에 대한 책임이 승가교육 행정 기구인 교육원에 집중돼 있었던 점도 큰 문제 중 하나였다. 출가 장려 대상은 재가 청년 불자이기 때문에 포교 사업과의 연계가 필수였지만, 이 같은 연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렇기에 출가자 확대를 위한 종단적 '출가 T/F' 구성이 지속적으로 제안돼 왔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출가장려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제대로 된 출가 진흥 불사가 이뤄져야 한다. 불자 대중에게 불법(佛法)을 전할 승보(僧寶)의 계승 · 발전은 이제 시대적 과제다. 미래 인재인 청년들을 불교로 이끌고 승가 인재로 양성할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너져 버린 어린이 · 청소년, 청년 등 계층포교의 부활이 급선무다. 미래 불자 재원이 없는데, 출가 인재가 있을린 만무이기 때문이다.

출가장려위원장 혜일 스님은 "5년 내 연간 출가자 200명 회복"을 약속했다. 제대로 된 정책으로 이 약속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 강진 피해 모로코에 자비의 손길을

9월 8일 오후 11시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역대급 강진이 발생했다. 진도 6.8에 달하는 지진으로 모로코 내무부는 2901명이 숨지고 5530명이 다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9월 13일 기준) 하지만, 피해 지역이 광범위하고, 구조 ·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어 희생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증유의 강진 피해에 한국불교계에서 애도와 지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11일 '모로코 강진 피해 애도 및 지원 성명'을 내고 "강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로코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도 같은 날 120년 만에 대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모로코 정부와 국민들에게 애도의 메시지를 전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재단 후원자, 자원봉사자, 산하시설 종사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로코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모금 성금을 모연키로 했다. 복지재단은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아름다운동행, 더프라미스와 함께 긴급구호와 관련된 회의를 진행 후 긴급구호선발대를 신속히 파견할 예정이다. 삶의 터전을 잃게 된 모로코 국민들에게 긴급 식량과 의료물품 등 생존 필수품을 빠르게 지원, 회복을 위한 종단적 지원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불교에는 '세계일화(世界一花)'라는 말이 전해진다. '세계는 한 송이의 꽃'이라는 이 말은 '너와 내가 하나요, 만물중생이 한 몸'이라는 의미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모로코는 6.25 한국전쟁에 프랑스 UN군 소속으로 참여했다. 어떻게 보면 현재 한국을 있게 한 친우(親友)이다. 그들의 어려움은 곧 우리의 어려움일 것이다. 강진으로 상처 입은 모로코에 자비의 손길이 절실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개정판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조건이야!**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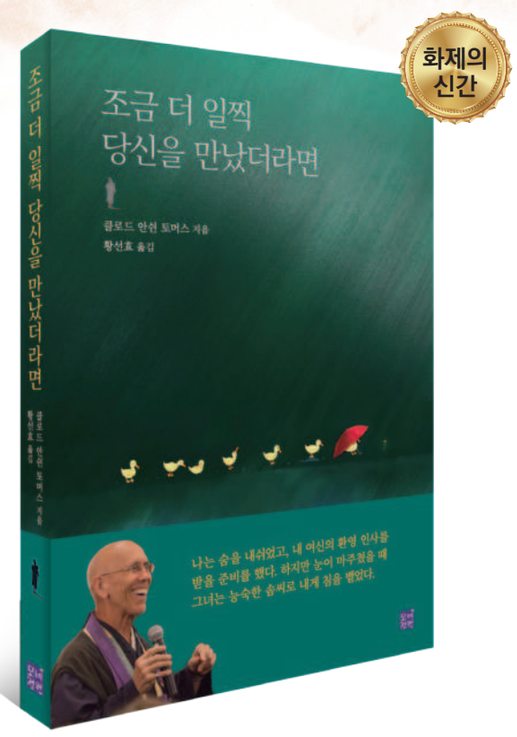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